

III

문학의 수용과 생산

대단원 길잡이

1. 문학 작품의 수용

2. 문학 작품의 내면화

3.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

대단원을 마치며

대단원 길잡이

우리는 평생 문학 활동을 한다. 아주 어릴 때는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이 들고, 옛날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쁜 일을 하면 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한다. 좀 더 자라서 기분 따라 노랫말을 흥얼거리기도 하고, 시나 소설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편지를 쓰기도 한다. 인기 도서 목록에 있는 작품을 찾아 읽기도 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찾아내고자 고민도 한다. 또한 교과서에 실린 문학 작품을 읽고,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시도 짓고 수필을 써 보기도 한다.

이처럼 문학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은 누구나 하는 일이고, 할 수 있는 일이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몇몇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스스로 자신의 언어 활동이 문학과 거리가 먼 일이라고 여겨 왔을 뿐이다. 평소에 노래를 듣고 부르는 일이 반드시 전문 가수가 되기 위한 연습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고 쓰는 일도 작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의 일부로 행하는 일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고 쓰면서 표현 욕구나 전달 욕구를 충족하고, 자아를 성장시키며, 경험을 확장할 수 있다. 나아가 공동체의 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이 단원에서는 문학의 수용과 생산의 일반적인 원리와 방법을 학습한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해 온 작품 읽기와 쓰기 경험을 바탕으로 좀 더 체계적인 원리와 방법을 적용하여 작품을 읽고 쓰는 연습을 할 것이다.

- 학습 목표**
- 1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인 연관을 고려하며 작품을 수용한다.
 - 2 섬세한 읽기를 바탕으로 작품을 다양한 맥락에서 이해하고 감상하며 평가한다.
 - 3 이해와 감상 및 평가의 결과를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내면화한다.
 - 4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재구성하고 생산한다.

한눈에 보는 대단원

이 단원은 ‘문학 작품의 수용’, ‘문학 작품의 내면화’,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학 작품의 수용’에서는 작품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작품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감상하는 능력을 기르는 학습을 한다. ‘문학 작품의 내면화’에서는 작품의 가치를 내면화하는 학습을 한다. 그리고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에서는 수용한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고,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 작품을 생산하는 연습을 한다.

1. 문학 작품의 수용	(1) 구성 요소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01 어부사시사 (윤선도) 02 파수꾼 (이강백)
	(2)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01 사씨남정기 (김만중) 02 접동새 (김소월)
2. 문학 작품의 내면화	(1) 인식적 가치의 내면화	01 김유정 생각에서 (최인호) 02 허생전 (박지원)
	(2) 미적 가치의 내면화	01 승무 (조지훈) 02 금시조 (이문열)
	(3)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	01 성북동 비둘기 (김광섭) 02 죄와 벌 (도스토옙스키)
3.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01 사평역 (임철우)
	(2) 작품의 생산	01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박태원)



1

문학 작품의 수용

- 다음 그림을 구성 요소와 맥락을 고려하여 감상해 보자.



▲ 피카소, '게르니카'

이 그림은 스페인 내전이 한창 벌어지던 1937년에 나치가 바스크 족의 수도인 게르니카를 폭격한 사건을 담은 작품이다. 나치의 폭격으로 1,500여 명의 게르니카 민간인이 희생되었고, 피카소는 이에 분노하여 이 그림을 그리게 되었다고 한다. 구체적인 참상은 찾아보기 어렵지만, 정형적이지 않은 형태와 표현이 괴기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 ① 이 그림을 흑백의 색상만으로 그린 의도를 추리해 보자.
- ② 전쟁과 관련되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내용과 형식, 표현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무엇을 배우나

회화를 비롯한 다른 예술 작품과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은 내용과 형식, 표현으로 구성된다.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가치 있는 경험’을 내용으로 하여, 이를 특정 형식에 담아 언어로 표현한 것이 문학 작품이다. 이 세 가지 요소는 유기적으로 얹혀 있기 때문에 그 상호 관계에 주목하면서 읽어야 한다. 또한 문학 작품은 특정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창작되므로 우리는 누가, 언제, 어디서, 왜 지었는가, 그리고 그 문학 작품은 언제 어디서 살았던 인물의 마음이나 삶을 그렸는가, 어떤 작품과 영향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작품을 읽어야 한다.

이 단원은 ‘구성 요소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의 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요소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에서는 작품을 이루는 내용, 형식, 표현의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에서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활동을 한다.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와 맥락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므로, 작품을 감상할 때에는 이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 문학 작품의 내용, 형식, 표현의 개념과 그 관계를 이해한다.
- 문학 작품의 구성 요소 간의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 섬세한 읽기를 통해 작품과 관련된 맥락을 찾아본다.
-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작품을 수용한다.

(1) 구성 요소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흔히 문학을 인간의 가치 있는 경험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로 정의한다. 여기에서 ‘가치 있는 경험’이 곧 내용이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어떤 인물이 생활하는 상황이나 조건, 그리고 그 속에서 인물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그의 여러 가지 생각을 이해하게 된다. 이것들을 압축해서 정리한 것이 바로 주제이다.

문학의 형식에는 갈래와 문학적 기법, 구조 등이 포함된다. 문학을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누거나 향가, 고려 속요, 시조, 판소리 등으로 나누는 것도 형식에 포함된다. 또한 비유나 상징 등의 문학적 기법이나 장치, 내용을 결합하고 배열하는 구성 방식 등도 모두 문학의 형식이 된다.

문학적 표현이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쓰던 표현을 좀 더 문학적으로 다듬은 표현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리듬감을 느끼게 하는 표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마치 그림을 그리듯 생생하게 전달하는 표현, 기쁨, 슬픔, 사랑, 감동 등 정서를 자극하는 표현, 상식적인 생각을 뒤집어 지적 깨달음을 주는 표현 등이 모두 문학적 표현에 해당한다.

문학 작품의 내용과 형식과 표현은 각각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내용에 따라 형식과 표현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어떤 형식과 표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 주제를 전달하는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용, 형식, 표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를 잘 살펴야 한다.

01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

윤선도



이 작품은 어촌에서의 삶을 노래한 시조로, 계절별로 10수씩 전체 40수로 이루어져 있다.

-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형식적 특성과 주제의 유기적 관계에 유의하여 읽어 보자.

춘사(春詞) 1

압개¹에 안기 짓고 뽕피히 히 비춘다
 비 떠라 비 떠라
밤물은 거의 디고 난물이 미리 온다
 至지匆국窓총 至지匆국窓총 於어思사臥와
江강村촌 온갓 고지 먼 빗치 더욱 도타

하사(夏詞) 2

蓮년넙히 밥 싸 두고 飯반饌찬으란 장만 마라
 달 드러라 달 드러라
靑靑簍약笠립²은 싸 잇노라 綠녹蓑사衣의³ 가져 오나
 至지匆국窓총 至지匆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無무心심흔 白백鷗구⁴는 내 좇는가 제 좇는가

추사(秋詞) 7

흰 이슬 빈견느덕⁵ 불근 들 도다 온다
 비 세여라 비 세여라
鳳봉凰황樓루⁶ 渺묘然然히니⁷ 靑靑光광을 놀을 줄고
 至지匆국窓총 至지匆국窓총 於어思사臥와
玉옥兎토의 먼는 藥약을 豪호客객⁸을 먹이고자

동사(冬詞) 8

몹의 외로운 술 혼자 어이 식식히고

비 먹여라 비 먹여라
 머흔⁹ 구름 恨흔티 마라 世世上상을 그리온다
 至지芻국窓충 至지芻국窓충 於어思사臥와
 波과浪랑聲성을 厭염티¹⁰ 마라 塵딘暄暄¹¹을 막는또다

● 어휘 풀이

1. **압개** 앞 갯벌.
2. **청악립** 푸른 갈대로 만든 갯.
3. **녹사의** 도롱이. 짚, 띠 따위로 엮어 허리나 어깨에 걸쳐 두르는 비옷.
4. **빅구** 갈매기.
5. **빈견논티** 내렸는데.
6. **봉황루** 임금이 계신 곳을 아름답게 이르는 말.
7. **묘연하니** 넓고 멀어서 아득하니.
8. **호각** 호탕한 사람.
9. **머흔** 험한.
10. **염티** 싫어하지.
11. **딘원** 속세에서 시비를 가리는 시끄러운 소리.

작품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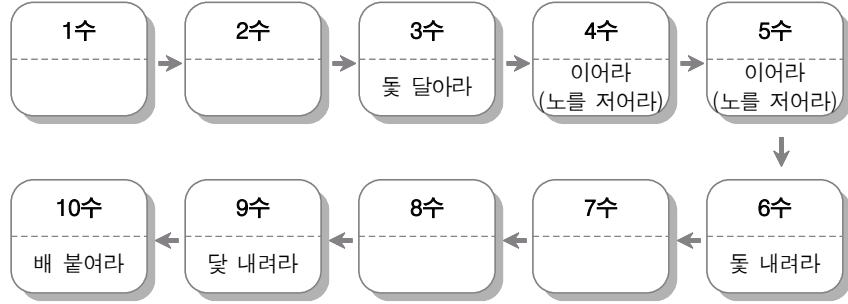
1 다음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형식적 특성을 파악해 보자.

● **도움말** 시조의 종장은 대체로 첫 마디는 3음절이고, 그다음 마디는 5음절 이상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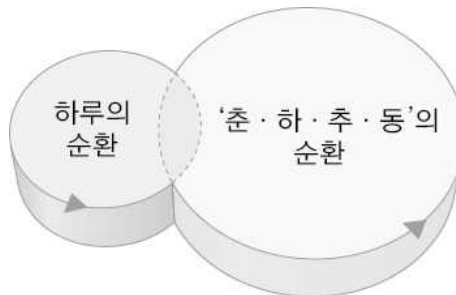
● **도움말** 노래에서 여음(餘音)은 보통 별다른 뜻이 없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하지만, 이 시조에서는 각각이 뜻을 지닌 채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1) 이 작품의 종장이 시조의 일반적 형식과 다른 점을 찾아보자.

(2) 이 작품에서는 계절별로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이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다음의 빈칸을 채워 보고, 어떠한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2 이 작품의 전체적인 구조는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다. 화자가 추구하는 삶이 이러한 구조와 유기적인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어떤 삶일지 추측해 보자.



맥락 속으로

3 다음 글을 바탕으로 이 노래가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이유를 파악해 보자.

동방에 예로부터 어부사(漁父詞)가 있었는데, 누가 지었는지 모르지만 옛 시를 모아서 곡조를 이룬 것이다. 이것을 읊조리면 강에 부는 바람과 바다에 내리는 비가 어금니와 뺨 사이에서 생겨나며, 사람으로 하여금 홀연히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려는 뜻을 갖게 한다. <중략> 그러나 소리와 울림이 서로 호응하지 않고, 말뜻이 잘 갖추어져 있지 않았으니, 이는 대개 옛것을 모으는 데 얽매었던 관계로 웅색해지는 흠을 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내 그 뜻을 부연하고 우리말을 써서 어부사를 지었다.

- ‘어부사시사’ 발문(跋文)에서

작품 너머로

4 ‘어부사시사’와 다음 작품에 나타난 화자의 삶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 어부의 두 가지 뜻
‘어부(漁夫)’는 생업으로 고기를 잡는 사람이고, ‘어부(漁父)’는 취미 삼아 풍류로 고기를 낚는 사람이다.

만경창과 노는 뱀치
우리 배가 잡어 실세
어떤 사람 팔자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부귀영화 누리건만
이놈 팔자는 무슨 팔자
뱀치잡이 웬 말이나
이 뱀치를 잡어다가
어느 누구를 살릴쏜가

나라 왕께 바친 후에
늙은 부모 봉양하고
젊은 아내 배 채우고
어린 자식 길러 보세
사람들아 웃들 마소
가시나무 이 노착을
밀었다가 당겼다가
정든 님을 남 줄망정
이 노착을 남 줄쏘나

- ‘노 젓는 소리’(전남 신안, 후렴은 생략함.)

이 작품은

우리 시가 문학사에서 독특한 형식과 뛰어난 표현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작가는 끝없이 흘러가서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하루라는 주기적 순환 현상과 연결함으로써 일회성과 영원성을 결합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춘·하·추·동 사계를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1년 단위의 주기적 순환성까지 확보하고 있다. 또한 한자와 우리말을 적절히 조화시켜 유려한 율조를 형성함으로써 여유로운 어부 생활의 즐거움과 흥취를 더욱 선명하게 부각하고 있다. 이 작품은 생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풍류를 추구하는 고기잡이의 삶을 노래함으로써 자연과의 합일을 지향하는 격조 높은 경지를 추구하고 있다.

작가에 대하여

윤선도(尹善道, 1587~1671)

조선 중기의 학자. 호는 고산(孤山). 벼슬길에 나아갔으나 치열한 당쟁과 강직한 성품 때문에 20여 년간 유배 생활을 했다. 시가 문학의 대가인 송강 정철과 함께 조선 시대 시조 시인의 으뜸으로 꼽힌다. ‘산중신곡’, ‘건회요’ 등의 시조와 문집 “고산유고”와 “고산집”이 전한다.



알짜 지식

● 여음(餘音)

시나 노랫말에서 본가사의 앞·가운데·뒤에 위치하여 의미 표현보다는 감흥과 율조에 영향을 미치는 어절이나 구절을 이르는 말이다. 이 중에서 노래 곡조 끝에 붙이는 후렴은 여음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중요한 형태이다. 주로 자연 현상에서 발생하는 소리, 악기나 생활 도구를 다룰 때 나는 소리, 감동적 심리 상태에서 나오는 소리 등을 모방한 데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시가의 분위기를 돋우고 가창을 더욱 흥겹게 하는 역할을 하며, 민요나 고려 속요에서 자주 나타난다. ‘어부사시사’의 초장과 중장 사이의 여음은 의미가 명료한 여음이다.

● 연시조

한 제목 아래 두 수 이상으로 엮어진 시조를 가리킨다. 연시조는 조선 초기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이후에 꾸준히 창작되었으며, 조선 중기와 후기에 더욱 활발하게 향유되었다. 연시조는 내용에 따라 강호 시조와 훈민 시조로 구분된다. 강호 시조로는 이황의 ‘도산십이곡’, 권호문의 ‘한거십팔곡’, 이이의 ‘고산구곡가’, 신계영의 ‘전원사시가’, 윤선도의 ‘산중신곡’과 ‘속 산중신곡’, 위백규의 ‘농가’ 등이 꼽히고, 훈민 시조로는 주세붕, 송순, 박인로 등이 각각 지은 ‘오륜가’와 정철의 ‘훈민가’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1970년대의 시대 상황을 우화의 형식을 빌려 풍자한 희곡이다.

- 촌장과 소년 파수꾼의 대사에 담긴 우의적인 뜻을 파악하며 읽어 보자.
- 중심인물이 자신의 의도와 다른 행동을 한 이유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등장인물

촌장

파수꾼 가

파수꾼 나

파수꾼 다(소년)

해설자, 촌장이 되어 등장. 검은 옷차림. 이해심이 많아 보이는 얼굴과 정중한 태도, 낮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한다.

촌장 수고하시는군요, 파수꾼님.

나 아, 촌장님. 여긴 웬일이십니까?

촌장 추억을 더듬으러 왔습니다. 이 황야는 내가 어린 시절 야생 딸기를 따러 오곤 했던 곳이지요. 그때 이리가 무섭지도 않았나 봐요. 여기저기 텃이 깔려 있고 망루 위의 파수꾼이 외치는데도 어린 난 딸기 따기에만 열중했었으니까요. 그 즐거웠던 옛 추억, 오늘 아침 나는 그 추억을 상기시켜 주는 편지를 받았습시다. 그래 이곳엘 찾아온 거예요.

나 잘 오셨습니다, 촌장님.

촌장 오래 뵈지 못했더니 그동안 흰머리가 더 많아지셨군요.

나 촌장님두요, 더 늙으셨어요.

촌장 오다 보니까 저쪽 텃에 이리가 치어 있습니다.

나 이리요? 어느 쪽이죠?

촌장 저쪽요, 저쪽. 쫓레 덩굴 밀이던가요…….

나 드디어 잡는군요!

파수꾼 나 퇴장. 촌장은 편지를 꺼내 다에게 보인다.

촌장 이것, 네가 보낸 거니?

다 네, 촌장님.

촌장 나를 이곳에 오도록 해서 고맙다.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이 편지를 가져온 운반인이 도중에서 읽어 본 모양이더라.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그 수다쟁이가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있단다. 조금 후엔 모두들 이곳으로 몰려올 거야. 물론 네 탓은 아니다. 넌 나 혼자만을 와 달라구 하지 않았니? 몰려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불청객이지. 더구나 어떤 사람은 도끼까지 들고 온다더라.

다 도끼는 왜 들고 와요?

촌장 망루를 부순다고 그런단다. ‘이리 떼는 없구, 흰 구름뿐.’ 이것이 구호처럼 외쳐지구 있어. 그 성난 사람들만 오지 않는다면 난 너하구 딸기라도 따러 가고 싶다. 난 어디에 딸기가 많은지 알고 있거든. 이리 떼를 주의하라는 팻말 밑엔 으레히 잘 익은 딸기가 가득하단다.

다 촌장님은 이리가 무섭지 않으세요?

촌장 없는 걸 왜 무서워하겠니?

다 촌장님도 아시는군요?

촌장 난 알고 있지.

다 아셨으면서 왜 숨기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저 댛을 보러 간 파수꾼에게, 왜 말하지 않는 거예요?

촌장 말해 주지 않는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다 거짓말 마세요, 촌장님! 일생을 이 쓸쓸한 곳에서 보내는 것이 더 좋아요? 사람들도 그렇게요! ‘이리 떼가 몰려온다.’ 이 헛된 두려움에 시달리는데 그게 더 좋아요?

촌장 애야, 이리 떼는 처음부터 없었다. 없는 걸 좀 두려워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나쁘다는 거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이리에게 물리지 않았단다. 마을은 늘 안전했어. 그리고 사람들은 이리 떼에 대항하기 위해서 단결했다. 그들은 질서를 만든 거야. 질서, 그게 뭔지 넌 알거나 하니? 모를 거야, 너는. 그건 마을을 지켜 주는 거란다. 물론 저 충직한 파수꾼에겐 미안해. 수천 개의 쓸모없는 댛들을 보살피고 양철북을 요란하게 두들겼다. 허나 말이다, 그의 일생이 그저 헛되다고만 할 순 없어. 그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귀하게 희생한 거야. 난 네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여 주기 바란다. 만약 네가 새벽에 보았다는 구름만을 고집한다면, 이런 것들은 모두 허사가 된다. 저 파수꾼은 늙도록 헛북이나 친 것이 되구, 마을의 질서는 무너져 버린다. 애야, 넌 이렇게 모든 걸 헛되게 하고 싶진 않겠지?

다 왜 제가 헛된 짓을 해요? 제가 본 흰 구름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어요. 저는 그걸 보여 주려는 겁니다. 이제 곧 마을 사람들이 온다죠? 잘됐어요. 저는 망루 위에 올라가서 외치겠어요.

촌장 뭐라구? (잠시 동안 침묵을 지킨 후에 웃으며) 사실 우습기도 해. 이리 떼? 그게 뭐냐? 있지도 않은 그걸 이 황야에 가득 길러 놓구, 마을엔 가시 울타리를 둘렀다. 망루도 세웠구, 양철북도 두들기구,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서 떨기도 한다. 아하, 언제부터 네가 이런 거짓 놀이에 익숙해졌는지 모르다만, 나도 알고는 있지. 이 모든 것이 잘못되어 있다는 걸 말이

다.

다 그럼 촌장님, 저와 같이 망루 위에 올라가요. 그리구 함께 외치세요.

촌장 그래, 외치마.

다 아, 이제 됐어요!

촌장 (혼잣말처럼) ……그러나 잘될까? 흰 구름, 허공에 뜬 그것만 가지구 마을이 잘 유지될까? 오히려 이리 때가 더 좋은 건 아닐지 몰라.

다 뭘 망설이시죠?

촌장 아냐. 아무것도……난 아직 안심이 안 돼서 그래. (온화한 얼굴에서 허가 넌름 나왔다가 들어간다.) 지금 사람들은 도끼까지 들구 온다잖니? 망루를 부순 다음엔 속은 것에 더욱 화를 낼 거야! 아마 날 죽이려구 덤빌지도 몰라. 아니 꼭 그럴 거다. 그럼 뭐냐? 지금까지진 이리에게 물려 죽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는데, 흰 구름의 첫날 살인이 벌어진다.

다 살인이라구요?

촌장 그래, 살인이지. (난폭하게) 생각해 보렴, 도끼에 찍힌 내 모습을. 피가 샘솟듯 흘러내릴 거다. 끔찍해. 애, 너는 내가 그런 꼴이 되길 바라고 있지?

다 아니에요, 그건!

촌장 아니라고? 그렇지만 내가 변명할 시간이 어디 있니? 난 마을 사람들에게 왜 이리 때를 만들었던가, 그걸 알려 줘야 해. 그럼 그들도 날 이해해 줄 거야.

다 네, 그렇게 말씀하세요.

촌장 허나 내가 말할 틈이 없다. 사람들이 오면, 넌 흰 구름이라 외칠 거구, 사람들은 분노하여 도끼를 휘두를 테구, 그럼 나는, 나는…… (은밀한 목소리로) 애, 네가 본 그 흰 구름 있잖니, 그건 내일이면 사라지고 없는 거냐?

다 아뇨. 그렇지만 난 오늘 외치구 싶어요.

촌장 그것 봐. 넌 내 피를 보구 싶은 거야. 더구나 더 나쁜 건, 넌 흰 구름을 믿지도 않아. 내 일이면 변할 것 같으니까, 오늘 꼭 외치려구 그러는 거지. 아하, 넌 네가 본 그 아름다운 걸 믿지도 않는구나!

다 (창백해지며) 그건, 그건 아니에요!

촌장 그래? 그럼 너는 내일까지 기다려야 해. (피로워하는 파수꾼 다를 꺼안으며) 오늘은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나도 내일은 너를 따라 흰 구름이라 외칠 테니.

다 꼭 약속하시는 거죠?

촌장 물론 약속하지.

다 정말이죠, 정말?

촌장 그럼. 정말 약속한다니까.

파수꾼 나가 들어온다.

나 또, 헛치였습니다. 이리는 워낙 교활해서요, 친 것 같아도 가 보면 달아나구 없어요.

촌장 다음에는 꼭 잡히겠지요.

나 미안합니다. 이번에 잡았더라면 그 껌질을 촌장님께 선사하구 싶었는데…….

촌장 받은 거나 다름없이 감사합니다.

나 (촌장에게 안겨 있는 다를 가리키며) 그 앤 지금 몹시 아픕니다.

촌장 네, 열이 있는 것 같군요.

나 간밤에 담요를 덮지 않아서 병이 났어요.

촌장 이만한 나이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앓는 병이겠지요.

나 내 잘못이었어요. 담요를 꼭 덮어 줘야 하는 건데. (다에게) 애야, 난 널 좋아해. 아픈 것 빨리 좀 나아 주렴.

다 (힘없이 웃으며) ……고마워요.

나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흠칫 놀라며)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촌장 마을 사람들이지요.

나 마을 사람들요?

촌장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이 애가 그 말을 꺼낸 과수꾼입니다. 저기 빙긋 웃고 있는 식량 운반인. 이 애가 틀림없지요? 네, 그렇다고 확인했습니다. 이리 떼인지 아니면 흰 구름인지, 직접 이 아이의 입을 통하여 들어 봅시다.

과수꾼 다, 쓰러질 것 같은 걸음으로 망루를 향해 걸어간다. 나가 근심스럽게 쫓아간다.

나 애야, 괜찮겠니?

다 ……네.

나 아무래도 걱정이 되는구나. 넌 이리 떼란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겁쟁이인데. 망루 위에 올라가서 엎드리면 안 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널 보러 오지 않았니? 얼마나 큰 영광이냐. 이 기회에 말이다, 넌 너 자신이 과수꾼이라는 걸 힘껏 자랑해야 한다. 알았지, 응?

촌장 그만 올라가게 하십시오.

과수꾼 다는 망루 위에 올라간다. 긴 침묵. 마침내 부르짖는다.

다 이리 떼다, 이리 떼! 이리 떼가 몰려온다!

과수꾼 거의 손이 번쩍 들려지며 그도 외친다. 과수꾼 나는 신이 나서 양철북을 두드린다. 북소리, 한 동안 계속된다.

가 북소리 중지! 이리 떼는 물러갔다.

촌장 주민 여러분! 이것으로 진상은 밝혀졌습니다. 흰 구름은 없으며 이리 떼뿐입니다. 이 망루는 영구히 유지되어야겠지요. 양철북도 계속 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이리의 습

격 때까지 잠시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 틈을 이용하여 돌아가십시오. 가시거든 마을 광장에 다시 모이시기 바랍니다. 수다쟁이 운반인의 처벌을 논의합시다. 그럼 어서 돌아가십시오. 이리 때가 여러분을 물어뜯으러 옵니다.

망루 위에서 파수꾼 다가 내려온다.

나 난 네가 이렇게 용감해질 줄은 몰랐구나.

촌장 고맙다. 정말 잘해 주었다.

나 아냐, 난 몰랐던 건 아니었어. 넌 나에게 용감한 사람이 되마구 약속하질 않았니? 난 그때 이미 알아본 거야, 넌 꼭 훌륭한 파수꾼이 될 거라구.

촌장 애, 나 좀 보자. (한갓진 곳으로 데리고 가서) 너한테는 안됐지만, 넌 이곳에서 일생을 지내야 한다.

다네?

촌장 마을엔 오지 말아라.

다 (침묵)

바람 부는 소리가 거칠게 들려온다.

촌장 난 저 사람들이 싫어. 내 마음은 너와 함께 딸기 따기에 가 있다. 넌 내 추억이야. 너에게는 내가 늘 그리워하던 것이 있다.

사이.

촌장하지만, 여긴 너무 쓸쓸해.

사이.

촌장미안하다.

사이.

촌장 그럼, 잘 있거라.

나 가시려구요, 촌장님?

촌장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서요.

나 제가 저만큼 바래다 드리지요. 텃도 좀 살펴볼 겸 해서요. (함께 걸어가며) 그런데 말입니다, 양철북을 치던 내 모습이 멋있지 않던가요?

촌장과 파수꾼 나, 퇴장한다. 바람 소리만이 더욱 거칠어진다. 잠시 후, 망루 위의 파수꾼이 ‘이리 떼다!’ 외친다. 파수꾼 다는 조용히 양철북을 두드리기 시작한다.

- 막 -

전체 줄거리_ 황야에 세워져 있는 망루 아래에서 파수꾼 ‘다’는 이리 떼의 습격을 감시한다. 파수꾼들이 양철북을 두드리면 마을 사람들은 즉시 만반의 준비를 한다. 파수꾼 ‘다’는 이리 떼가 몰려온다는 파수꾼 ‘가’의 외침과 양철북 소리에 항상 겁먹고 긴장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 신호에 겁을 먹고 피하다가 다리도 부러지고 우물에 빠져 죽기도 한다. 어느 날 파수꾼 ‘다’는 다른 파수꾼들이 잠을 자는 사이에 망루에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리 떼는 없고 흰 구름만 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그 사실을 촌장에게 알리자 촌장은 망루까지 찾아와 이리 떼가 없음을 인정하지만, 이리 떼에 대한 경계심으로 마을의 질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그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설득한다. 파수꾼 ‘다’는 진실을 말하고자 하지만 결국 촌장의 설득에 넘어가 파수꾼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 읽기 중 활동

- ❓ ‘도끼’와 ‘딸기’는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동원한 것이다.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추리해 보자.
- ❓ ‘안전’, ‘단결’, ‘질서’와 같은 덕목을 중심으로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촌장의 논리를 비판해 보자.
- ❓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촌장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 촌장의 위선적인 정체성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행동을 찾아보자.
- ❓ 촌장과 파수꾼 ‘다’ 사이에 이루어진 타협이 진정한 타협인지 판단해 보자.
- ❓ 촌장이 ‘늘 그리워하던 것’이 무엇인지 추측해 보자.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에서 파수꾼 ‘다’를 설득하는 촌장의 말하기 방식의 특성을 살펴보자.

- (1) 촌장이 파수꾼 ‘다’를 설득하기 위해 든 근거를 정리해 보자.
- (2) 촌장이 하는 말의 표현상 특성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말해 보자.

2 이 작품은 현실을 우화적으로 그리고 있다. 촌장, 파수꾼 ‘나’와 ‘다’, 마을 사람들은 각각 어떤 인물을 형상화하고 있는지 추리해 보자.

● **도움말** 이 작품이 1970년대의 정치적 상황을 그리고 있음을 고려하여 당시의 전형적인 인물을 떠올려도 되지만, 우리 주변의 인물 중에서 찾을 수도 있다.

등장인물	형상화의 대상
촌장	
파수꾼 ‘나’	
파수꾼 ‘다’	
마을 사람들	

3 이 작품의 형식과 내용의 관계를 알아보자.

● **도움말** 237쪽 ‘알팜 지식’의 ‘아이러니’를 참고한다.

- (1) 이 작품을 아이러니의 구조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 (2) 이러한 구조를 바탕으로 이 작품의 주제를 추측해 보자.

맥락 속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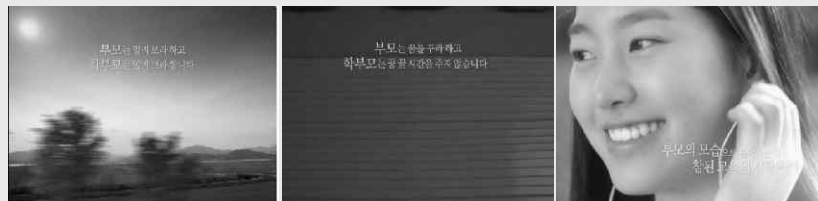
- 4 이 작품은 '늑대와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주요 원천으로 삼고 있다. 다음 기준에 따라 두 작품을 비교해 보자.

구분	'늑대와 양치기 소년'	'파수꾼'
진실 왜곡의 주체		
진실 왜곡의 의도	심심풀이	
진실 왜곡의 피해자		

작품 너머로

- 5 다음의 광고 문안에 나타난 아이러니를 '파수꾼'의 아이러니와 비교하여 말해 보자.

● **도움말** 동일한 인물에게 부모와 학부모라는 이중의 정체성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부모는 멀리 보라 하고
학부모는 앞만 보라 합니다

부모는 함께 가라 하고
학부모는 앞서 가라 합니다

부모는 꿈을 꾸라 하고
학부모는 꿈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당신은 부모입니까
학부모입니까

부모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
참된 교육의 시작입니다.

이 작품은

철책 저 너머에는 흰 구름만 있을 뿐 이리 떼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리 떼가 왔다고 외쳐야만 평화로울 수 있는 아이러니의 상황을 담고 있는 희곡이다. 이는 체제 안정을 명분으로 언론을 탄압하고 북한과의 긴장 관계를 지속하던 1970년대의 억압적인 사회 상황을 우의적으로 그려 낸 것이다. 또한 소년 파수꾼에 의해 그 진실이 알려지려고 하는 순간에, 마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상의 적 이리 떼의 존재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촌장의 논리 또한 당시 시대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실제적인 사건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의 축이 미약할 수밖에 없지만, 당시의 관객들은 우화 속에 감추어진 진실을 발견하는 데서 조심스럽게나마 쾌재를 부를 수 있었을 것이다.

작가에 대하여

이강백(李康白, 1947~)

극작가. 1971년에 ‘다섯’으로 등단하였다. 우화적·비유적 기법을 많이 사용하여 ‘알레고리의 작가’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권력의 위선을 폭로하는 작품과 제도의 이면에 있는 인간의 보편적 삶의 논리를 탐색하는 작품을 많이 썼다. 대표작으로 ‘알’, ‘결혼’, ‘영월행 일기’, ‘느낌, 극락 같은’ 등이 있다.



알팜 지식

● 아이러니

아이러니는 흔히 ‘반어(反語)’로 번역되지만,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의미로 나누어진다. 첫째, 언어적 아이러니는 말하고자 하는 의도와 실제 표현이 정반대인 것을 가리킨다. 둘째, 극적 아이러니는 화자로 하여금 관중들은 쉽사리 알아챌 수 있지만, 자신은 무의식적으로 숨겨진 의미를 가진 말을 하게 하는 연극상의 기법이다. 셋째, 상황적 아이러니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동을 하지만 그 결과가 의도와 동떨어진 경우를 가리킨다.

● 우화(寓話)

‘우화’라는 단어에서 ‘우(寓)’는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흔히 쓰이지만, ‘남에게 붙어살다’, ‘기대어 살다’ 등의 의미도 지닌다. 그러므로 우화는 남에게 기댄 이야기라는 뜻이 된다. 여기에서 ‘남’은 주로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이 등장하기도 한다. 우화는 그 ‘남’에 해당하는 동물이나 식물을 통해 ‘나’ 또는 ‘우리’와 같은 인간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우화는 항상 겉으로 드러나는 의미와 함께 상징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게 된다. 그 상징적인 의미는 주로 인간의 약점이나 사회의 부조리이다. 이를 풍자함으로써 지혜나 교훈을 던져 준다. 그래서 우화를 가리켜 이야기를 육체로 삼고 도덕을 정신으로 삼는다고 한다.

(2)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우리 민족은 붉은색이 벽사(辟邪), 즉 요사스러운 귀신을 물리치는 힘을 지니고 있다고 믿었다. 동지에 붉은색 기운이 도는 팔죽을 끓이고, 신부의 옷차림에 붉은색이 많은 것도 그러한 믿음 때문이었다. 그런데 요즈음에는 붉은색을 정열을 상징하는 색으로도 받아들인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기호는 자체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를 둘러싼 환경이나 조건 안에서 특정한 의미를 지닌다. 여기에서 말한 환경이나 조건이 바로 맥락이다.

문학 작품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문학사적 맥락 속에 놓여 있다. 이 중에서 사회·문화적 맥락은 여러 가지로 구성된다.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생산한 것인가 하는 점은 작품의 이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그리고 그 작품을 즐겨 향유한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는 점도 맥락을 이루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문학을 생산하고 향유한 사람들이 처했던 역사적 환경과 조건도 빠뜨릴 수 없다. 여기에 작품이 향유되는 상황도 추가될 수 있다. 나아가 말로 연행되었는가 아니면 글자로 정착되어 향유되었는가의 차이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문학사적 맥락은 작품을 읽거나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된다. 작품의 생산과 수용 과정에서 문학사적 맥락은 주제와 소재, 사상, 세계관, 인생관, 자연관, 추구하는 가치, 모티프, 상징성 등의 내용적인 측면, 장르적 특성이나 짜임새 등의 형식적인 측면, 운율이나 문체, 수사법 등의 표현적인 측면 모두에서 두루 영향을 끼친다. 시대적으로 선후에 있는 작품들 간의 영향 관계는 문학사적 맥락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진 요소가 된다.

문학 작품은 하나하나가 개별적 의미를 지니기도 하지만, 그것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다양한 맥락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해할 때 더 의미가 풍부해진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깊이 있게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문학 작품을 사회·문화적 맥락, 문학사적 맥락과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작품은 김만중이 유배 생활 중에 지은 것으로 알려진 소설이다.

- 당대의 보편적 관념이나 풍습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작가의 창작 의도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소사(少師)¹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謝) 급사(給事)² 댁에는 남자가 없지. 매파를 통해 혼사를 의논하도록 해야겠어.’

소사는 이윽고 주파³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다. 사 급사 부인이 주파를 불러 보았다. 주파는 먼저 유 소사 가문이 대대로 부귀하며 한림⁴의 문채와 풍류가 빼어남을 칭찬했다. 주파는 이어서 다시 말했다.

“어느 재상인들 소사에게 혼인을 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소사께서는 ‘소저⁵의 천자(天姿)⁶가 국색이요 재덕이 출중하다.’라는 소문을 들으셨답니다. 이에 소인으로 하여금 중매를 서게 한 것입니다. 부인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부인은 매우 기뻐했다. 그렇지만 소저와 의논하고자 주파를 기다리게 하고 소저의 침소로 갔다. 부인은 주파가 말한 대로 전하고 소저의 뜻을 물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생각을 숨기지 마라.”

그러자 소저가 대답했다.

“소녀가 들으니 유 소사는 당대의 어진 재상이라 합니다. 혼인을 맺음에 불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주파의 말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소녀가 듣건대 ‘군자는 덕을 귀히 여기되 색을 천하게 여기며, 숙녀는 덕을 가지고 시집을 가되 색으로 지아비를 섬기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파가 먼저 소녀의 색을 칭찬했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몹시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씨 댁의 부귀함은 크게 자랑하면서도 우리 선급사(先給事)⁷의 성덕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혹시 주파가 미천한 사람이라서 소사의 뜻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요? 그러한 것이 아니라면 소위 ‘유 소사가 어진 사람’이라는 말은 헛소문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녀는 그 댁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 급사 부인은 평소 딸을 몹시 사랑했다. 어찌 그 뜻을 어길 리가 있겠는가? 부인은 밖으로 나가 주파에게 말했다.

“소사께서는 소녀의 재색에 대해 잘못 들으셨던 것이요, 소녀는 가난한 집에서 성장했소. 손으로 직접 방적하면서 여공(女工)⁸이나 조금 익혔을 따름이랴오. 어찌 부귀한 집안의 부인에 걸맞은 화용성식(花容盛飾)⁹이 있을 리 있겠소. 혼사를 맺은 후에는 필시 소문과 다르다 해 죄를 얻을 것이요, 그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지요. 그러니 그렇게 회보해 주시기 바라오.”

주파는 그 말을 듣고 몹시 이상하게 여겼다. 이에 재삼 흔쾌한 승낙을 얻고자 노력했다. 그

렇지만 부인의 말에는 변함이 없었다.

주파는 돌아가 소사에게 그대로 아뢰었다. 소사는 자못 불쾌했다. 한동안 말을 하지 않더니 다시 주파에게 물었다.

“애초 자네가 무엇이랴 말을 하셨던가?”

주파는 자신이 했던 말을 빠짐없이 전했다.

그제야 소사는 깨닫고서 웃었다.

“내가 일에 소홀해 자네를 제대로 가르쳐 보내지 못한 탓일세. 잠시 물러나 계시게.”

소사는 그 이튿날 친히 신성(新城)으로 가 지현(知縣)¹⁰을 만났다. 사 급사 댁과 청혼하는 문체에 대해 이야기하려는 것이었다.

“일찍이 매파를 보내 혼인할 뜻을 전하게 했지요. 그런데 저 댁의 대답이 그러했습니다. 필시 매파가 실언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수고롭겠지만 선생께서 한번 사 급사 댁을 방문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지현이 대답했다.

“노 선생께서 명하시는데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다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다른 말씀은 하실 것이 없습니다. 단지 ‘선급사의 청명(淸名)을 흠모하고, 소저가 부덕(婦德)을 갖추었다고 들었다.’라는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저 댁에서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삼가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지현은 마침내 아전을 사씨 댁으로 보냈다. ‘지현 상공께서 장차 찾아오실 것이다.’라고 전하게 했다. 부인은 그 행차가 혼사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객당을 청소하고 지현을 기다렸다.

이튿날 아침 지현이 도착했다. 소저의 유모가 소공자 희랑을 품에 안고 나아가 지현을 영접했다. 유모는 객당 마루로 지현을 안내하고 물었다.

“주인께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린 주인께서도 나이가 어려 아직 손님을 접대할 줄 모르십니다. 노야(老爺)¹¹께서 무슨 일로 이렇게 왕림하셨습니까?”

“다른 일이 아니라, 어제 유 소사께서 관아로 오셔서 내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네. ‘아들 혼사 때문에 처자가 있는 집을 찾은 바가 적지 않았으나 하나도 마음에 드는 곳이 없었습니다. 듣건대 사 급사 댁 처자는 유한(幽閑)¹²하고 요조(窈窕)¹³해서 여사(女士)의 풍모가 있합니다. 이는 진정 내가 찾던 사람입니다. 하물며 선급사의 청명과 직절(直節)¹⁴은 평소 흠양 하던 바였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매파를 보내었으나 좋은 대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매파가 실언해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이지. 이제 나를 중매로 삼아 진진지호(秦晉之好)¹⁵를 맺으려 하신다네. 이는 좋은 일이지. 바라건대 노부인에게 아뢰어 한마디 승낙하신다는 말씀을 얻고자 하네.”

유모는 집 안으로 들어갔다가 곧 다시 나와 부인의 말씀을 전했다.

“노아께서 소녀의 혼사를 위해 누실로 왕립하시니 참으로 황공합니다. 말씀하신 바 유 소사택과의 혼사는 다만 감당치 못할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어찌 명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지현은 기뻐하며 돌아가 유 소사에게 편지로 통지했다. 소사도 크게 기뻐하며 길일(吉日)을 택했다. 유 한림이 육례(六禮)¹⁶를 갖추어 친히 신부를 맞이했다. 사 소저 위의를 성대함과 예도의 아름다움을 두고 당시 진신(縉紳)¹⁷들 사이에서는 부러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유 한림이 사 소저와 혼인을 맺었다. 참으로 이른바 ‘요조숙녀(窈窕淑女) 군자호구(君子好逑)’¹⁸의 격이었다. 반합(胖胖合)¹⁹하는 의(義)와 화락한 정(情)은 그윽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튿날 대추와 밤을 받들고 소사에게 예를 올렸다. 사흔날은 가묘(家廟)로 올라가 조종신령(祖宗神靈)에게 고유(告由)²⁰했다.

그때 친척과 빈객들이 마루에 가득했다. 못사람들 모두 소저를 응시하고는 단지 ‘향기로운 난초가 봄바람에 흔들리고 하얀 연꽃이 가을 물에 비치는 광경’을 볼 수있을 뿐이었다. 진퇴하는 거동이 예법을 지켜 조금도 어긋나는 바가 없었다. 사람들은 모두 떠들썩하게 칭찬하며 소사에게 치하를 올렸다.

예를 마치자 소사가 신부를 가까이 불러 물었다.

“내가 일찍이 신부가 지은 관음찬²¹을 보고는 그 재정(才情)²²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 이제 생각하니 풍월을 읊은 작품도 적지는 않을 듯한데, 어떨까?”

“한묵(翰墨)²³을 회롱하는 일은 여자가 할 바가 아닙니다. 아울러 재질도 둔해 일찍이 지은 적이 없습니다. 관음찬은 어머니 명을 받고 마지못해 지었던 것입니다. 누추한 글이 존람(尊覽)²⁴에 들어가리라고는 미처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진실로 한묵이 여자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로부터 현숙한 부인들이 독서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는 착한 일을 본받고 악한 일을 경계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신부는 이제 우리 가문에 들어왔네. 앞으로 장부를 어떻게 섬기려 하는가?”

“어린 시절 엄부를 여의고 편모의 과애(過愛)를 받으며 성장해 배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모께서 문에서 전송하면서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경계해 지아비의 뜻을 어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따른다면 아마도 대과(大過)는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아비를 어기지 않는 것이 부도(婦道)라 한다면, 지아비에게 허물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따라야 한다는 말인가?”

“그런 뜻으로 올린 말씀은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부부의 도는 오류를 고루 겸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비에게는 간언하는 아들이 있고, 임금에게는 간쟁하는 신하가 있습니다. 형제는 서로 정도로 권면하고, 봉우는 서로 선행을 권유합니다. 부부의 경우라 하여 어찌 유독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자고로 장부가 부인의 말을 들으면 이익은 적고 폐해가 많았습니다. 암탉이 새벽에 울고 철부(哲婦)²⁵가 나라를 기울게 하는 것은 경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소사는 빈객들을 돌아보았다.

“우리 며느리는 조대가(曹大家)²⁶ 같은 사람입니다.”

이어 한림을 돌아보았다.

“어진 아내를 얻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란다. 네가 내조할 아내를 얻었구나. 내가 무엇을 더 염려하겠느냐?”

이윽고 시비에게 명해 상자 속에 있던 보경(寶鏡) 한 면과 옥환(玉環) 한 쌍을 가져오게 했다. 소사가 그것을 소저에게 주었다.

“이것은 우리 집안에서 세전(世傳)하는 구물(舊物)이니라. 신부의 명석함은 거울과 같고, 덕성은 옥에 비길 만하지. 애오라지²⁷ 정을 표하려는 것이야.”

소저는 일어나 절을 하고 나서 받았다. 그날 소사와 사람들은 모두 크게 기뻐해 취하도록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파했다.

소저가 유씨 댁에 들어간 후, 시부모는 효성을 다해 섬기고, 비복은 은혜로운 마음으로 대했다. 제사는 정성을 기울여 받들고, 가사는 법도에 맞게 다스렸다. 금슬이 조화를 이루고 꽤 오래 소리가 쟁쟁했다. 규문(閨門)은 물처럼 맑고 화기가 봄날처럼 가득했다.

전체 줄거리_ 명나라 가정 연간 금릉 순천부에 사는 유현의 아들 연수(延壽)는 15세에 한림학사를 제수 받는다. 나이가 어려 10년을 더 수학한 뒤에 출사하겠다고 하자 천자는 특별히 6년 동안의 여가를 준다. 유 한림은 덕성과 재학을 겸비한 사씨와 결혼하지만 사씨는 9년이 지나도 출산을 못 한다. 이에 사씨가 남편에게 새로이 여자를 얻기를 권하자, 마지못해 교씨를 맞아들여 아들 장주를 얻는다. 얼마 후 사씨도 혼인한 지 10년 만에 아들 인아를 낳는다. 교씨는 문객 동청과 모의하여 남편 유 한림에게 온갖 참소를 다하여 사씨를 폐출시키는 데 성공하고, 심지어 유 한림을 천자에게 참소하여 유배시킨다. 유 한림을 고발한 공로로 지방관이 된 동청은 교씨와 함께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등 갖은 악행을 저지른다. 이때 조정에서는 유 한림에 대한 혐의를 풀어 소환하고, 충신을 참소한 동청을 처형한다. 정배가 풀려 고향으로 돌아온 유 한림은 사씨의 행방을 찾고, 남편이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은 사씨는 산사에서 나와 남편을 찾아 나선다. 도중에 해후한 두 사람은 고향으로 돌아와 간악한 교씨를 처형하고 사씨는 다시 정실이 된다.

● 어휘 풀이

1. **소사** 태자소사(太子少師)의 줄임말. 태자소사는 태자를 가르치던 스승의 일원. 여기에서는 유연수의 아버지 유현을 가리킴.
2. **급사** 급사중(給事中)과 같은 말로 황제를 좌우에서 보좌하던 관료의 일원.
3. **주파** 성이 주씨인 매파라는 뜻.
4. **한림** 한림편수(翰林編修)를 줄여 부르는 말. 조서의 초안을 잡는 등 문서와 관련된 일을 담당했음. 한림은 유연수의 직함으로서 여기에서는 유연수를 가리킴.
5. **소저** '아가씨'를 한문 투로 이르는 말.
6. **천자** 타고난 용모 또는 맵시.
7. **선급사** 여기서는 사정옥의 아버지.
8. **여공** 예전에 부녀자들이 하던 길쌈질.
9. **화용성식** 꽃처럼 아름다운 얼굴이나 화려한 꾸밈.
10. **지현** 현의 으뜸 벼슬아치.
11. **노야** 남을 높여 이르는 말.
12. **유한** 여자의 성품이 조용하고 그윽함.
13. **요조** 여자의 행동이 얹전하고 정숙함.
14. **직절** 곧은 절개.
15. **진진지호** 혼인을 맺은 두 집 사이의 가까운 정(情誼)를 이르는 말. 중국의 진(秦)나라와 진(晉)나라의 왕실이 혼인을 맺고 지낸 데서 유래함.
16. **육례** 청혼의 예물을 보내는 데서 시작하여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아내를 맞이하는 데 이르는 여섯 단계의 절차.
17. **진신** 홀을 큰 띠에 꽂는다는 뜻으로, 모든 벼슬아치를 통틀어 이르는 말.
18. **요조숙녀 군자호구** 점잖은 숙녀는 군자의 좋은 짝이라는 뜻. "시경(詩經)"에 나오는 시의 한 구절.
19. **반합** 짝이 잘 맞아 의가 좋음.
20. **고유** 중대한 일을 치른 뒤에 그 내용을 사당이나 신명에게 고함.
21. **관음찬** 관음보살(觀音菩薩)의 공덕을 찬양하여 부르는 노래 글귀. 앞서 유연수의 고모인 두 부인이 사정옥의 재덕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관음찬을 짓게 한 바 있음.
22. **재정** 재치 있는 생각.
23. **한묵** 글을 짓거나 쓰는 것을 이르는 말.
24. **존람** 남이 관람함을 높여 이르는 말.
25. **철부** 어질고 사리에 밝은 여자.
26. **조대가** 후한 조세숙(曹世叔)의 아내 반소(班昭)를 높여 부르는 말. 반소는 박학해 궁중에 들어가 왕후와 귀인들을 가르쳤으며, 오빠 반고(班固)가 한서를 찬술하다가 마치지 못하고 죽자 뒤를 이어 그것을 찬술했음.
27. **에오라지** '오로지'를 강조하여 이르는 말.

● 읽기 중 활동

- ❓ 소저가 유 소사 집안과의 혼인을 거절한 이유를 파악해 보자.
- ❓ '부도(婦道)'에 대한 사 소저의 생각을 당대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평가해 보자.

작품 속으로

● 도움말_ 247쪽 ‘알뜰 지식’의 ‘재자가인형 인물’을 참고한다.

1 이 작품의 주인공인 사정옥을 재자가인형 인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아보자.

2 이 작품에서 당시의 가부장적 사회 상황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을 찾아보자.

맥락 속으로

3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사씨남정기’를 한문으로 번역한 김춘택의 평이다. 그는 김만중의 후손이다.

이를 읽는 사람은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은 이가 없으니, 사씨가 고난에 처해서도 지킨 절개와 한림의 개과한 아름다움이 모두 하늘에 뿌리를 두고 본성에 갖추어져서 그리된 것에 감동함이 아니겠는가. 읽는 사람이 통분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또 교씨와 동청의 악행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럴 뿐만 아니라 이를 확대하여 의리를 따져 본다면 장차 사람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없을 것이다. 이른바 방신(放臣)●·원처(怨妻)와 그 주인(主人)이 천성(天性)과 민이(民彝)●를 서로 계발하게 하는 점은 “초사(楚辭)●”와 같고, 이른바 사람의 선심(善心)을 감발케 하고 사람의 일지(逸志)●를 징계하는 점은 거의 “시경(詩經)”에 가깝다. 그러니 이 소설을 어찌 다른 소설과 같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선생께서 한글로 지으신 것은, 대개 여항 부녀(閭巷婦女)●들로 하여금 읽고 외우며 보아서 감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니 참으로 우연한 일은 아니다.

- 김춘택, “북헌집”에서

- 방신 내쫓김을 당한 신하.
- 민이 사람이 지켜야 할 떳떳한 도리.
- 초사 중국 초나라 굴원(屈原)의 사부(辭賦)와 그의 제자 및 후인의 작품을 모아 엮은 책.
- 일지 도리에서 벗어난 뜻.
- 여항 부녀 서민층에 속한 부녀자.

(1) 작가가 이 작품을 한글로 창작한 의도를 추측해 보자.

(2) 당시의 여항 부녀들이 사정옥을 어떤 인물로 받아들였을지 말해 보자.

작품 너머로

4 이 작품은 인현 왕후 폐위 사건을 풍자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 사건을 소재로 한 ‘인현왕후전’의 줄거리를 참고하여 두 작품의 인물을 비교해 보자.

◎ 인현왕후전

조선 시대의 역사 전기 소설. 숙종이 인현 왕후를 폐위하고 장 희빈을 맞아들인 궁중 비극을 생생하게 그려 낸 작품으로, 정조 때 어떤 궁녀가 지은 것으로 추정된다.

인현 왕후는 숙종과 결혼 후 6년이 지나도록 태기가 없었으므로 왕후는 스스로 후궁을 천거하였다. 이 사람이 바로 시비 출신 궁인 장씨로, 임금의 뜻을 잘 받들고 총애를 받아 아들(후에 경종으로 즉위)을 낳고 희빈이 되었다. 아들을 낳은 뒤 희빈 장씨는 자신이 왕비가 되고자 왕후를 모함하여 폐위시켰다. 이후 장씨는 더욱 권세를 부리고 폐악한 행실을 보이다가 숙빈 최씨(인현 왕후의 나인)를 독에 가두어 죽이려고 했다. 이 사건이 발각되어 장씨는 사사(賜死)되고 인현왕후는 복위되었다.

● **도움말** 244쪽 ‘사씨남정기’의 전체 줄거리를 참고한다.

인현왕후전

인현 왕후

숙종

희빈 장씨

⋮

⋮

⋮

사씨남정기

이 작품은

사대부가의 처첩 갈등을 중심축으로 하여 당쟁과 같은 정치적 갈등도 함께 문제 삼고 있는 소설이다. 원본이 한문인가 한글인가 하는 문제와 당대의 희빈(禧嬪) 장(張)씨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는지의 여부는 아직 논란 중이지만, 대체로 한글본이 우선한다는 의견과 희빈 장씨 사건에 대한 문학적 풍자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치밀한 구성과 섬세한 심리 묘사로 당대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려 내고 있으며, 주제 의식과 당대 독자들의 기대 지평의 일치 등으로 인하여 사대부들로부터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처첩 갈등형 가정 소설이라는 하나의 유형을 형성시키는 바탕이 된 작품이기도 하다.

작가에 대하여

김만중(金萬重, 1637~1692)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소설가. 호는 서포(西浦), 시호는 문효(文孝). 아버지 익겸이 정축 호란(1637년) 때 강화도에서 순절함에 따라 유복자로 태어났다. 관료로 발을 디딘 후 여러 벼슬을



거치다가 인선 대비(仁宣大妃)의 상복 문제로 서인이 패배하자 관직을 삭탈당했다. 이후에도 관계 복귀와 유배를 거듭하다가 인현 왕후 폐위 사건과 관련하여 유배된 남해에서 생을 마쳤다. 우리말과 우리글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구운몽’, ‘사씨남정기’와 같은 국문 소설을 창작했다.

알짜 지식

● 가정 소설(家庭小說)

한 가정 내에서 처와 첩 사이, 남편과 아내 사이, 자식들 사이의 갈등과 대립을 그려 낸 소설을 가정 소설이라 한다. 가정 소설은 보통 한 가정, 한 세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시·공간적 배경이 두 가문 이상 혹은 두 세대 이상인 가문 소설과는 구별된다. 가정 소설은 가족 간의 갈등을 주로 다루어서 여성들이 주된 독자층을 이루었다. 소설을 황당무계하다고 비판했던 조선 사대부 계층에서도 가정 소설만큼은 감계(鑑戒)의 뜻이 함축되어 있다고 호평을 하였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창선감의록’, ‘사씨남정기’, ‘정을선전’, ‘장화홍련전’ 등이 있다.

● 재자가인형(才子佳人型) 인물

재자가인형 인물은 특별히 서사 문학에서 탁월하거나 비범한 재주나 용모, 풍채, 미모, 능력 등을 가진 인물을 가리킨다. 본래 신화에서 신성한 혈통을 이어받은 영웅적인 인물이 소설에 이르러서 다소 그 자질이 약화된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향유자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질이 필수적이었다고 설명된다. 전승 과정에서 쉽게 기억되기 위해서라도 비범한 자질이 필요했을 것이다. 오늘날에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개인적 능력, 사회적 지위, 경제적 부 등의 측면에서 비범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이 작품들이 대중들의 관심과 성원을 받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 작품은 민간에서 구전되어 오던 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근대의 민요시이다.

- 화자의 목소리에 담긴 정서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 설화와 민요의 전통적 맥락을 고려하며 읽어 보자.

접동

접동

아우래비 접동

진두강¹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읍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의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 보라

오오 불설위²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흠이나 남아 되던 오랩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 산 저 산 읊아가며 슬피 읍니다

● 어휘 풀이

1. 진두강 평안도 백천 지역에 있는 강.
2. 불설위 몹시 서러워.

작품 속으로

1 시어에 대한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1) '아홉'과 오라비의 방언인 '오래비'를 합쳐서 굳이 '아우래비'라는 말을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 (2) '강'과 '가람'은 동의어이다. 의미의 중복이 일어나는데도 '진두강 가람가'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2 다음 구절을 낭송할 때 어떻게 끊어 읽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토의해 보자.

● **도움말** 정해진 규칙은 없다. 시의 정서와 분위기를 살리면서, 나머지 구절들을 끊어 읽는 방식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진두강 ∨ 가람가에 ∨ 살던 누나는 / 의붓어미 ∨ 시샘에 ∨ 죽었습니다.

진두강 ∨ 가람가에 ∨ 살던 ∨ 누나는 / 의붓어미 ∨ 시샘에 ∨ 죽었 ∨ 습니다.

진두강 ∨ 가람가에 ∨ 살던 ∨ 누나는 / 의붓어미 ∨ 시샘에 ∨ 죽었 ∨ 습니다.

맥락 속으로

3 다음은 이 시의 바탕이 된 설화의 줄거리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옛날 진두강가에 10남매가 부모를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의붓어미가 들어왔는데, 의붓어미는 아이들을 심하게 구박하였다. 큰누이가 어느 부잣집 도령과 혼약하여 많은 예물을 받게 되자, 이를 시기한 의붓어미가 그녀를 장롱에 가두고 불에 태워 죽였다. 동생들이 슬피하며 타고 남은 재를 헤치자 죽은 누이의 화신인 접동새가 날아올랐다. 관가에서 이를 알고 의붓어미를 잡아다 불에 태워 죽였는데, 재 속에서 까마귀가 나왔다. 접동새는 동생들이 보고 싶었지만, 까마귀가 무서워 밤중에만 와서 울었다.

- (1) 이 설화가 시로 창작되는 과정에서 시인이 선택하거나 배제한 요소를 말해 보자.
- (2) 이 설화를 읽고 다시 작품을 읽은 후, 감상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4 이 시의 민요시적 성격을 탐구해 보자.

◎ aaba 형 짜임

동일하거나 유사한 어휘가 두 차례 반복되고, 다른 어휘가 한 번 나온 뒤에 앞에서 반복된 어휘가 다시 한 차례 더 반복되는 짜임을 가리킨다.

- (1) 민요는 같거나 비슷한 말이 반복되는 사실이 많다. 이러한 구절을 찾아보자.
- (2) 민요는 지역적 특성이 강하다. 지역적 특성이 드러나는 구절을 찾아보자.
- (3) 이 시는 일제 강점기에 창작된 작품으로 민요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이 시의 문학사적 의의를 평가해 보자.

작품 너머로

5 다음은 ‘접동새’를 소재로 한 고려 시대의 작품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고려 시대 인종의 총애를 받던 정서는, 외종이 즉위하면서 신하들에게 밀리게 된다. 그는 조만간 다시 부르짖는 외종의 약속을 받고 동래로 피신을 갔다. 그러나 그 약속을 잊었는지 임금으로부터 기별은 오지 않았고, 이에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아 ‘정과정’을 지었다고 한다.

내 님물 그리스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슥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츠르신들*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랴시리이다
넥시라도 님은 혼디 녀저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러시니잇가

- 이슥흐요이다 비스듬하다.
- 거츠르신들 거짓인 줄음.
- 殘月曉星(잔월효성) 새벽녘의 별과 달.
- 녀저라 지내고 싶어라.

過(과)도 허믈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몰헛 마리신더*
술웃븐더* 아으
니미 나를 험마 니즈시니잇가
아소 님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셔*
- 정서, ‘정과정(鄭瓜亭)’

- 벼기더시니 어기신 이가.
- 몰헛 마리신더 우리들의 말입니다.
- 술웃븐더 사라지고 싶어라.
- 괴오쇼셔 사랑해 주소서.

- (1) 시적 화자가 ‘임’에 대해 지니는 두 가지의 모순된 정서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2) 두 작품에 나타난 ‘접동새’의 이미지를 생각해 보자.

‘접동새’	동생들을 걱정하며 우는 자애로운 누나의 이미지
‘정과정’	

이 작품은

설화의 내용을 민요조의 가락에 실어 시로 변용한 작품이다. 1연은 접동새의 울음소리를 제시한 부분이고, 2·3·5연은 설화의 내용을 시로 변주한 부분이며, 4연은 화자의 주관적 정서를 드러낸 부분이다. 억울하게 죽은 누나의 넋은 ‘우리 누나’라는 말에서 환기되는 공동체 의식을 불러일으킬 만큼 보편적인 공감대를 자극한다. 누나는 어머니와 함께 모성의 대명사로서 행복감의 근원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누나의 억울한 죽음은 모성의 심각한 훼손과 그로 인한 존재의 위기감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우리의 시 문학사에서 자주 나타나는 한의 정서를 이어받은 작품이다.

작가에 대하여

김소월(金素月, 1902~1934)

시인. 본명은 정식(廷湜). 오산 학교 중학부를 다니던 시절, 교사로 있던 김억을 만나 시를 쓰기 시작했다. 1920년 “창조”를 통해 등단했으며, 이별과 그리움에서 비롯되는 애상과 정한의 정서를 민요적인 리듬에 실어 내는 데 노력을 기울였다. ‘금잔디’, ‘엄마야 누나야’, ‘진달래꽃’ 등의 작품이 있다.



알짜 지식

● 민요시(民謠詩)

전통 사회에서 민중들에 의해 향유되었던 민요의 자질을 수용하면서 창작된 근대의 시를 가리킨다. 민요와 공통적인 자질을 가지면서도 개인 창작시라는 점에서 민요와는 구별된다. 민족 단위의 피지배 계층에 의해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 혹은 민중 의식을 지닌 개인에 의해 창작되면서 운율 등 형식적인 측면에서 민요와 공통적인 자질을 공유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1920년대에 주요한, 김억, 김소월, 홍사용, 김동환 등이 많이 창작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민중적 정서를 담고 있으며, 형식적으로는 민요에서 자주 발견되는 반복의 형식이 주로 활용되었다.

● 모티프(motif)

본래 예술에서 표현·창작의 동기가 되는 작가의 내부 충동을 가리키지만, 문학에서는 특별히 이야기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일컫는다. 그래서 흔히 ‘화소(話素)’라고도 한다. 하나의 이야기에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다. 모티프는 신화시대부터 오랜 생명력을 지닌 채 문학사에 등장한다. ‘단군 신화’에는 여성 수난 모티프나 동굴 모티프가 포함되어 있는데, 두 모티프 모두 후대 문학에 빈번히 재등장한다. 설화와 같은 서사 문학뿐만 아니라 순간적인 정서를 간결하게 표현한 서정시에서도 원형 심상을 매개로 하여 모티프가 등장할 수 있다. 거울이나 물은 시에서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인 모티프이다.

단원 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각설. 이때 박 씨가 일가친척을 다 모아 피화당에 피난하는지라.

호장 용골대(龍骨大)가 제 아우 율대(律大)로 하여금

“장안을 지키며 물색(物色)을 수습(收拾)하라.”

하고, 군사를 몰아 남한산성을 에워싸는지라.

용율대가 장안에 웅거(雄據)하여 물색을 추심(推尋)하니 장안이 물 끓듯 하며, 살기를 도망하여 죽는 사람이 무수한지라. 피화당에 피란하는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도망코자 하거늘, 박 씨가

“이제 장안 사면을 도적이 다 지키었고, 피란코자 한들 어디로 가겠소. 이곳에 있으면 피화(避禍)할 도리가 있으리니 염려들 마시오.”

하더라.

이때 율대가 100여 기(騎)를 거느려 우상의 집을 범하여 인물을 수탐(搜探)하더니, 내외가 적적하여 빈집 같거늘, 차차 수탐하여 후원에 들어가 살펴보니, 온갖 기이한 수목이 좌우에 늘어서 무성하였는지라. 율대가 꺾이히 여겨 자세히 살펴보니, 나무마다 용과 범이 수미를 응하며, 가지마다 뱀과 짐승이 되어 천지풍운(天地風雲)을 이루며, 살기(殺氣) 가득하여 은은한 고각(鼓角) 소리 들리는데, 그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피란하였더라. 율대가 의기양양하여 피화당을 검척하려 달려드니, 불의에 하늘이 어두워지며 흑운(黑雲)이 자욱하고 뇌성벽력(雷聲霹靂)이 진동하며, 좌우 전후에 늘어섰던 나무들이 일시에 변하여 무수한 갑옷 입은 군사가 되어 점점 에워싸고, 가지와 잎이 변하여 기치장검(旗幟槍劍)이 되어 상설(霜雪) 같으며, 함성(喊聲)소리가 천지진동하는지라. 율대가 대경하여 급히 내달아 도망치려 한즉, 벌써 칼 같은 바위가 높기는 천여 장이나 되어 앞을 가려 겹겹이 둘러싸이니, 전혀 갈 길이 없는지라.

율대 혼백(魂魄)을 잃어 어찌할 줄 모르더니, 방 안에서 한 여인이 칼을 들고 나오면서 꾸짖기를,

“너는 어떠한 도적인데, 이러한 중지(重地)에 들어와 죽기를 재촉하느냐?”

율대가 합장 배례(合掌拜禮)하며,

“귀댁 부인이 뉘신지 알지 못하거니와, 덕분에 살려 주옵소서.”

대답하기를,

“나는 박 부인의 시비거니와, 우리 아씨 명월 부인(明月夫人)이 조화(造化)를 베풀어 너를 기다린 지 오랜지라. 너는 극악(極惡)한 도적이야. 빨리 목을 늘리어 내 칼을 받아라.”

율대가 그 말을 듣고 대로하여, 칼을 들어 계화를 치려 하되, 경각에 칼 든 팔이 힘이 없어 놀릴 길이 없는지라. 하는 수 없어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대장부가 세상에 나서 만리타국(萬里他國)에 대공(大功)을 마라고 왔다가, 오늘날 조그마한 계집의 손에 죽을 줄 어찌 알았으리오.”

계화가 웃으며,

“불쌍코 가련하다. 세상에 장부라 위명(僞名)하고 나 같은 여자를 당치 못하느냐. 네 왕놈이 천의(天意)를 모르고 예의지국(禮儀之國)을 침범코자 하여 너 같은 구상유취(舊相遺취)를 보냈거니와, 오늘은 네 명이 내 손에 달렸으니, 바빠 목을 늘리어 내 칼을 받아라.”

하니 율대 양친 탄왈,

“천수(天數)로다.”

하고 자결(自決)하더라.

계화가 율대의 머리를 베어 문밖에 다니, 이윽고 풍운이 그치며 천지가 명랑해지더라.

- 작자 미상, ‘박씨전’에서

- **웅거** 일정한 지역을 차지하고 굳게 막아 지킴.
 - **추심** 찾아내어 가지거나 받아 냄.
 - **기** 말을 탄 사람을 세는 단위.
 - **수탐** 무엇을 알아내거나 찾기 위하여 조사하거나 엿봄.
 - **기치창검** 예전에, 군대에서 쓰던 깃발, 창, 칼 따위를 통틀어 이르던 말.
 - **구상유취** 입에서 아직 젖네가 난다는 뜻으로, 말이나 행동이 유치함을 이르는 말.
-

내용의 추리

1 이 작품의 내용을 미루어 짐작한 것으로 맞는 것은 ○표, 틀린 것은 ×표를 해 보자.

- (1) 박씨 부인의 집은 전란으로 피해를 보지 않았다. ()
- (2) 용율대는 박씨 부인의 명성을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 ()
- (3) 계화는 박씨 부인이 잠깐 변신한 인물이다. ()
- (4) 박씨 부인 및 계화의 행동은 일기의 변화와 조응한다. ()

구성 요소의 기능 파악

2 이 작품에 나타난 환상적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사회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주인공의 비범한 능력을 보여 준다.
- ②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두 인물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다.
- ③ 시·공간적 배경이 현실 세계가 아니라 초현실적 세계임을 보여 준다.
- ④ 역사적 피해를 정신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집단적 심리가 투영되어 있다.
- ⑤ 인간의 보편적 소망이 현실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움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 3 이 작품에서 당대의 보편적 가치관이 드러나 있는 대화를 찾아보고, 오늘날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바탕으로 그 가치관을 평가해 보자.

- 4 이 소설에는 여성 영웅이 등장한다. 조선 시대라는 시간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한 작품의 의미를 추리해 보자.

- 5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공동체의 꿈이 담긴 영화를 한 편 찾아보고, 약 100년 뒤의 우리 후손들이 이 영화를 감상할 때 필요한 사회·문화적 맥락을 정리해 보자.

영화 제목	서 필요한 사회·문화적 맥락

내용 정리

1 구성 요소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 문학의 내용이란 작품에 담겨 있는 가치 있는 경험 혹은 주제를 가리킨다. 내용을 이해할 때에는 시적 화자나 주인공이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가, 어떤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는가 등에 관심을 기울인다.
- 문학의 형식에는 갈래, 문학적 기법이나 장치, 구조 등이 포함된다.
- 문학적 표현이란 구체적인 형상화를 위해 동원되는 모든 표현을 가리키며, 특정한 효과를 위해 일상적 표현을 세련되게 다듬은 것이다.
- 문학의 내용, 형식, 표현은 상호 유기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2 맥락의 이해를 통한 작품 수용

- 사회·문화적 맥락이란 특정한 시대, 특정한 사회 내부의 질서나 관습, 제도, 사고방식, 생활 방식을 아울러 가리킨다.
- 문학 작품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맥락을 고려하여 읽으면 훨씬 더 정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 문학사적 맥락이란 선행하거나 후대에 나오는 다른 문학 작품이나 갈래, 동시대의 다른 작품이나 갈래의 영향 관계를 일컫는다. 문학사적 맥락은 작품을 생산하고 향유할 때 참조되는 기본적인 준거이다.

자기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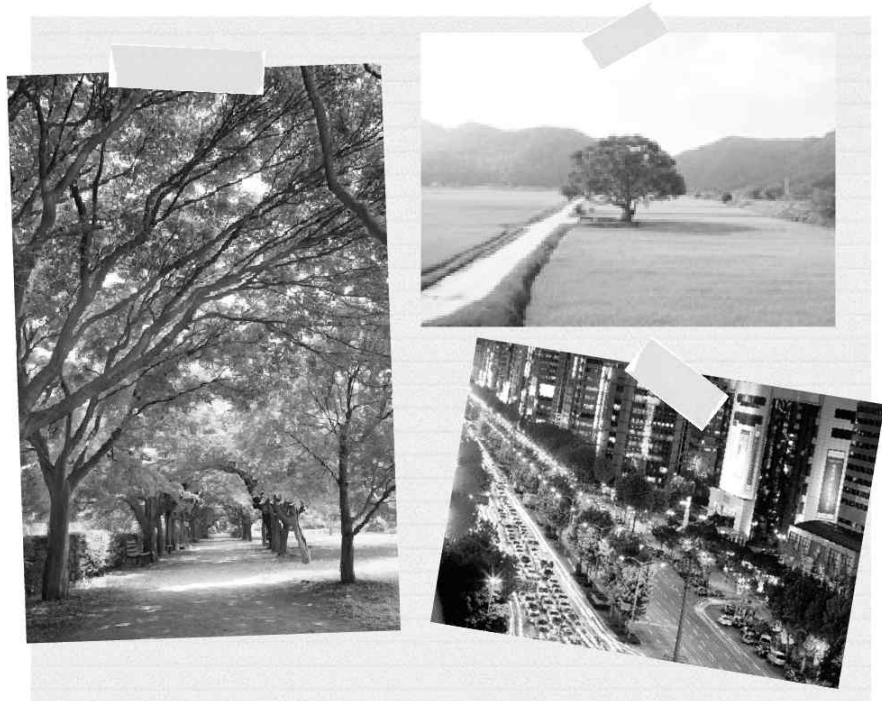
점검 항목	○	◎	⊙
문학에 담긴 가치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가?			
형식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언어적 표현이 문학의 내용 및 형식과 맺고 있는 연관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작품의 주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문학사적 영향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가?			
작품과 맥락의 상호 유기적 관계를 바탕으로 작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가?			



2

문학 작품의 내면화

- 다음 사진을 보면서 대상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 ① 사진을 보면서, ‘나무’의 가치를 생각나는 대로 적어 보자.
- ②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문학 작품 하나를 선택하여, 그 작품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우리는 한 그루의 나무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한 경험을 통해 나무의 다양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문학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문학 작품을 읽어 왔으며, 그 과정에서 문학의 다양한 가치들을 경험해 왔다.

문학의 가치는 크게 인식적·미적·윤리적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는 문학을 통해 인간과 세계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기도 하고, 심미적 판단 능력을 고양하거나 윤리 의식을 심화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러한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투영하여 가치관을 정립하고, 세계관을 넓히며,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

이 단원은 ‘인식적 가치의 내면화’, ‘미적 가치의 내면화’, 그리고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의 세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식적 가치의 내면화’에서는 삶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하는 활동을 하고, ‘미적 가치의 내면화’에서는 심미 의식을 고양하는 활동을 하며,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에서는 문학을 통해 윤리 의식을 심화하는 활동을 한다.

이 단원에서는

- 문학 작품에서 인식적·미적·윤리적 가치를 탐색한다.
- 작품에서 탐색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한다.
- 비판적으로 이해한 가치가 자신의 삶에 대해 갖는 의미를 판단한다.



(1) 인식적 가치의 내면화

우리는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힘으로써 삶의 불안과 고난을 극복하고, 이전보다 더욱 윤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가령 주변에 대한 아이들의 호기심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책 읽기에 몰두하고 학문에 전념하는 인간의 행위는 우리 삶에서 차지하는 인식적 가치의 중요성을 말해 준다.

우리가 문학 작품을 읽는 이유 역시 인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문학 작품에서는 어떠한 대상을 설명하거나 분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언어로 형상화하여 보여 준다. 따라서 문학을 통해 얻게 되는 인식은 구체적이며 총체적이다.

문학 작품을 통한 인식의 확대는 일상의 삶과 세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우리의 삶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깨달음을 제공하기도 한다. 마그리트의 ‘인간의 조건’은 창밖의 실재와 화폭 속에 그려진 그림이 교묘하게 연결되어 하나의 풍경을 이룬다. 우리는 이 그림을 통해 우리가 보는 세계가 실재 세계일 수도 있고, 의식 속의 세계를 표현한 것일 수도 있음을 인식하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문학 작품도 우리가 인간과 세계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해 준다.

이처럼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삶과 세계에 대해 인식을 새롭게 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문학 작품의 인식적 가치를 발견하는 데에서 멈추지 말고 그러한 가치를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와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새롭게 깨우친 삶과 세계에 대한 인식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글은 소설가 최인호가 1930년대의 작가 김유정의 편지를 자신의 삶에 연관 지어 느낀 감상을 담은 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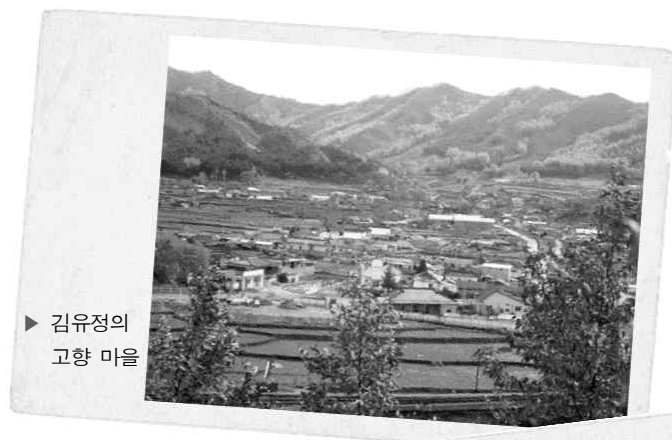
-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얻은 깨달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 글쓴이의 깨달음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하며 읽어 보자.

김유정(金裕貞). 1908년에 태어나 겨우 스물아홉 살의 나이인 1937년에 요절한 소설가, 1935년에 단편 소설 ‘소낙비’가 조선일보에 당선되어 작가가 되었으나 작품 활동 기간은 겨우 3년 남짓에 불과했고, 30여 편의 소설을 발표하고 폐결핵으로 죽었던 불행한 소설가.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평가할지 모르지만 나는 김유정을 천재라고 부른다. 문학청년 시절 나는 김유정의 ‘봄·봄’이라든가 ‘동백꽃’을 읽으며 전율했었다. 그의 소설은 내가 추구하는 도시적인 감수성과 도회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굳이 분류하자면 그의 소설은 ‘농촌 소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문장은 멋을 부리려는 작위성이 전혀 없었고, 천연스러운 익살과 천진이 흘러넘치고 있었다.

원래 김유정은 숙종의 외할아버지이자 국구(國舅, 임금의 장인)였던 김우명(金佑明)의 후예로, 그의 집안은 명문가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춘천에서 수천 석을 하던 명가였으나 어릴 때 조실부모한 이후로 김유정의 집은 몰락했다. 지독한 말더듬이로 열등감이 심했던 김유정은 연희 전문학교에 입학했으나 배울 것이 없다고 자퇴했고, 당대의 명창 박록주의 공연을 보고 짝사랑을 시작한다. 수십 차례 연애편지를 보냈으나 끝내 거절당한 김유정은 고향에 낙향하여 방랑 생활을 하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김유정의 일화보다 더 내 가슴을 아프게 했던 것은 김유정이 죽기 열흘 전에 쓴 유서와 같은 편지였다. 평생지기였던 작가 안희남¹에게 쓴 이 편지를 문학청년 시절 나는 습작 노트 첫머리에 친필로 베껴 놓고 다녔다.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평평 울었다.

아아, 그때가 1965~1966년, 내 나이 갓 스무 살 때였지. 나는 그때 엄마한테 용돈을 타서 ‘해바라기’ 담배를 샀었다. 한 번에 다 피기 아까워 담배를 사면 가위로 한 개비를 반으로 잘라 피우곤 했어. 하루에 한 갑을 피웠다. 필터도 없는 담배를 피우며 밤낮없이 글만 썼어. 가을이면 군대에 가야 하는 입영 날짜가 잡혀 있었지. 좋아하는 여인이 있었지만 박록주와 같은 그 여인은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았고, 김유정처럼 말을 더듬지는 않았지만 지독한 열등의식에 사로잡힌 나는 공황 장애를 앓고 있었을 거야. 나는 그때 김장을 담가 배추 포기를 빈 독에 저장하듯이 매일매일 소설을 쓰고 있었다. 나의 유일한 위로는 김유정의 ‘마지막 편지’를 읽는 것이었지. 그 편지를 읽을 때마다 나는 엉엉 울었고, 글을 써야 한다는 열정을 느끼곤 했어. 그 편지가 있을까. 그 편지가 김유정의 생가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

“이봐, 저기로 가자. 김유정의 생가로 가자.”



▶ 김유정의
고향 마을



◀ 김유정
문학촌

이정표를 본 순간 나는 함 군에게 소리치며 말했다.

김유정의 생가 앞에서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아, 한 작가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고 있구나. 지독한 말더듬이에 폐병쟁이. 살아서는 ‘노트르담의 꿈추’처럼 멀리받았으나 죽어서는 고향에서 저렇게 부활하고 있구나.

생가를 돌아보며 젊은 날의 노트에 새겨 왔던 그 편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했다. 그러나 그곳에 그 편지는, 있. 었. 다.

통웰로²의 시처럼 젊은 날 허공으로 쏜 화살이 전시관 한구석에 부러져 꽂혀 있었다. 나는 소리를 내어 그 편지를 읽어 보았다.

필승아, 나는 날로 몸이 꺼진다.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기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밤에는 불면증으로 하여 괴로운 시간을 원망하고 누워 있다. 그리고 맹열(猛熱)이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딱한 일이다.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달리 도리를 차리지 않으면 이 몸을 다시는 일으키기 어렵겠다.

필승아, 나는 참말로 일어나고 싶다. 지금 나는 병마와 최후의 담판이다. 흥패가 이 고비에 달려 있음을 내가 잘 안다. 나에게서는 돈이 시급히 필요하다. 그 돈이 없는 것이다.

필승아, 내가 돈 백 원을 만들어 볼 작정이다. 동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가 좀 조력하여 주기 바란다. 또다시 탐정 소설을 번역해 보고 싶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이다. 허니, 네가 보던 중 아주 대중화되고 흥미 있는 걸로 두어 권 보내 주기 바란다. 그러면 내 50일 이내로 역하여 너의 손으로 가게 하여 주마. 하거든 네가 즉력 주선하여 돈으로 바꿔서 보내 다오.

필승아, 이것이 무리임을 잘 안다. 무리를 하면 병을 더친다. 그러나 그 병을 위하여 무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몸이다. 그 돈이 되면 우선 닭을 한 30마리 고아 먹겠다. 그리고 땅꾼을 들여 살모사, 구렁이를 10여 마리 먹어 보겠다. 그래야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궁둥이가 돈을 잡아먹는다. 돈, 돈, 슬픈 일이다.

필승아, 나는 지금 막다른 골목에 맞닥뜨렸다. 나로 하여금 너의 팔에 의지하여 광명을 찾게 하여 다오. 나는 요즘 가끔 울고 누워 있다. 모두가 답답한 사정이다. 반가운 소식 전해 다오. 기다리마.

3월 18일 김유정으로부터

눈물을 글썽이며 김유정의 생가를 나오자 함 군이 말하였다.

“선생님, 어디로 갈까요.”

나는 대답했다.

“오십 년 전의 과거로 가자.”

“예?”

“갈 수만 있다면 타임머신을 타고 옛날 그 시절로 돌아가자.”

돌아오는 길에는 억수처럼 장맛비가 내렸다. 무서운 기세로 흘러내리는 장맛비를 밀어내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윈도 브러시를 보며 나는 문득 릴케³의 시를 떠올렸다.

릴케는 ‘그대는 불쌍한 가난뱅이’라는 시에서 자신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

……그대는 불쌍하다. 도시의 지붕 위에 복되이 내리는 봄비와도 같이.

영원히 세계도 없는 독방의 죄수가 품는 그러한 소망과도 같이.

그리고 돌아눕고선 행복해지는 흡사 병자와 같이.

그대는 뱃속에 든 태아를 숨기고 싶어서 자기 임신의 첫 숨결을 질식시키도록 허리를 졸라매는 소녀처럼 불쌍하다.

그대는 불쌍한 가난뱅이.

그대는 놓일 곳 없는 돌맹이……

아아, 나는 돌아가고 싶다.

갈 수만 있다면 가난이 릴케의 시처럼 위대한 장미꽃이 되는 불쌍한 가난뱅이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 그 막다른 골목으로 돌아가서 김유정의 팔에 의지하며 광명을 찾고 싶다. 그리고 참말로 다시 일. 어. 나. 고. 싶. 다.

● 어휘 풀이

1. **안희남** 본명은 필승. '금수회의록'의 작가 안국선의 아들로, 조선 문학가 동맹에서 활동한 소설가. 작품집으로 “안희남 단편집”, “탁류를 헤치고”, “분” 등이 있다. 김유정과는 휘문 고보 동창이다.
2. **통펠로** 미국의 시인. 역사, 전승 이야기가 담긴 시를 많이 씀.
3. **릴케** 보헤미아 태생의 독일 시인. 인상주의와 신비주의를 혼합한 근대 언어 예술의 거장으로, 인간 존재를 추구하고 종교성이 강한 독자적 경지를 개척함.

● 읽기 중 활동

- ❓ 글쓴이가 김유정을 ‘천재’라고 평가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1 이 글에는 글쓴이의 서구 문학 체험과 관련된 인물이나 작품이 자주 등장한다. 다음에 대해 조사해 보고,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 노트르담의 꼽추:
- 롱펠로:
- 릴케:

2 이 글에서 문장 부호를 다음과 같이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지 추리해 보자.

- 그러나 그곳에 그 편지는, 있. 었. 다.
- 그리고 참말로 다시 일. 어. 나. 고. 싶. 다.

3 글쓴이가 김유정의 삶과 문학을 통해 얻은 인식적 가치와 이 글이 주는 삶에 대한 인식적 가치가 무엇인지 말해 보자.

맥락 속으로

4 다음은 이 글의 배경과 관련한 신문 기사 중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도움말** 글쓴이는 같은 문인으로서 김유정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일반 독자들에게는 어떠한 깨달음을 줄 지 생각해 본다.

소설가 최인호의 연재소설 ‘가족’이 월간 “샘터”에 처음 실린 것은 1975년 9월호였다. 당시 샘터사 대표였던 김재순 씨는 “샘터가 없어지거나 당신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연재하시오.”라고 제의했고, 최 씨는 “삶이 다하는 날까지 쓰겠다.”라고 답했다 한다. 작가 스스로를 철부지 남편이자 아빠로 그리며 시작한 ‘가족’은 보통 사람들의 가정과 이웃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일기 쓰듯 진솔하게 묘사해 잔잔한 감동을 주었다. 이 소설은 2009년 10월호로 연재를 마감하기까지 무려 34년여 동안 402회가 진행됐다.

최인호 작가의 마감 글은 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느닷없이 찾아온 침샘암으로 불가피하게 연재를 마치게 됐기 때문이다. 그는 소설가 김유정이 죽기 열흘 전에 쓴 편지를 인용하며 “평평 울었다.”라고 술회했다.

- (1) 김유정 생가를 방문해 다시 읽은 그의 편지에 대해 글쓰기가 느낀 감동은 젊은 날의 그것과 어떻게 다를지 이야기해 보자.

● **도움말** 이 글은 김유정에 대한 글이자 글쓰기 자신에 대한 글로 읽을 수 있다.

- (2) 이 글을 읽은 후에 김유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졌고, 기사를 접한 후에 글에 대한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 (3) 글쓰기가 김유정의 편지를 읽고 연민과 공감으로 울었던 것처럼, 문학을 접하면서 얻은 인식을 자신의 삶에 투사함으로써 갖게 되는 가치는 무엇일지 발표해 보자.

작품 너머로

- 5 글쓰기는 “불쌍한 가난뱅이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였다. 앞으로 다가올 젊은 시절을 어떻게 살지 설계해 본 후, ‘나의 스무 살 시절’이란 제목으로 짧은 글을 지어 보자.

나의 스무 살 시절

이 작품은

소설가 최인호가 우리나라 문학사상 가장 오래 연재했던 소설 '가족'의 마지막 원고이다. 개인적 체험을 서술한 수필적 성격이 강해 그의 수필집에 실려 있기도 하다. 그는 이 연재소설을 가리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미완성 교향곡'과 같은 작품"이라고 말한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나 구인회 동인으로 활약하다 만 29세에 요절한 소설가 김유정의 편지를 인용하는데, 그 속에는 병마에 시달리던 김유정이 평소 절친했던 소설가 안희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자신의 희망을 토로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작가는 선배 소설가의 절절한 사연을 읽은 뒤,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소박한 희망을 읊조리는 행위를 통해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보여 준다.

작가에 대하여

최인호(崔仁浩, 1945~)

소설가. 시나리오 작가. 1963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벽 구멍으로'가 입선되어 등단하였다. 참신한 감수성과 경쾌한 문체로 산업화와 도시화의 문제를 파헤치는 작품을 창작하였으



며,本格 소설과 대중 소설 분야에서 두루 성공하였다. 대표작으로 소설 '별들의 고향', '겨울나그네', '상도'와 시나리오 '바보들의 행진'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연재소설(連載小說)

신문이나 잡지 등의 언론 매체에 잇달아 발표된 소설을 말하는데, 대체로 독자들의 흥미를 끌려는 대중적 성격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개화기에 처음으로 근대적인 신문이 등장한 이후 곧 연재소설이 등장하였으며, 저널리즘이 급격하게 성장한 일제 강점기에는 신문뿐만 아니라 잡지에도 많이 실렸다. 오늘날에는 인터넷 등의 전자 매체를 통해서도 발표되고 있다. 대표적인 연재소설로는 이인직의 '혈의 누', 이광수의 '무정', 염상섭의 '삼대', 황석영의 '장길산', 박경리의 '토지', 조정래의 '태백산맥' 등이 있다.

● 문학 기행(文學紀行)

작가의 고향이나 자라난 곳, 작품의 공간적 배경이 되었던 곳을 찾아가는 여행이나 그 과정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한 기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전자는 작가가 작품을 창작하는 데 바탕이 되었거나 영향을 준 요소들을 탐구하기 위해, 후자는 작품을 보다 수준 높게 향유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가 많다. 문학 기행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때로는 새로운 창작의 계기를 마련해 주기도 한다.



이 작품은 조선 후기 사회의 현실 문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문 소설이다.

- 주인공의 행적을 통해 드러나는 현실의 문제를 파악하며 읽어 보자.
- 새로 인식하게 된 내용이나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부분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허생은 묵적굴 [墨積洞] 에 살았다. 곤장 남산(南山) 밑에 닿으면, 우물 위에 오래된 은행나무가 서 있고, 은행나무를 향하여 사립문이 열렸는데, 두어 칸 초가는 비바람을 막지 못할 정도였다. 그러나 허생은 글 읽기만 좋아하고, 그의 처가 남의 바느질품을 팔아서 입에 풀칠을 했다.

하루는 그 처가 몹시 배가 고파서 울음 섞인 소리로 말했다.

“당신은 평생 과거(科擧)를 보지 않으니, 글을 읽어 무엇합니까?”

허생은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아직 독서를 익숙히 하지 못하였소.”

“그럼 장인바치¹ 일이라도 못 하시나요?”

“장인바치 일은 본래 배우지 않은 걸 어떻게 하겠소?”

“그럼 장사는 못 하시나요?”

“장사는 밑천이 없는 걸 어떻게 하겠소?”

처는 왈각 성을 내며 소리쳤다.

“밤낮으로 글을 읽더니 기껏 ‘어떻게 하겠소?’ 소리만 배웠단 말쑤이요? 장인바치 일도 못 한다, 장사도 못 한다면, 도둑질이라도 못 하시나요?”

허생은 읽던 책을 덮어 놓고 일어나면서,

“아깝다. 내가 당초 글 읽기로 십 년을 기약했는데, 인제 칠 년인걸…….”

하고 획 문밖으로 나가 버렸다.

허생은 거리에 서로 알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로 운종가²로 나가서 시중의 사람을 붙들고 물었다.

“누가 서울 성중에서 제일 부자요?”

변 씨(卞氏)를 말해 주는 이가 있어서, 허생이 곧 변 씨의 집을 찾아갔다. 허생은 변 씨를 대하여 길게 읊³하고 말했다.

“내가 집이 가난해서 무얼 좀 해 보려고 하니, 만 냥(兩)을 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변 씨는

“그러시오.”

하고 당장 만 냥을 내주었다. 허생은 감사하다는 인사도 없이 가 버렸다. 변 씨 집의 자제와

손들이 허생을 보니 거지였다. 싹터의 술이 빠져 너털너털하고, 갓신⁴의 뒷굽이 자빠졌으며, 쭈그러진 갓에 허름한 도포를 걸치고, 코에서 맑은 콧물이 흘렀다. 허생이 나가자, 모두들 어리둥절해서 물었다.

“저이를 아시나요?”

“모르지.”

“아니, 하루아침에, 평생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만 냥을 그냥 내던져 버리고 성명도 묻지 않으시다니, 대체 무슨 영문인가요?”

변 씨가 말하는 것이었다.

“이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대체로 남에게 무엇을 빌리러 오는 사람은 으레 자기 뜻을 대단히 선전하고, 신용을 자랑하면서도 비굴한 빛이 얼굴에 나타나고, 말을 중언부언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저 객은 형색은 허술하지만, 말이 간단하고, 눈을 오만하게 뜨며, 얼굴에 부끄러운 기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해 보겠다는 일이 작은 일이 아닐 것인데, 나 또한 그를 시험해 보려는 것이다. 안 주면 모르되, 이왕 만 냥을 주는 바에 성명은 물어 무엇을 하겠느냐?”

허생은 만 냥을 입수하자, 다시 자기 집에 들르지도 않고 바로 안성(安城)으로 내려갔다. 안성은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이 마주치는 곳이고, 삼남(三南)의 길목이기 때문이다. 거기서 대추, 밤, 감, 배며 석류, 귤, 유자 등속의 과일을 모조리 두 배의 값으로 사들였다. 허생이 과일을 몽땅 썰었기 때문에 온 나라가 잔치나 제사를 못 지낼 형편에 이르렀다. 얼마 안 가서, 허생에게 두 배의 값으로 과일을 팔았던 상인들이 도리어 열 배의 값을 주고 사 가게 되었다. 허생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만 냥으로 온갖 과일의 값을 좌우했으니, 우리나라의 형편을 알 만하구나.”

그는 다시 칼, 호미, 포목 따위를 가지고 제주도(濟州島)에 건너가서 말총을 죄다 사들이면서 말했다.

“몇 해 지나면 나라 안의 사람들이 머리를 싸매지 못할 것이다.”

허생이 이렇게 말하고 얼마 안 가서 과연 망건값이 열 배로 뛰어올랐다.

허생은 늙은 사공을 만나 말을 물었다.

“바다 밖에 혹시 사람이 살 만한 빈 섬이 없던가?”

“있습지요. 언젠가 풍파를 만나 서쪽으로 줄곧 사흘 동안을 흘러가서 어떤 빈 섬에 닿았습지요. 아마 사문과 장기의 중간쯤 될 겁니다. 꽃과 나무는 제멋대로 무성하여 과일 열매가 절로 익어 있고, 짐승들이 떼 지어 놀며, 물고기들이 사람을 보고도 놀라지 않습니다.”

그는 대단히 기뻐하며,

“자네가 만약 나를 그곳에 데려다 준다면 함께 부귀를 누릴 걸세.”

라고 말하니, 사공이 그러기로 승낙을 했다.

드디어 바람을 타고 동남쪽으로 가서 그 섬에 이르렀다. 허생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방을 둘러보고 실망하여 말했다.

“땅이 천 리도 못 되니 무엇을 해 보겠는가? 토지가 비옥하고 물이 좋으니 단지 부가옹(富家翁)⁵은 될 수 있겠구나.”

“텅 빈 섬에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구와 더불어 사신단 말씀이요?”

사공의 말이었다.

“덕(德)이 있으면 사람이 절로 모인다네. 덕이 없을까 두렵지, 사람이 없는 것이야 근심할 것이 있겠나?”

이때, 변산(邊山)에 수천의 군도(群盜)⁶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각 지방에서 군사를 징발하여 수색을 벌였으나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군도들도 감히 나가 활동을 못 해서 배고프고 곤란한 판이었다. 허생이 군도의 산채를 찾아가서 우두머리를 달래었다.

“천 명이 천 냥을 빼앗아 와서 나누면 하나 앞에 얼마씩 돌아가지요?”

“일 인당 한 냥이지요.”

“모두 아내가 있소?”

“없소.”

“논밭은 있소?”

군도들이 어이없어 웃었다.

“땅이 있고 처자식이 있는 놈이 무엇 때문에 괴롭게 도둑이 된단 말ियो?”

“정말 그렇다면, 왜 아내를 얻고, 집을 짓고, 소를 사서 논밭을 갈고 지내려 하지 않는가? 그럼 도둑놈 소리를 안 듣고 살면서, 집에는 부부의 낙(樂)이 있을 것이요, 돌아다녀도 잡힐까 걱정을 않고 길이 의식의 요족(饒足)⁷을 누릴 텐데…….”

“아니, 왜 바라지 않겠소? 다만 돈이 없어 못 할 뿐이지요.”

허생은 웃으며 말했다.

“도둑질을 하면서 어찌 돈을 걱정할까? 내가 능히 당신들을 위해서 마련할 수 있소. 내일 바다에 나와 보오. 붉은 깃발을 단 것이 모두 돈을 실은 배이니, 마음대로 가져가구려.”

허생이 군도와 언약하고 내려가자, 군도들은 모두 그를 미친놈이라고 비웃었다.

이튿날, 군도들이 바닷가에 나가 보았더니, 과연 허생이 삼십만 냥의 돈을 싣고 온 것이었다. 모두들 대경해서 허생 앞에 줄지어 절했다.

“오직 장군의 명령을 따르겠소이다.”

“너희들, 힘껏 짊어지고 가거라.”

이에, 군도들이 다투어 돈을 짊어졌으나, 한 사람이 백 냥 이상을 지지 못했다.

“너희들, 힘이 한껏 백 냥도 못 지면서 무슨 도둑질을 하겠느냐? 인제 너희들이 양민이 되려고 해도, 이름이 도둑의 장부에 올랐으니, 갈 곳이 없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을 기다릴 것이니, 한 사람이 백 냥씩 가지고 가서 여자 하나, 소 한 필을 거느리고 오너라.”

허생의 말에 군도들은 모두 좋다고 흩어져 갔다.

허생은 몸소 이천 명이 1년 먹을 양식을 준비하고 기다렸다. 군도들이 빠짐없이 모두 돌아왔다. 드디어 다들 배에 싣고 그 빈 섬으로 들어갔다. 허생이 도둑을 몽땅 쫓아 가서 나라 안에

시끄러운 일이 없었다.

그들은 나무를 베어 집을 짓고, 대 [竹] 를 엮어 울을 만들었다. 땅기운이 온전하기 때문에 백곡이 잘 자라서, 한 해나 세 해만큼 걸러 짓지 않아도 한 줄기에 아홉 이삭이 달렸다. 3년 동안의 양식을 비축해 두고, 나머지를 모두 배에 싣고 장기도(長崎島)로 가져가서 팔았다. 장기라는 곳은 삼십만여 호나 되는 일본(日本)의 속주⁸이다. 그 지방이 한참 흉년이 들어서 구휼하고 은 백만 냥을 얻게 되었다.

허생이 탄식하면서,

“이제 나의 조그만 시험이 끝났구나.”

하고, 이에 남녀 이천 명을 모아 놓고 말했다.

“내가 처음에 너희들과 이 섬에 들어올 때엔 먼저 부(富)하게 한 연후에 따로 문자를 만들고 의관(衣冠)을 새로 제정하려 하였더니라. 그런데 땅이 좁고 덕이 얕으니, 나는 이제 여기를 떠나려나. 다만, 아이들을 낳거들랑 오른손에 손가락을 쥐고, 하루라도 먼저 난 사람이 먼저 먹도록 양보케 하여라.”

다른 배들을 모조리 불사르면서,

“가지 않으면 오는 이도 없으려다.”

하고 돈 오십만 냥을 바다 가운데 던지며,

“바다가 마르면 주워 갈 사람이 있겠지. 백만 냥은 우리나라에도 용납할 곳이 없거늘, 하물며 이런 작은 섬에서랴!”

했다. 그리고 글을 아는 자들을 골라 모조리 함께 배에 태우면서,

“이 섬에 화근을 없애야 되지.”

했다.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 없는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고도 은이 십만 냥이 남았다.

“이건 변 씨에게 갚을 것이다.” <중략>

밤에 이완(李浣)⁹ 대장은 구종¹⁰들도 다 물리치고 변 씨만 데리고 걸어서 허생을 찾아갔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문밖에 서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보고 이 대장이 몸소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못 들은 체하고,

“당신 차고 온 술병이나 어서 이리 내놓으시오.”

했다. 그리하여 즐겁게 술을 들이켜는 것이었다. 변 씨는 이 대장을 밖에 오래 서 있게 하는 것이 민망해서 자주 말하였으나, 허생은 대꾸도 않다가 야심(夜深)해서 비로소 손을 부르게 하는 것이었다.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도 허생은 자리에서 일어서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 둘 곳을 몰라하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는 뜻을 설명하자, 허생은 손을 저으며 막았다.

“밤은 짧은데 말이 길어서 듣기에 지루하다. 너는 지금 무슨 벼슬에 있느냐?”

“대장이요.”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군. 내가 와룡 선생(臥龍先生)¹¹ 같은 이를 천거하겠

으니, 네가 임금께 아뢰어서 삼고초려(三顧草廬)¹²를 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고개를 숙이고 한참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제이(第二)의 계책을 듣고자 하옵니다.”

했다.

“나는 원래 ‘제이’라는 것은 모른다.”

하고 허생은 외면하다가, 이 대장의 간청에 못 이겨 말을 이었다.

“명(明)나라 장졸들이 조선은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서 정처 없이 떠돌고 있으니, 너는 조정에 청하여 종실(宗室)의 딸들을 내어 모두 그들에게 시집보내고, 훈척(勳戚)¹³ 권귀(權貴)¹⁴의 집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대장은 또 머리를 숙이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어렵습니다.”

했다.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하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느냐? 가장 쉬운 일이 있는데, 네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듣고자 하옵니다.”

“무릇, 천하에 대의(大義)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되고, 남의 나라를 치려면 먼저 첩자를 보내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 정부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는 친근해지지 못하는 판에,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섬기게 되어 저들이 우리를 가장 믿는 터이다. 진실로 당(唐)나라, 원(元)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 가서 벼슬까지 하도록 허용해 줄 것과 상인의 출입을 금하지 말도록 할 것을 간청하면, 저들도 반드시 자기네에게 친근해지려 함을 보고 기뻐 승낙할 것이다. 국중의 자제들을 가려 뽑아 머리를 깎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그중 선비는 가서 빈공과(賓貢科)¹⁵에 응시하고, 또 서민은 멀리 강남(江南)에 건너가서 장사를 하면서, 저 나라의 실정을 정탐하는 한편, 저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恥(國恥)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 구해도 사람을 얻지 못할 경우, 천하의 체후(諸侯)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천거한다면, 잘되면 대국(大國)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백구지국(伯舅之國)¹⁶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은 힘없이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禮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辨髮)을 하고 호복(胡服)을 입으려 하겠습니까?”

허생은 크게 꾸짖어 말했다.

“소위 사대부란 것들이 무엇이란 말이나? 오랑캐 땅에서 태어나 자칭 사대부라 뽐내다니 이런 어리석은 데가 있느냐?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그것이야말로 상인(喪人)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데 묶어 송곳같이 만드는 것은 남쪽 오랑캐의 습속에 지나지 못하는데, 대체

무엇을 가지고 예법이라 한단 말인가? 번오기(樊於期)¹⁷는 원수를 갚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았고, 무령왕(武靈王)¹⁸은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되놈의 옷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이제 대명(大明)을 위해 원수를 갚겠다 하면서, 그까짓 머리털 하나를 아끼고, 또 장차 말을 달리고 칼을 쓰고 창을 던지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할 판국에 넓은 소매의 옷을 고쳐 입지 않고 댜에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나? 내가 세 가지를 들어 말하였는데, 너는 한 가지도 행하지 못한다면서 그래도 신임받는 신하라 하겠는가? 신임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나? 너 같은 자는 칼로 목을 잘라야 할 것이다.”

하고 좌우를 돌아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 했다. 이 대장은 놀라서 일어나 급히 뒷문으로 뛰쳐나가 도망쳐서 돌아왔다.

이튿날, 다시 찾아가 보았더니, 짐이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 어휘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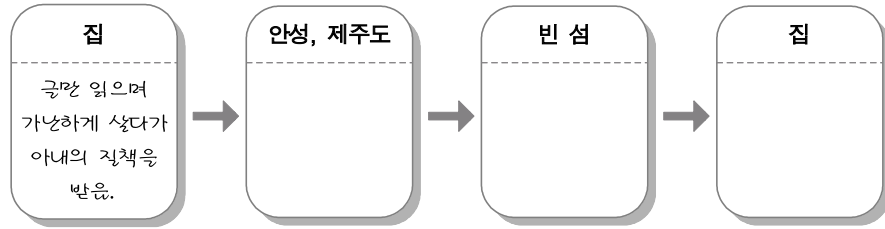
1. **장인바치** '장인(匠人)'의 낮춤말. '장인'은 손으로 물건을 만드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을 뜻함.
2. **윤종가** 조선 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네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
3. **읍** 인사하는 예(禮)의 하나. 두 손을 맞잡아 얼굴 앞으로 들어 올리고 허리를 앞으로 공손히 구부렸다가 몸을 펴면서 손을 내림.
4. **갓신** 가족으로 만든 우리 고유의 신을 통틀어 이르는 말.
5. **부가옹** 부잣집의 늙은 주인.
6. **군도** 때를 지어 도둑질을 하는 무리.
7. **요족** 살림이 넉넉함.
8. **속주** 어느 나라에 속하여 있는 주(州).
9. **이완** 조선 중기의 무장(武將). 호는 매죽헌(梅竹軒). 효종의 북벌 정책을 보필함.
10. **구종** 벼슬아치를 모시고 따라다니던 하인.
11. **와룡 선생** 중국 삼국 시대 촉한(蜀漢)의 정치가 겸 전략가인 '제갈량(諸葛亮)'을 일컫는 말.
12. **삼고초려** 인재를 맞아들이기 위하여 참을성 있게 노력함. 중국 삼국 시대 촉한의 유비가 제갈량을 맞아들이기 위해 그의 초가에 세 번이나 찾아갔다는 데서 유래함.
13. **훈척** 나라를 위하여 드러나게 세운 공로가 있는 임금의 친척.
14. **권귀** 지위가 높고 권세가 있음. 또는 그런 사람.
15. **빈공과** 중국 당나라 때에, 외국인에게 보게 하던 과거(科擧).
16. **백구지국** 중국 봉건 시대 제후국 중에서 규모가 큰 나라. '백구'는 천자(天子)가 성(姓)이 다른 제후를 존경하여 이르던 말임.
17. **번오기** 중국 진(秦)나라의 장수.
18. **무령왕** 중국 전국 시대 조(趙)나라의 왕.

● 읽기 중 활동

- ② 허생과 허생의 처가 서로 대립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 ② 처음 보는 이에게 큰돈을 빌려 달라고 말한 허생과 그 청에 선뜻 응한 변 씨의 인물됨에 대해 말해 보자.
- ② 작가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통치 이념을 추측해 보자.
- ② 허생이 섬을 나오면서 한 일을 정리하고, 그렇게 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② 이완이 허생의 제안들을 받아들이지 못한 까닭을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1 허생의 주요 행적을 공간별로 정리해 보자.



● **도움말** 이 작품 전반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적 배경을 바탕으로 생각해 본다.

2 허생이 다음과 같이 행동한 이유를 말해 보자.

- 도둑의 무리를 이끌고 빈 섬에 들어감.
- 이완 대장이 자신의 계책을 수용하지 못하자 종적을 감춤.

3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각각 당시의 어떤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허생	
변 씨	
이완	

맥락 속으로

4 다음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일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박지원은 청에 다녀와 “열하일기”를 저술하고 상공업의 진흥을 강조하면서 수레와 선박의 이용, 화폐 유통의 필요성 등을 주장하고,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였다. 농업에서도 영농 방법의 혁신, 상업적 농업의 장려, 수리 시설의 확충 등을 통하여 농업 생산력을 높이는 데 관심을 기울였다.

● **도움말** 역사 교과서의 내용 모두가 이 작품에 나타나 있지는 않다. 관련 있는 부분만을 연결하여 찾아 본다.

- (1) 이 글과 같은 작가의 생각이 드러난 부분을 이 작품에서 찾아 정리해 보자.
- (2) 이 글을 참고하여, 작가가 이 작품을 통해 비판하고자 한 사회 현실을 이야기해 보자.
- (3) 역사 교과서를 통한 인식과 문학 작품을 통한 인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5 다음 소설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은 고등학교 국어 수업 시간에 '허생전'을 능동적으로 수용해 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다룬 일기체 형식의 소설이다.

“허생이 졌다는 건, 누구한테 졌다는 말씀입니까? 책에는 허생이 그냥 어딘가로 가 버렸다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선생님께서는 투쟁을 강조하시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동철이의 말투에 화가 났고, 개가 말하고픈 내용이 짐작되어 가슴이 졸아들었다. 선생님은 동철이가 서 있는 걸 그대로 둔 채 천천히 말씀하셨다.

“허생이 졌다는 말은, 허생의 행동 전체를 놓고 독자인 우리가 평가하느라고 쓴 말입니다. 허생은 확고한 이상과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그걸 다 실현하지 못했고, 그러니 불만스런 현실과 그 현실을 지배하는 사람들에게 졌다고 본 겁니다. 도피했다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럴 만한 근거가 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달리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문학입니다. 자, 그럼 나름대로 해석해 봐요, 허생은 왜 어딘가로 가 버렸느냐?”

- 최시한, '허생전을 배우는 시간'에서

● **도움말** '동철이'가 '선생님'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한다.

(1) '동철이'가 '선생님'의 마지막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는지 추리해 보자.

(2) '동철이'와 선생님이 '허생전'을 각자 자기 방식으로 읽으려 했던 것처럼 '허생전'에서 인상 깊었던 장면 하나를 골라 자기 방식으로 해석해 보자.

● **도움말** 자신이 읽은 문학 작품 중에서 인식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경험을 떠올려 본다.

6 문학 작품을 통해 새로운 삶에 도달했던 구체적 경험과 그러한 경험이 자신의 삶에 끼친 영향을 발표해 보자.

이 작품은

기존의 양반과는 달리 시대를 앞서가는 주인공 허생을 통해 조선 후기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조명하고 있는 한문 단편 소설이다. 허생은 매점매석이라는 상행위를 통하여 당시 조선의 취약한 경제 구조를 비판하는 한편, 도둑과 빈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지배 계층의 무능력과 그로 인해 피폐해진 사회 현실을 그리고 있다. 또한 양반 계층을 대표하는 이완 대장과의 대담을 통해 양반의 허위의식을 통렬하게 풍자하고 있다. 이는 작가의 현실 개혁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백성들의 궁핍함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공업을 장려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회 개혁이 필요함을 허생이란 허구적 인물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이다. 이 소설은 작가가 지은 “열하일기(熱河日記)”의 ‘옥갑야화(玉匣夜話)’ 편에 수록되어 있다.

작가에 대하여

박지원(朴趾源, 1737~1805)

조선 후기의 실학자. 소설가. 청나라에 다녀온 후 “열하일기”를 저술하여 유려한 문장과 진보적 사상으로 이름을 떨쳤다. 당시 홍대용, 박제가 등과 함께 북학파(北學派)를 형성하여, 청나라의 발전된 문물을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이용후생(利用厚生)의 실학을 강조하였다. 전통적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문체를 구사하였으며, 양반 중심의 당시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한문 소설들을 창작하였다. 문집에 “연암집”이 있다.



알짜 지식

● 풍자(諷刺)

사회의 모순이나 인간의 악덕, 어리석음 따위를 비꼬아 드러내는 문예 기법이다. 주로 역설, 반어, 과장, 축소 등의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대상을 회화화함으로써 사회 또는 인간의 허점과 모순, 부조리 등을 폭로한다. 고전 작품으로는 신라 시대 설총의 ‘화왕계’, 고려 시대의 가전체 작품, 그리고 연암 박지원의 ‘호질’, ‘양반전’ 등에서 풍자를 찾아볼 수 있다. 근대 이후의 작품으로는 김유정의 ‘금 따는 콩밭’,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이나 ‘치숙’ 등에 풍자가 잘 나타나 있다.

● “열하일기(熱河日記)”

1780년 연암 박지원이 종형인 박명원을 따라 청나라 건륭제 고종의 칠순연에 가는 도중 열하의 문인들과 사귀고, 연경의 명사들과 교류하며 그곳의 문물과 제도를 목격하고 견문한 바를 기록한 연행 일기로 총 26권 10책으로 되어 있다. 압록강 국경을 건너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요동, 성경, 산해관을 거쳐 북경에 도착하고, 고종의 피서궁이 있는 열하까지 갔다가 다시 북경으로 돌아오는 여정 속에서, 직접 목격하고 체험한 일들을 날짜 순서에 따라 항목별로 적었다. 발표 당시 보수적 유학자들의 비난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용후생의 실학사상을 바탕으로 청나라의 선진 문명과 문화를 예리한 평가를 덧붙여 소개하여 기행 문학의 정수로 꼽히고 있다.

(2) 미적 가치의 내면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창밖에 멋진 풍경이 펼쳐지면 자기도 모르게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이처럼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아름다운 것을 접하고 있으며, 어떤 대상에 대해 자기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아름다움을 평가하며 살고 있다.

아름다움에 대한 판단은 매우 주관적이지만, 다양한 체험을 통해 판단력을 키우고 확장함으로써 우리는 단순한 감각적 차원을 넘어 정서적으로 한층 높아진 심미 의식을 갖게 된다. 예술의 본질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 있으며 예술을 통한 미적 탐색은 인류의 역사에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다.

문학도 예술의 한 양식이므로 본질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한다. 미술은 선과 색이라는 시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음악은 선율과 박자라는 청각적 요소를 바탕으로 인간의 심미 의식을 자극한다. 이에 비해 문학은 언어를 매개로 한다. 언어는 어휘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조화로운 운율이 빚어내는 아름다움, 그리고 언어를 통해 형상화되는 대상의 아름다움과 그것이 담아내는 의미의 아름다움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에게 미적 체험을 제공한다.

언어는 본질적으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문학 작품은 단순히 감각적 차원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정신적 차원의 심미 의식을 일깨운다. 숭고한 것, 우아한 것, 비장한 것, 해학적인 것이 지닌 각각의 아름다움 등이 그 예이다.

우리의 고양된 심미 의식은 문학 작품을 단순히 감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작품의 아름다움을 인식하고 평가할 수 있게 한다. 문학 작품의 심미적 가치를 내면화한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문학 작품에 대한 심미적 판단과 심미 의식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이 작품은 승무를 추고 있는 한 여승의 모습과 그 내면세계를 형상화한 시이다.

- 대상을 형상화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 파악하며 읽어 보자.

얇은 사(紗)¹ 하이얀 고깔²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薄紗)³ 고깔에 감추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 대(臺)에 황촉(黃燭)⁴ 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 올린 외씨버선⁵이여.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 개 별빛에 모두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 두 방울이야
세사(世事)⁶에 시달려도 번뇌(煩惱)는 별빛이라.
휘어져 감기우고 다시 접어 뺨는 손이
깊은 마음속 거룩한 합장(合掌)⁷인 양하고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는 삼경(三更)⁸인데,
얇은 사(紗) 하이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 어휘 풀이

1. **사** 생사로 짠 얇고 가벼운 비단.
2. **고깔** 승려나 무당 또는 농악대들이 머리에 쓰는, 위 끝이 뾰족하게 생긴 모자.
3. **박사** 얇은 사(紗).
4. **황촉** 밀랍으로 만든 초.
5. **외씨버선** 오이씨처럼 볼이 조붓하고 가름하여 맵시가 있는 버선.
6. **세사**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
7. **합장** 두 손바닥을 합하여 마음이 한결같음을 나타냄. 또는 그런 예법.
8. **삼경** 하룻밤을 오경(五更)으로 나눈 셋째 부분. 밤 열한 시에서 새벽 한 시 사이.

작품 속으로

1 이 시에서 다음 대상을 어떻게 형상화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러한 표현이 어떠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하는지 말해 보자.

- 여승의 얼굴:
- 여승의 춤사위:
- 여승의 눈물:

2 1연과 2연의 시어 중에서 일상어와 다른 것을 찾아보고, 이를 일상어로 표현했을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다른지 말해 보자.

● **도움말** 승무를 추는 고운 여승의 얼굴과 그 내면의 정서를 떠올려 본다.

3 다음 표현에 담긴 함축적 의미를 말해 보자.

-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 세사에 시달려도 번뇌는 별빛이라.:

맥락 속으로

4 다음은 시인이 ‘승무’의 시작(詩作) 과정을 적은 글이다. 이를 참고하여 이 작품의 미적 가치를 내용적 측면과 표현적 측면에서 설명해 보자.

이와 같이 한 마디의 언어, 한 줄의 구상도 찾지 못한 채 막연한 괴로움에 싸여 있던 내가 승무를 비로소 종이 위에 올리게 된 것은 내 스무 살 되던 해 첫 여름의 일이다. 미술 전람회에 갔다가 김은호의 ‘승무도(僧舞圖)’ 앞에 두 시간을 서 있는 보람으로 나는 비로소 무려 7, 8매의 스케치를 가질 수 있었다. 움직임을 미묘히 정지태(靜止態)로 포착한 이 한 폭의 동양화에서 리듬을 찾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발견이었으나, 이 그림은 아마 기녀(妓女)의 승무를 모델한 성싶어 내가 찾은 인간의 애욕 갈등 또는 생활고의 종교적 승화 내지 신앙적 표현이 결여되어 그때의 초고(草稿)는 겨우 춤의 외면적 양자(樣姿)를 형성하는 정도의 산만한 언어의 나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그림을 통해서 내가 잡지 못해 애쓰던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있었던 것만은 사실이다.

작품 너머로

5 '승무'와 다음 시를 비교하여 감상해 보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언제나 내 더럽히지 않을
티 없는 꽃잎으로 살어 여러 했던만
내 가슴의 그윽한 수풀 속에
솟아오르는 구슬픈 샘물을 어이할까나.

청산 깊은 절에 울어 끓인
종소리는 하마 이숫하여이다.
경정히 밝은 달은
빈 절을 덧없이 비초이고
뒤안 으스스한 꽃가지에
잠 못 이루는 두견조차
저리 슬피 우는다.

아아, 어이하리. 내 홀로,
다만 내 홀로 지날 즐거운
무상한 열반을
나는 꿈꾸었노라.
그러나 나도 모르는 어지러운 티끌이
내 맘의 맑은 거울을 흐리노라.

- 신석초, '바라춤'에서

● **도움말** 춤을 추고 있는 존재와 시적 화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생각해 본다.

(1) 두 시에 나타난 시적 화자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2) 춤을 추는 이의 내적 갈등이나 춤사위의 묘사를 중심으로 두 시를 비교해 보자.

이 작품은

달과 별만이 총총한 한밤중에 빈 무대 위에서 황촉을 밝히고 승무를 추는 여승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이다. 2행이 1연을 이루는 정련된 구조 속에 이러한 승무의 춤사위와 여승의 내면세계,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화자의 정서가 한데 어우러져 아름다운 탄식을 자아내게 한다. 땅은 현실의 공간으로 세사의 번뇌가 가득한 곳이고, 그 반대 지점에 해탈의 공간인 하늘이 자리한다. 땅에 발을 딛고 서 있는 여승은 세사의 번뇌를 가슴에 안고 승무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 순간 여승에게 있어 승무는 세사의 번뇌가 내적으로 승화되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승무가 절정에 이르는 순간, 여승은 해탈을 상징하는 저 하늘의 별빛을 바라보며 슬픔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다.

작가에 대하여

조지훈(趙芝薰, 1920~1968)

시인. 국문학자. 본명은 동탁(東卓). 청록파 시인의 한 사람으로, 1946년 박목월, 박두진과 함께 공동 시집 “청록집”을 발간하였다. 초기에는 전통적인 소재를 바탕으로 한 민족 정서의 형



상화에 주력하였고, 한국 전쟁 이후에는 전쟁의 참상과 현실 문제를 담은 시와 평론을 주로 발표하였다. 시집으로 “풀잎 단장”, “조지훈 시선”, “역사 앞에서”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수미 상관(首尾相關)

시가(詩歌)에서 첫 연을 끝 연에 다시 반복하는 문학적 구성법으로 수미 쌍관법, 또는 수미상응이라고도 한다. 같은 어구를 반복함으로써 뜻을 강조하는 효과가 있으며, 처음과 끝에 같은 운율을 되풀이함으로써 음악적 효과가 살아나기도 하고, 처음과 끝이 균형을 이루어 안정감을 주기도 한다. 김소월의 ‘진달래꽃’에서는 “나 보기가 역겨워 / 가실 때에는 / 말없이 고이 보내 드리우리다”라는 첫 연이, 정지용의 ‘고향’에서는 “고향에 고향에 돌아와도 / 그리던 고향은 아니려뇨”라는 첫 연이 마지막 연에서 부분적인 변주를 통해 그대로 반복되고 있다.

● 시적 허용

시에서 특별한 미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문법, 또는 일상적인 담화의 기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된 자유를 말하며, 시적 과격이라고도 한다. 넓은 의미에서 시인이 허구를 창조하거나 구체적 사실을 자유롭게 변형할 때 시적 허용을 사용한다. 또한 좁은 의미로 볼 때에는 시어를 정상적인 어순에서 벗어나게 배치하는 것, 신조어나 고어들을 사용하는 것, 단어들을 축약하거나 늘리는 것, 특정한 음을 변형시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김광균의 ‘와사등’에 나오는 ‘차단—한’은 등불의 비정성을 부각하는 신조어로 볼 수 있으며, 조지훈의 ‘승무’에 나오는 ‘하이얀’, ‘감추오고’, ‘모두오고’, ‘감기우고’ 등은 시어를 늘림으로써 운율과 어감을 살리는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스승과 제자 간의 갈등 속에서 예술의 본질 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이다.

- 두 인물의 예술관을 대비하며 읽어 보자.
- 문학의 예술적 가치에 대해 생각하며 읽어 보자.

석담 선생의 말처럼 정말로 그들의 만남은 악연이었을까. 그가 문하에 든 후에도 그들 사제 간의 묘한 관계는 변함이 없었다. 석담 선생은 그가 중년에 들 때까지도 가슴속에 원망으로 남아 있을 만큼 가르침에 인색했다. 해자(楷字)¹부터 다시 시작할 때였다. 선생은 붓을 쥐기 전에 먼저 추사의 서결(書訣)²을 외우도록 했다.

글씨가 법도로 삼아야 할 것은 텅 비게 하여 움직여 가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과 같으니, 하늘은 남북극이 있어서 그것으로 굴대를 삼아 그 움직이지 않는 곳에 잡아매고, 그런 후에 그 하늘을 항상 움직이게 한다. 글씨가 법도로 삼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을 뿐이다. 이런 까닭으로 글씨는 붓에서 이루어지고, 붓은 손가락에서 움직여지며, 손가락은 손목에서 움직여지고, 손목은 팔뚝에서 움직여지며, 팔뚝은 어깨에서 움직여진다. 그리고 어깨니 팔뚝이니 팔목이니 하는 것은 모두 그 오른쪽 몸뚱어리라는 것에서 움직여진다…….

대개 그런 내용으로 시작되는 사백 자 가까운 서결이었는데, 고죽은 그걸 한 자 빠뜨림 없이 외워야 했다. 그다음에 내준 것이 이미 선생 몰래 써 본 안진경(顔眞卿)의 법첩³ 한 권이었다.

“네가 이걸 백 번을 쓰면 본(本)은 될 것이고, 천 번을 쓰면 잘 쓴다 소리를 들을 것이며, 만 번을 쓰면 명필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가르침은 오직 그뿐이었다. 그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드러내 놓고 연마할 수 있다는 것과 이틀에 한 번씩 운곡 선생에게 들러 한학(漢學)을 배우게 된 정도였을까. 그러다가 꼬박 삼 년이 지난 후에 딱 한마디를 덧붙였다.

“숨을 멈추어라.”

이미 삼천 번을 쓴 연후에도 해자가 여전히 뜻대로 어울리지 않아 탄식할 때였다.

사군자(四君子)에 있어서도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를테면 난을 칠 때에도 손수 임사(臨寫)⁴한 “석파난권(石坡蘭卷)⁵” 한 권을 내밀며 말했다.

“선 자리에서 성불(成佛)할 수 없고, 또 맨손으로는 용을 잡을 수가 없다. 오직 많이 쳐 본 연후에야만 가능하다.”

그러고는 그뿐이었다. 가끔씩 어깨너머로 그의 난을 구경하는 일이 있어도 입을 열어 자상하게 그 법을 일러 주는 일은 없었다. 그러다가 그의 난이 거의 어우러져 갈 무렵에야 한마디 덧붙였다.

“왼쪽부터 처라, 돌은 붓을 거슬러 써야지.”

또 석담 선생은 제자의 성취를 별로 기뻐하는 법이 없었다. 입문한 지 십 년에 가까워지면서 그의 솜씨는 선생의 동도들에게까지 은근한 감탄으로 오르내리게 되었다. 그러나 선생은 그런 말만 들으면 언제나 냉엄하게 잘라 말했다.

“이제 겨우 흉내를 낼 수 있을 뿐이오.”

스물일곱 적에 그가 선생의 집을 나서게 된 것도 아마는 그런 선생의 냉담함에 대한 반발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하게도 그는 반드시 스승의 칭찬을 받고 싶었다. 그것이 그를 석담 선생 곁으로 되돌아오게 만들고, 다시 용서를 받을 때까지의 2년에 가까운 모멸과 수모를 참아 내게 한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 2년 동안 다시 옛날의 불목하니⁶로 돌아가 농사를 돌보고 나뭇짐을 해 나르는 그를 선생은 대면조차 꺼렸다. 한번은 견딜 수 없는 충동 때문에 선생 몰래 붓을 잡아 본 적이 있었다. 은밀히 한 일이었지만, 그걸 알아차린 선생은 비정하리만치 매몰차게 말했다.

“나가서 몸을 씻고 오너라. 네 몸의 먹 냄새는 창부(娼婦)의 지분 냄새보다 더 견딜 수 없구나…….”

그 뒤 다시 용서를 받고, 선생의 사랑방에서 지필을 만지는 것이 허락된 후에도 석담 선생의 태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그가 나이를 먹고 글씨가 무르익어 갈수록 선생의 차가운 눈초리에는 이해할 수 없는 불안까지 번쩍었다. 느긋해지는 것은 차라리 고죽 쪽이었다. 그런 스승의 냉담과 비정에 반평생 가까이 시달려 오는 동안, 그는 단순히 그것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지는 이상 스승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찾아내어 행함으로써 그로 인한 스승의 분노와 탄식을 즐기게까지 되었다. 몇 번의 단체 전람회와 선전(鮮展) 참가 같은 것이 그 예였다.

하지만 그들 불행한 사제 간이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다. 석담 선생이 불안해한 것, 그리고 그가 늘 스승을 경원하도록 만든 것이 세월과 더불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게 된 것이었다.

본질적으로 일치될 수 없는 것은 그들의 예술관이라 할까, 서화에 대한 그들의 견해였다. 석담 선생의 글씨는 힘을 중시하고 기(氣)와 품(品)을 숭상했다. 그러나 그는 아름다움을 중히 여기고 정(情)과 의(意)를 드러내고자 힘썼다. 그림에 있어서도 석담 선생은 서화를 심화(心畵)로 여겼고, 그는 물화(物畵), 즉 자신의 내심보다는 대상에 충실하려고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그들 사제 사이에 있었던 유명한 매죽(梅竹) 논쟁이었다.

사군자 중에서 석담이 특히 득의⁷해 하던 것은 대나무와 매화였다. 그런데 그 대나무와 매화가 한일 합방을 경계로 이상한 변화를 일으켰다. 대원군도 신동의 그림으로 감탄했다는 석담의 대나무와 매화는 원래 잎과 꽃이 무성하고 힘차게 뻗은 것이었으나 그때부터 점차 시들고 메마르고 뒤틀리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은 후년으로 갈수록 심해 노년의 것은 대 한 줄기에 이파리 세 개, 매화 한 등걸에 꽃 다섯 송이가 넘지 않았다. 고죽에게는 그것이 불만이었다.

“선생님께서서는 어째서 대나무의 잎을 따고 매화의 꽃을 훑어 버리십니까?”

이제는 고죽도 장년이 되어 석담 선생이 전처럼 괴박을 부리지 못하게 되었을 때, 고죽이 그렇게 물었다.

“망국의 대나무가 무슨 흥으로 그 잎이 무성하며, 부끄럽게 살아남은 유신(遺臣)의 붓에서 무슨 힘이 남아 매화를 피우겠느냐?”

“정소남은 난의 노근(露根)⁸을 드러내어 망송(亡宋)의 한을 그렸고, 조맹부는 휘절(毀節)하여 원(元)에 출사(出仕)했지만, 정소남의 난초만 홀로 향기롭고 조맹부의 송설체(松雪體)가 비천하다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

“서화는 심화(心畵)니라. 물(物)을 빌려 내 마음을 그리는 것인즉 반드시 물의 실상(實相)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글씨 쓰는 일이며 그림 그리는 일이 한낱 선비의 강개(慷慨)를 의탁하는 수단이라면, 그 얼마나 덧없는 일이겠습니까? 또 그렇다면 장부로 태어나 일평생 먹이나 갈고 화선지나 더럽히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모르긴 하되 나라가 그토록 소중한 것일진대는, 그 혼한 창의(倡義)⁹에라도 끼어들어 한 명의 적이라도 치고 죽는 것이 더욱 떳떳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만히 서실에 앉아 대나무 잎이나 떼어 내고 매화나 훑는 것은 나를 속이고 물을 속이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다. 물에 충실하기로는 거리에 나앉은 화공이 훨씬 앞선다. 그러나 그들의 그림이 서푼에 팔려 나중에는 방바닥 뚫어진 것을 메우게 되는 것은 뜻이 알고 천했기 때문이다. 너는 그림이며 글씨 그 자체에 어떤 귀함을 주려고 하지만, 만일 드높은 정신이 곁들여 있지 않으면 다만 검은 것은 먹이요, 흰 것은 종이일 뿐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는 예도(藝道) 논쟁이 있다. 역시 고죽이 장년이 된 후에 있었던 것으로 시작한 고죽의 이러한 물음이었다.

“선생님 서화는 예(藝)입니까, 법(法)입니까, 도(道)입니까?”

“도다.”

“그럼 서예(書藝)라든가 서법(書法)이라는 말은 왜 있습니까?”

“예는 도의 향이며, 법은 도의 옷이다. 도가 없으면 예도 법도 없다.”

“예가 지극하면 도에 이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예는 도의 향이 아니라 도에 이르는 문이 아니겠습니까?”

“장인(匠人)들이 하는 소리다. 무엇이든 항상 도 안에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글씨며 그림을 배우는 일도 먼저 몸과 마음을 닦는 일이겠군요?”

“그렇다. 그래서 왕우군(王右軍)¹⁰은 비인부전(非人不專)¹¹이란 말을 했다. 너도 이제 그 뜻을 알겠느냐?”

이미 육순에 접어들어 늙음의 기색이 완연한 석담 선생은 거기서 문득 밝은 얼굴이 되어 일생을 불안하게 여겨 오던 제자의 얼굴을 살폈다. 그러나 고죽은 끝내 그의 기대를 채워 주지 않았다.

“먼저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면 이제 예닐곱 살 난 학동들에게 붓을 쥐여 자학을 그리게 하

는 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만약 글씨에 도가 앞선다면 죽기 전에 붓을 잡을 수 있는 이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기예를 닦으면서 도가 아우르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평생 기예에 머물러 있으면 예능(藝能)이 되고, 도로 한 발짝 나가게 되면 예술이 되고, 혼연히 합일되면 예도가 된다.”

“그것은 예가 먼저고 도가 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도를 앞세워 예기(藝氣)를 억압하는 것은 수레를 소 앞에다 묶는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석담 문하에 든 직후부터 반생에 이르는 고죽의 항변이기도 했다. 그에 대한 석담 선생의 반응도 날카로웠다. 그를 받아들일 때부터의 불안이 결국 적중하고 만 것 같은 느낌 때문이었으리라.

“이놈, 네 부족한 서권기(書卷氣)와 문자향(文字香)¹²을 애써 채우려 들지는 않고 도리어 요망스런 말로 얼버무리려 하느냐? 학문은 도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데 너는 경서(經書)에도 뜻이 없었고, 사장(詞章)¹³도 즐거워하지 않았다. 오직 붓끝과 손목만 연마하여 선인(先人)들의 오묘한 경지를 자못 여실하게 시늉하고 있으니 어찌 천예(賤藝)와 다름이 있겠는가? 그레 놓고도 이제 와서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앞사람의 드높은 정신의 경지를 평하려 들다니 뻔뻔스러운 놈.”

그러다가 급기야 그들 두 불행한 사제가 돌아서는 날이 왔다. 고죽이 서른여섯 나던 해였다.

<중략>

“설령 이 글을 단숨에 쓰시고, 여기서 금시조(金翅鳥)¹⁴가 솟아오르며 향상(香象)¹⁵이 노닐들, 그제 선생님을 위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고죽은 자신도 모르게 심술궂은 미소를 띠며 물었다. 이마에 송골송골 땀이 맺힌 채 기진해 있던 석담 선생은 처음 그 말에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그러나 이내 그 말의 참뜻을 알아들은 듯 매서운 눈길로 그를 노려보았다.

“무슨 소리냐? 그와 같이 드높은 경지는 글씨를 쓰는 이면 누구든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이르러 보고 싶은 경지다.”

“거기에 이르러 본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고죽도 지지 않았다.

“태산에 올라 보지도 않고, 거기에 오르면 그보다 더 높은 산이 없을까를 근심하는구나. 그럼 너는 일찍이 그들이 성취한 드높은 경지로 후세에까지 큰 이름을 드리운 선인들이 모두 쓸모없는 일을 하였던 말이나?”

“자기를 속이고 남을 속인 것입니다. 도대체 종이에 먹물을 적시는 일에 도가 있은들 무엇이며, 현묘(玄妙)함이 있은들 그제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도로 이름하면 백정이나 도둑에게도 도가 있고, 뜻을 어렵게 꾸미면 장인이나 야공(冶工)의 일에도 현묘함이 있습니다. 천고에 드리우는 이름이 있다 하나 이 나 [我] 가 없는데 문자로 된 나의 껍데기가 낯모르는 후인들 사이를 떠돈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서화가 남겨진단 하나 단단한 비석도 비바람에 깎이는데 하물며 종지와 먹이겠습니까? 거기다가 그것은 살아 그들의 몸을 편안하게 해 주지

도 못했고 헐벗고 굶주리는 이웃을 도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허망함과 쓰라림을 감추기 위해 이를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어떤 경지를 설정하여 자기를 위로하고 이웃과 뒷사람을 홀렸던 것입니다…….”

그때였다. 고죽은 불의의 통증으로 이마를 감싸 안으며 엎드렸다. 노한 석담 선생이 앞에 놓인 벼루 뚜껑을 집어 던진 것이다. 샘솟듯 솟는 피를 흠치고 있는 고죽의 귀에 늙은 스승의 광기 어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내 일찍이 네놈의 천골(賤骨)을 알아보았더니라. 가거라. 너는 진작부터 저잣거리에 나왔아야 할 놈이었다. 용케 천골을 숨기고 오늘날에 이르렀으니 이제 나가면 글씨 한 자에 쌀 뒷박은 후히 받을 게다…….”

결국 그 자리가 그들의 마지막 자리였다. 그 길로 석담 선생의 집을 나선 고죽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미 스승의 시신이 입관된 뒤였다.

벌써 삼십여 년 전의 일이건만 고죽은 아직도 회미한 아픔을 느끼며 이제는 주름살이 덮여 흉터가 별로 드러나지 않는 왼쪽 이마 어름을 만져 보았다. 그러나 그와 함께 떠오르는 스승의 얼굴은 미움도 두려움도 아닌, 그리움 그것이었다.

전체 줄거리_ 죽음을 앞둔 서예가 고죽이 과거를 회상한다. 그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여의고 숙부 밑에서 자란다. 그러던 중 숙부가 망명의 길을 떠나면서 당시 서예와 문인화의 대가로 꼽히던 석담에게 맡겨진다. 석담은 고죽을 문하생으로 거두지 않고 소학교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한다. 그러나 고죽은 석담 몰래 서화를 연습하여 탁월한 재능을 보이고, 결국 석담의 문하생이 된다. 예(藝)보다 도(道)를 앞세운 석담은 예인적 재주가 뛰어난 고죽에게 먼저 도를 가르치려 하지만, 고죽은 그런 스승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못한 채 결국 석담을 떠나게 된다. 고죽은 스승을 떠나 자기만의 예술 세계를 완성하고 명성도 쌓아가지만, 스승 석담이 말했던 최고의 경지에 이르지 못함을 깨닫는다. 결국 고죽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자신의 작품을 모두 거두어들여 불사르게 한다. 그 불길 속에서 고죽은 스승이 말했던 금시조의 비상을 보게 되고 그날 밤 숨을 거둔다.

● 어휘 풀이

1. **해자** 해서(楷書)로 쓴 글자. 해서는 예서에서 변한 것으로, 똑똑히 정자(正字)로 씀.
2. **서결** 서법(書法)의 비결이라는 뜻으로, 중국 명나라의 풍방(豐坊)이 지은 “서결”과 조선 시대 이광사(李匡師)가 지은 “원교서결(圓峯書訣)” 등이 유명함.
3. **법첩** 체법(體法)이 될 만한 명필의 서첩.
4. **임사** 글자 따위의 본모기를 보고 그대로 옮겨 쓰거나 그림.
5. **석파난권** 대원군의 난초집(蘭草集).
6. **불목하니** 집에서 밥을 짓고 물을 길는 일을 맡아서 하는 사람. 여기서는 석담 선생의 집에서 불목하니처럼 일하는 사람을 뜻함.
7. **득의** 일이 뜻대로 이루어져 만족해하거나 뽐냄.
8. **노근** 땅 위에 드러난 나무뿌리.
9. **창의** 국난을 당하였을 때 나라를 위하여 의병을 일으킴.
10. **왕우군** 서성(書聖)으로 일컬어지는 중국 진나라의 서예가 왕희지를 말함.
11. **비인부전** 제대로 된 사람이 아니면 가르치지 않는다는 뜻.
12. **서권기와 문자향** 책을 많이 읽고 교양을 쌓으면 몸에서 책의 기운이 풍기고 문자의 향기가 남을 뜻함.
13. **사장** 시가와 문장을 아울러 이르는 말.
14. **금시조** 불경에 나오는 상상의 큰 새로, 매와 비슷한 머리에는 여의주가 박혀 있으며 금빛 날개가 있는 몸은 사람을 닮고 불을 뿜는 입으로 용을 잡아먹는다고 함.
15. **향상** 상상의 큰 코끼리. 몸은 푸르고 향기가 나며 바다나 강을 돌아다닌다고 함.

● 읽기 중 활동

- ① 석담이 고죽에게 글씨를 가르치는 방법을 파악해 보자.
- ② 석담의 태도로 보아 고죽에 대해 우려한 바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③ ‘심화’와 ‘물화’의 의미를 파악해 보자.
- ④ 고죽이 ‘정소남’과 ‘조맹부’의 사례를 들어 말하고자 한 바를 생각해 보자.
- ⑤ 석담과 고죽이 ‘도’와 ‘예’ 중에서 각각 무엇을 더 중시하는지 파악해 보자.
- ⑥ 석담이 고죽에게 벼루 두경을 던진 이유를 말해 보자.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에 드러난 석담과 고죽의 예술관을 비교해 보자.

석담의 예술관	고죽의 예술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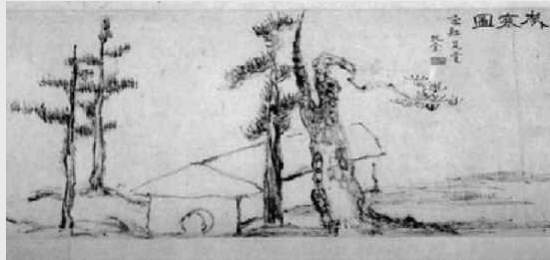
● **도움말** 시간의 흐름에 주목하여 사건의 서술 방식을 파악하고, 그 효과를 생각해 본다.

2 이 작품에서 사건이 서술되는 방식을 파악하고, 그 효과에 대해 설명해 보자.

3 이 작품의 마지막 문장에 나타난 고죽의 심리를 추측해 보자.

맥락 속으로

4 다음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와 이를 소개하는 글이다. 그림과 글을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김정희, ‘세한도’

‘세한도’는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다 준 제자 이상적(李尙迪)의 인품을 송백(松柏)의 지조에 비유하며 그려 준 그림이다. 이 그림에는 집 한 채와 주위의 송백 두 그루씩이 대칭을 이루며 간략하게 묘사되어 있다. 직업 화가들의 기교주의를 따르지 않고 극도로 절제된 표현을 통해 작가의 농축된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조선 시대 문인화의 대표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 **도움말** 추사의 예술관
과 석담의 예술관을 비교해
본다.

- (1) 석담이 고죽에게 추사의 서걸을 외우도록 한 이유를 추측해 보자.
- (2) 석담의 예술관을 수용하지 못하는 고죽이 이 그림을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생각해 보자.

작품 너머로

5 다음 글을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서편제**
연작 소설 “남도 사람” 중
한 편으로, 소리꾼 부녀의
한(恨)과 그것을 예술로 승
화시키는 과정을 그린 작품
이다.

소리꾼의 딸아이 나이 아직 열 살도 채 못 되었을 때 — 어느 날 밤 그녀는 갑자기 견딜 수 없는 통증으로 그의 아버 곁에서 잠을 깨어 일어나게 되었고, 잠을 깨고 일어나 보니 그녀의 얼굴은 웬일로 숯불이라도 들어부은 듯 두 눈 알이 모진 아픔으로 활활 타들어 오는 것 같았고, 그것으로 그녀는 영영 앞을 못 보는 장님 신세가 되어 버리고 만 것이라 했다. 여자의 아버가 잠든 계집자식 눈 속에 청강수를 몰래 찍어 넣은 것이라 했다. 그런 얘기는 여인이 일찍이 읍내 대갓집 심부름꾼 시절서부터 이미 어른들에게서 들어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 그렇게 하면 눈으로 뻔칠 사람의 정기가 귀와 목청 쪽으로 옮겨 가 눈빛 대신 목청소리를 비상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 이청준, ‘서편제’에서

- (1) 아버가 딸아이의 눈을 멀게 한 이유를 찾아보자.
- (2) 석담과 고죽의 입장에서 아버의 행동에 대해 각각 평가해 보자.

6 이 작품의 내용을 바탕으로, 진정한 예술이란 무엇인지 토론해 보자.

이 작품은

스승 석담과 제자 고죽 사이의 갈등을 통해 진정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다. 도(道)가 예(藝)의 근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석담과 달리 천부적 자질을 타고난 고죽은 예술 그 자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서로 다른 예술관을 가지고 있는 두 인물의 갈등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러나 석담이 제자의 재능을 아끼고 도의 길을 깨우쳐 주려 했고, 고죽 역시 스승이 추구했던 금시조의 비상을 찾게 된다는 결말을 통해 상호간의 부정이 끝없는 평행선이 아님을 보여 준다. 석담과 고죽은 서로 배타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자기 예술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지만, 결국 그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예술의 경지는 그러한 배타성을 초월한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작가에 대하여

이문열(李文烈, 1948~)

소설가.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중편 ‘새하곡(塞下曲)’이 당선되어 등단하였으며,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한 자전적인 소설을 많이 썼다. 또한 종교와 예술, 분단 상황과 당대 현실 등 다양한 제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사람의 아들’, ‘젊은 날의 초상’, ‘황제를 위하여’, ‘영웅 시대’, ‘변경’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예술 지상주의

예술 자체를 최고의 목적으로 여기는 경향으로 유미주의나 악마주의가 이에 속한다. 프랑스의 고티에가 주장한 개념으로, 그의 제자인 보들레르는 이러한 예술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구속을 벗어난 예술의 길을 추구하였다. 예술의 유일한 목적은 미의 추구에 있다고 보고, 예술에서 여타의 사회적·도덕적 가치를 배제함으로써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장은 예술의 주체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였지만, 예술이 인간의 삶과 사회에 기여하는 다른 가치들을 등한시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김동인이 이광수 등의 계몽주의에 반기를 들고 순수 문학 운동을 전개한 것을 그 시초로 볼 수 있다.

● 역행적 구성

서사에서는 일정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진행된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사건이 발생하는 순서와 일치한다. 이와 같이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서사를 완성하는 구성을 순행적 구성 또는 평면적 구성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구성은 사건의 인과 관계가 효과적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며, 서사의 긴장도를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럴 경우 작가는 회상의 장면을 삽입하거나 현재에서 과거로 되짚어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건의 순서를 뒤바꿔 놓을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을 역행적 구성 또는 입체적 구성이라고 한다.

(3)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

우리는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고 어려운 이를 돕는 사람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을 보면 분노한다. 이렇게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하고, 그에 대해 정서적으로 반응을 하며, 자신의 태도를 결정하여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처럼 우리의 사회적 삶은 윤리 의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윤리 의식은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과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 인간이 선택하는 자연스러운 정신 작용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미 오랜 세월을 걸쳐 축적된 윤리 의식이 그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형성하고, 그것을 다시 개인이 학습하고 수용함으로써 얻어진 후천적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윤리 의식은 개인의 사회적 삶을 규정하고,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담아내는 동시에 그 사회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리 의식은 사회적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하고, 그 사회의 도덕과 규범을 학습함으로써 이성적으로 획득되기도 한다. 그러나 학습으로 익힌 윤리 의식은 개인의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고 태도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반해 문학 작품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현실과 같이 구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줌으로써 독자가 자연스럽게 그 상황에 몰입하여 윤리 의식을 내면화하게 한다. 이처럼 문학적 체험은 우리의 윤리 의식을 일깨우고 정서적 반응과 태도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유도한다.

문학 작품을 읽으면서 우리는 인간이 지녀야 할 보편적 윤리와 그 사회의 유지를 위해 합의된 윤리를 탐색한다. 한편으로는 윤리 의식이 부족한 인간과 그것이 부재하는 상황이나 사회에 대해 분노하며 자신의 삶의 태도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설정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이 사회를 인간다운 삶의 공간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 작품은 현대 산업 문명에 의해 파괴되어 가는 것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형상화한 시이다.

- 성북동 비둘기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자연에 대해 우리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를 생각하며 읽어 보자.

성북동¹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새벽부터 돌 깨는 산울림에 떨다가
 가슴에 금이 갔다.
 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
 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
 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나 전하듯
 성북동 하늘을 한 바퀴 휘 돈다.

성북동 메마른 골짜기에는
 조용히 앉아 콩알 하나 째어 먹을
 널찍한 마당은커녕 가는 데마다
 채석장² 포성이 메아리쳐서
 피난하듯 지붕에 올라앉아
 아침 구공탄 굴뚝 연기에서 향수를 느끼다가
 산1번지 채석장에 도로 가서
 금방 따 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예전에는 사람을 성자(聖者)처럼 보고
 사람 가까이
 사람과 같이 사랑하고
 사람과 같이 평화를 즐기던
 사랑과 평화의 새 비둘기는
 이제 산도 잃고 사람도 잃고
 사랑과 평화의 사상까지
 낳지 못하는 쫓기는 새가 되었다.

● 어휘 풀이

1. **성북동**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속한 동. 북쪽에 북한산이 있고, 서울 성곽이 부채꼴 모양으로 동네를 감싸고 있음.
2. **채석장** 석재(石材)로 쓸 돌을 캐거나 떠 내는 곳.

작품 속으로

1 3연에서 현재의 ‘비둘기’는 ‘꽃기는 새’로 표현되어 있다. 1, 2연에 나타난 다음 구절의 함축적 의미를 ‘꽃기는 새’와 관련지어 해석해 보자.

● **도움말** 두 시구에서 대상의 속성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에 주목한다.

- 성북동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금방 따낸 돌 온기(溫氣)에 입을 닦는다.:

2 감각적인 이미지를 활용하여 묘사하고 있는 시구를 모두 찾아보고, 이러한 표현의 효과에 대해 말해 보자.

3 1, 2연과 3연에서 중심 소재를 형상화하는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해 보자.

4 이 작품에서 ‘비둘기’는 ‘자연’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인간’을 우의적으로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두 경우로 나누어 이 작품의 윤리적 가치를 파악해 보자.

맥락 속으로

5 다음은 시인이 이 작품의 창작 동기를 밝힌 글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나는 뇌출혈로 메디컬 센터에 입원하여 오랜 혼수상태를 겪으면서 사경을 헤맸어요. 그 후 성북동 나의 집 마당에 자리를 펴고 앉았는데, 따스한 훈풍이 불고 꽃이 피어 있었어요. 뇌출혈이란 말을 듣고 내 시적 생명은 끝났다는 절망감을 안고 있었지요. 그때, 하늘을 바라보다가 아침마다 하늘을 휘익 돌아나는 비둘기 떼를 보게 되었어요. ‘성북동 비둘기’의 착상은 거기에서였지요. 돌 깨는 소리가 채석장에서 울리면 놀라서 날아오르는 새들, 그러나 저것들이 우리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해 줄 것인가? 돌 깨는 산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집들은 모두 시멘트로 지어서 마음 놓고 내릴 장소도 없는 저것들이란 데 생각이 머물렀어요.

(1) 창작 동기에 나오는 ‘다이너마이트’와 ‘시멘트’의 이미지가 이 작품에서는 어떻게 구체화되었는지 찾아보자.

(2) 시인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비둘기’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를 추리해 보자.

● **도움말** 꿈과 관념의 세계를 노래한 시인의 초기 시를 찾아 비교해 본다.

(3) 시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나서 시적 경향에 변화가 나타났다. 시인의 초기 시를 찾아 읽고 이 작품과 비교해 보자.

작품 너머로

6 다음은 이 작품의 시인과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미국의 생물학자 카슨의 “침묵의 봄”에 실린 내용이다. 이 작품과의 관련성에 주목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카슨**
“침묵의 봄”을 통하여 환경 문제의 중요성을 일깨우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낮선 정적이 감돌았다. 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가 버린 것일까? 이런 상황에 놀란 마을 사람들은 자취를 감춘 새에 관해서 이야기했다. 새들이 모이를 쪼아 먹던 뒷마당은 버림받은 듯 쓸쓸했다.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단 몇 마리의 새조차 다 죽어 가는 듯 격하게 몸을 떨었고 날지도 못했다. 죽은 듯 고요한 봄이 온 것이다. 전에는 아침이면 울새, 검정지빠귀, 산비둘기, 어치, 굴뚝새를 비롯한 여러 가지 새들의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들판과 숲과 습지에 오직 침묵만이 감돌았다.

(1) ‘고요한 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며, 이처럼 ‘고요한 봄’이 찾아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양하게 추리해 보자.

(2) ‘성북동 비둘기’의 한 구절을 인용하여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광고 문구를 만들어 보자.

이 작품은

자연의 순수함과 인간의 평화를 상징하는 비둘기가 현대 문명에 의해 점점 사라져 가고 있음을 풍자하고 있는 시이다. 1965년 뇌출혈로 쓰러져 병고와 싸우면서 생사를 새로이 관조하게 된 시인이 1968년 “월간 문학” 11월 호에 발표한 시이다. 이듬해 이 시를 표제로 한 시집이 발간되었다. 1연에서는 성북동 산에 사람들의 집이 들어와 번지가 생기면서 본래 그곳에 살던 비둘기가 자신의 보금자리를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2연에서는 편히 머물 곳이 없는 비둘기가 문명에 의해 파괴되기 이전의 자연을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3연에서는 사랑과 평화를 상징하던 비둘기가 현재 자연과 인간에게서 멀어지게 되었음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작가에 대하여

김광섭(金光燮, 1905~1977)

시인. 호는 이산. “해외 문학”, “문예 월간”의 동인으로 문학 활동을 시작하였으며, 초기부터 일제 강점기까지의 꿈과 관념의 세계를 노래하거나 식민지 시대의 고뇌가 반영된 작품들을 주로 썼다. 일제 강점기 말에는 창씨개명을 거부하고 학생들에게 민족 의식을 고취하여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다. 후기에는 인생이나 자연, 문명에 대한 통찰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발표하였다. 주요 시집으로 “동경”, “마음”, “해바라기”, “성북동 비둘기”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관습적 상징

관습적 상징은 문화적 전통이나 사회적 관습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징이다. 문인화에 자주 등장하는 사군자(四君子)는 전통적으로 고결한 절개를 상징해 왔지만, 이런 문화적 자산을 소유하지 않은 외국인들에게 사군자는 단순한 식물로 이해될 수도 있고 때로는 자기 문화에서 생성된 또 다른 상징적 의미로 수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관습적 상징은 해당 문화를 이해하거나 그 문화적 소산인 문학 작품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관습적 상징이 문학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을 경우 그 작품의 신선함이나 창의성은 떨어질 수 있다.

● 시적 긴장

시적 긴장이란 시를 읽는 독자로 하여금 작품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게 만드는 요소를 말한다. 대상에 대해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성급히 표현해 버리면 독자들은 그 작품을 읽으면서 긴장감을 유지할 수 없다. 이처럼 시적 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직설적이거나 설명적인 시어보다는 함축적이고 묘사적인 시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상투적인 비유 대신 개성적이고 참신한 비유를 사용하여 그 의미가 작품의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시의 분위기에 어울리도록 운율과 어조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도 시적 긴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이 작품은 악인에 대한 개인적 징벌과 그로 인해 죄의식에 빠지게 되는 인간의 내적 갈등을 다룬 소설이다.

- 인물이 처한 상황과 그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주인공의 생각이 윤리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지 평가하며 읽어 보자.

“당신 말이 옳아, 소냐.¹ 이건 다 헛소리야, 정말 쓸데없는 말이지! 당신도 알지, 우리 어머니는 거의 무일푼이야. 누이는 어떻게 겨우 교육을 받아서, 가정 교사로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고 있어. 이들의 모든 희망은 오로지 나 한 사람이야. 나는 공부를 했지만, 대학 학비를 낼 수가 없어서 잠시 동안 쉬어야 했어. 만일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10년 혹은 12년 뒤 사정이 나아지면, 나는 어쨌든 1천 루블 정도의 연봉을 받는 선생이나 관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는 마치 외운 듯이 줄줄 읊어 댔다.) 그런데 그때쯤이면 어머니는 걱정과 슬픔 때문에 말라비틀어지실 테니, 난 아무리 해도 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릴 수가 없어. 그런데 누이는…… 누이에게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자, 뭐가 좋다고 한평생 모든 걸 모른 채하면서, 모든 걸 외면하고는, 어머니도 잊고, 누이의 모욕도 점잖게 참아야 한다는 거지? 무슨 목적으로? 그들을 망치고 나서, 새로운 식구, 아내와 자식을 만든 다음에 또다시 그들을 한 푼도 없는 신세로 남겨 두기 위해서? 자…… 그래서…… 노파의 돈을 빼앗은 다음, 그 돈을 처음 몇 해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던 거야. 어머니를 괴롭히는 일도 없이 대학도 다니고, 대학을 나온 다음에는 사회에서의 첫발을 보장받기 위해서 결심했던 거지. 이 모든 일을 확실하게 급속도로 해치워서, 완전히 새로운 출세의 길로 접어들자, 새롭고 독립적인 길로 나가자……. 그랬던 거야……. 그래서 그렇게 되었어……. 물론 노파를 죽인 것은 내가 잘못된 거야……. 자, 이제, 그만두지!”

그는 여기까지 말하고는 힘없이 고개를 떨궜다.

“오,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소냐는 비탄에 잠겨 외쳤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닐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 하지만 나는 진실을 말한 거야!”

“어떻게 그게 진실일 수 있어요! 오, 하느님!”

“나는 다만 ‘이’²를 죽인 것뿐이야, 소냐. 무익하고 추하고, 해로운 ‘이’ 말이야.”

“인간은 ‘이’가 아니에요!”

“‘이’가 아니라는 것은 나도 알아.”

그는 그녀를 이상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대답했다.

“나는 지금 거짓말을 했어, 소냐.”

그는 덧붙여 말했다.

“아까부터 거짓말하고 있었어……. 그게 아냐. 당신이 옳아. 전혀, 전혀,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어……! 난 오래전부터 아무하고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 소냐……. 지금 머리가 몹시 아파.”

그의 눈은 열이 나는 듯이 불타고 있었다. 그는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다. 불안한 미소가 그의 입가를 맴돌았다. 흥분한 정신 상태 사이사이로 무서운 무력감이 내비치고 있었다. 소냐는 그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그녀는 현기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말투는 너무나도 이상했다. 무언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도 같았지만, 그렇지만…….

‘그렇지만 어떻게! 어떻게 그럴 수가! 오, 하느님!’

그녀는 절망 속에서 두 손을 쥐어뜯었다…….

“아냐, 소냐, 그게 아냐!”

그는 갑자기 생각을 바꾸고 놀란 듯, 그리고 다시 힘을 되찾은 듯이 머리를 들고 말했다.

“그게 아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낫겠어. (그래! 이게 정말 더 낫겠어!) 나는 자기밖에 모르고, 질투심이 많고, 악하고, 뻔뻔스럽고, 원한이 깊은 사람이라고 말이야……. 그리고 또 미치광이 증세도 있다고 말이야. (이게 모두 한꺼번에 작용을 했다고 하지, 뭐! 친구들은 내가 정신병자라고 수군대더군. 내가 알아챘지!) 방금 나는 대학에서 공부할 돈을 도저히 조달할 수가 없었다고 했어. 그런데 말이야, 알아? 어찌면 나는 그 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도 몰라. 학자금은 어머니가 보내 주셨을 테고, 장화와 옷, 식비는 내가 스스로 벌 수 있었을 거야, 아마 틀림없이! 반 루블 은화를 주겠다고 한 가정 교사 자리도 있었어. 라주미힌³도 그렇게 일하고 있거든! 그런데 나는 심술이 나서 일하고 싶지가 않았어. 그래, ‘심술이 났던’ 거야. (이 단어가 더 적절하겠어!) 나는 그때 거미처럼 방구석에 숨어 버렸지. 당신도 와서 내 방을 봤지……. 알아, 소냐? 낮은 천장과 좁은 방이 영혼과 정신을 얼마나 숨 막히게 하는지! 오, 나는 그 방을 얼마나 싫어했는지 몰라! 하지만 나는 그 방에서 나오고 싶지 않았어. 일부러 나오려고 하지 않았어! 밤낮으로 틀어박혀서, 일도 하고 싶지 않고, 먹고 싶지도 않았어. 종일 누워만 있었어. 나스타시아⁴가 먹을 것을 가져오면 먹고, 가져오지 않으면 그날은 그냥 지나갔어. 심술이 나서 일부러 부탁도 하지 않았어! 밤에는 불도 없이 어둠 속에서 누워 있었지만, 양초값도 벌고 싶지 않았어. 공부를 해야 했지만 나는 책들을 팔아 버렸어. 지금 내 책상 위에 있는 수첩과 공책에는 먼지만 잔뜩 쌓여 있어. 나는 그냥 그렇게 누워서 생각하는 게 더 좋았어. 그래서 계속 생각만 했지……. 그런데 내게 여러 가지 이상한 꿈들이, 뭐라고 꼭 집어서 말할 수 없는 꿈들이 보이더군! 그때서부터 어른거린 거야, 그런 생각들이…… 아냐, 이것도 아냐! 또 잘못 말하고 있군! 그래, 난 그때 계속 자문했어. 왜 나는 이렇게 어리석은 걸까? 만일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고, 내가 그들이 어리석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면, 나는 왜 자신만이라도 더욱 영리해지려고 하지 않는 걸까? 그다음에 나는 깨달았어, 소냐. 만일 모든 사람들이 똑똑해지기를 기다린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야……. 어찌면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지도 모르지.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을 개조할 사람은

누구도 없다고, 그러니 애쓸 가치조차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래, 바로 맞아! 그게 인간의 법칙이야……. 법칙, 소냐! 바로 그래……! 그리고 난 알아, 소냐. 머리와 정신이 견고하고 강한 사람이라야만 사람들의 주권자가 된다는 사실을 말이야! 더 많이 용기를 내어 일을 감행하는 사람만이 사람들 눈에는 옳아 보이는 거야. 보다 많은 것을 무시하는 자만이 그들의 입법자가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치울 수 있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옳은 사람이 되는 거야! 지금까지도 그래 왔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눈먼 사람들만이 그것을 모를 뿐이지!”

라스콜니코프는 이런 말을 하면서, 소냐를 쳐다보기는 했지만, 그녀가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신열⁵이 그를 완전히 사로잡았다. 그리고 그는 어떤 침울한 환희에 휩싸여 있었다. (정말로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던 것이다!) 소냐는 이런 음울한 교리 문답이 그의 믿음이자 법률이었음을 깨달았다. <중략>

그는 생각에 잠겨서 음울하게 말했다.

“어쩌면 나는 ‘아직’ 사람이지, ‘이’가 아닌지도 몰라. 너무 조급하게 자신을 비난했어……. 나는 ‘아직은’ 더 싸워 볼 거야.”

오만한 미소가 그의 입술에 떠올랐다.

“그런 고통을 겪어지고 가겠다니! 그걸 평생토록, 평생토록 말이에요……!”

“익숙해지겠지…….”

그는 생각에 잠겨 침울하게 말했다.

“들어 봐.”

잠시 후 그는 말을 시작했다.

“이제 우는 것은 이것으로 그만두지. 이제 여기 온 이유를 말할 때가 되었군. 나는 놈들이 이제 곧 나를 찾아서 체포할 거라는 말을 당신에게 하러 왔어…….”

“아 — 아!”

소냐는 놀라서 외쳤다.

“아니, 왜 소리를 지르지? 감옥에 가기를 바라더니, 이제 와서 놀라다니? 하지만 내 말을 들어 봐. 나는 그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과 더 싸울 거야.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들에게 증거다운 증거라곤 없으니까. 어제 나는 ‘이제는 다 끝났군!’ 하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위태로웠어. 그런데 오늘은 사정이 좋아졌어. 모든 증거들이 서로 다른 양 끝을 가리키고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들의 기소 내용을 내게 유리한 방향으로 돌리기만 하면 돼, 알았어? 그리고 난 그렇게 할 거야. 이제 그 요령을 터득했거든…….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나는 구속당하게 될 거야. 만일 어떤 우연한 사건이 없었다면, 난 지금쯤 감옥에 앉아 있었을지도 몰라. 어쩌면 오늘이 가기 전에 그들이 ‘또’ 나를 감옥에 처넣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괜찮아, 소냐. 잠깐 잡혀 있다가는 풀려나겠지……. 왜냐하면 그들은 제대로 된 증거물이라고는 단 하나도 가진 게 없거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건 나타나지 않을 거야, 내 약속하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만으로는 사람을 감옥에 보낼 수 없어. 자, 이제 됐어……. 나는 당신에게 알려 주려고 한 것뿐이야……. 어머니와 누이동생은 어떻게 해서든

안심시키고 놀라지 않도록 노력해 볼 작정이야……. 누이동생의 삶은 앞으로 보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 어머니도……. 자, 내가 할 말은 이게 다야. 하지만 조심해. 내가 만약 감옥에 가게 되면, 감옥에 있는 나에게 와 줄 거지?”

“오, 그럼요, 그럼요!”

두 사람은 비탄에 빠져 슬퍼하면서, 마치 폭풍이 지나간 텅 빈 바닷가에 외로이 버려진 사람 들처럼 나란히 앉아 있었다. 그는 소냐를 바라보고, 그에 대한 그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느꼈다. 그러자 이상하게도 그는 그렇게까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가슴 아프게 여겨졌다. 그랬다. 그것은 이상하고 무서운 감정이었다! 소냐에게 오면서 그는 모든 희망과 출구가 오로지 그녀에게만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자신의 고통 중 일부라도 덜어 볼 생각이었다. 그러나 막상 지금 그녀의 온 마음이 그에게로 향하자, 그는 자신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불행해졌다는 사실을 느끼고 의식하게 되었다.

“소냐!”

그는 말했다.

“내가 감옥에 가게 되면, 나를 찾아오지 않는 게 좋겠어.”

소냐는 대답하지 않고 울기만 했다. 몇 분이 흘렀다.

“십자가를 가지고 계세요?”

그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갑자기 그에게 이렇게 물었다.

그는 처음에는 질문을 이해하지 못했다.

“없지요, 없겠지요? 그럼, 여기 이거, 삼나무로 된 십자가를 받으세요. 내게는 쇠로 만든 다른 십자가가 또 있어요. 리자베타⁶의 것이예요. 우리는 서로 십자가를 교환했어요. 리자베타가 내게 자기 십자가를 주었고, 나는 또 내 성상(聖像)⁷을 주었어요. 지금부터 나는 리자베타의 십자가를 걸고 다니겠어요. 이걸 당신 거예요. 받으세요……. 이걸 내 거예요! 내 것이라니까요!”

그녀는 간청하기 시작했다.

“우리 함께 고통을 겪어지러 가요.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요……!”

“이리 쥐!”

라스콜니코프가 말했다. 그는 그녀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십자가를 받으려고 내민 팔을 곧 거뒀다.

“지금은 아냐, 소냐. 나중에 낫겠어.”

그는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말했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낫겠어요, 그게 낫겠어요.”

그녀는 넋이 나간 듯이 그 말을 받았다.

“고통을 겪어지러 갈 때, 그때 목에 거세요. 내게로 오면 내가 걸어 줄게요. 함께 기도하고 같이 가요.”

전체 줄거리_ 러시아의 수도 페테르부르크에 살고 있는 가난한 대학생 라스콜니코프는 부도덕한 인간에 대한 혐오를 키워 가던 중, 선택된 권력자는 사회의 도덕률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돈만 아는 전당포의 노파와 그녀의 여동생을 살해한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그는 죄의식에 빠지게 되고, 예심 판사 포르피리의 예리한 판단력에 의해 피의자로 몰린다. 한편 고향에서 라스콜니코프를 위해 헌신하던 여동생 두냐는 가정 교사로 들어갔던 집에서 봉변을 당하고 나온 후 다시 오빠를 위해 희생적인 결혼을 결심한다. 라스콜니코프가 동생의 약혼자 루진의 위선을 간파하고 결혼을 반대하자, 상경한 두냐는 오빠의 친구인 라주미히의 보살핌을 받으며 그와 가까워진다. 라스콜니코프는 술집에서 사귄 퇴역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비참한 죽음에 연민을 느껴 그의 가족을 돕는다. 이 과정에서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마르멜라도프의 딸 소냐와 가까워지며, 결국 죄를 고백하게 된다. 자살과 자수의 기로에서 고민하던 라스콜니코프는 결국 소냐의 설득으로 자수를 선택하고 8년간의 시베리아 유형을 떠난다. 소냐는 그를 따라가 유형 생활을 도우면서 지극한 사랑을 통해 라스콜니코프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게 한다.

● 어휘 풀이

1. **소냐** 주인공이 술집에서 만난 퇴역 관리 마르멜라도프의 딸.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한 여인이며, 지극한 사랑으로 주인공을 정신적으로 구원에 이르게 함.
2. **이** 사람의 몸에 기생하면서 피를 빨아 먹는 곤충.
3. **라주미히** 라스콜니코프의 친구로 의로운 인물. 살인 피의자로 의심받는 라스콜니코프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의 동생 두냐와 모친을 돌보고, 결국 두냐와 결혼하게 됨.
4. **나스타시아** 라스콜니코프가 하숙하고 있는 집의 하녀.
5. **신열** 병으로 인하여 오르는 몸의 열.
6. **리자베타** 라스콜니코프가 살해한 전당포 여주인의 동생으로 온순한 인물이지만, 살해 현장에 나타나면서 살해당함.
7. **성상** 그리스도나 성모의 상(像).

● 읽기 중 활동

- ① 라스콜니코프가 소냐에게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지 파악해 보자.
- ② 라스콜니코프가 자신이 한 말을 '거짓말'이라고 한 이유를 생각해 보자.
- ③ 라스콜니코프가 생각하는 '인간의 법칙'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④ '오만한 미소'를 짓는 라스콜니코프의 심리를 짐작해 보자.
- ⑤ 라스콜니코프가 소냐로부터 사랑받는 것에 대해 괴롭고 가슴 아파한 이유는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 **도움말** 라스콜니코프의 행동이 '이'와 '인간'에 대한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려해 본다.

1 라스콜니코프가 생각하는 '이'와 '인간'의 개념을 구분하여 정리해 보자.

- 이:
- 인간:

2 라스콜니코프가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한 이유를 말해 보자.

● **도움말** 라스콜니코프에 대한 소년의 태도와 '십자가'의 종교적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본다.

3 소년이 라스콜니코프에게 전달하는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설명해 보자.

맥락 속으로

4 다음 글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인물 설정과 창작 배경 등에 대해 생각해 보자.

페테르부르크는 1861년에 농노 해방이 이루어짐에 따라 수많은 농민들이 새로운 직업을 얻고자 도시로 몰려든 결과, 표트르 대제가 만들어 놓은 깔끔하게 정리된 계획 도시의 면모를 상실하게 되었다. 급작스러운 인구의 팽창은 실업 문제와 더불어 도시의 주거 조건, 즉 수도, 보건 위생, 주택과 관련하여 심각한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으며, 수도의 뒷골목을 범죄와 매춘, 알코올 중독과 고리대금업의 온상으로 만들어 놓았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사회적인 배경을 라스콜니코프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배경으로 제시하고 있다.

(1) 이 글을 바탕으로 라스콜니코프가 처한 상황에 대해 설명해 보자.

(2) 사회적 배경을 감안할 때, 라스콜니코프의 범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 토론해 보자.

작품 너머로

5 다음은 채만식의 '탁류'에서 주인공인 '초봉'이 '장형보'를 죽인 후 한 말이다. 잘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탁류

1937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에 연재된 채만
식의 장편 소설. 1930년대
군산을 중심으로 여주인공
'초봉'이 여러 남성들을 통
해 겪게 되는 파란만장한
삶을 그리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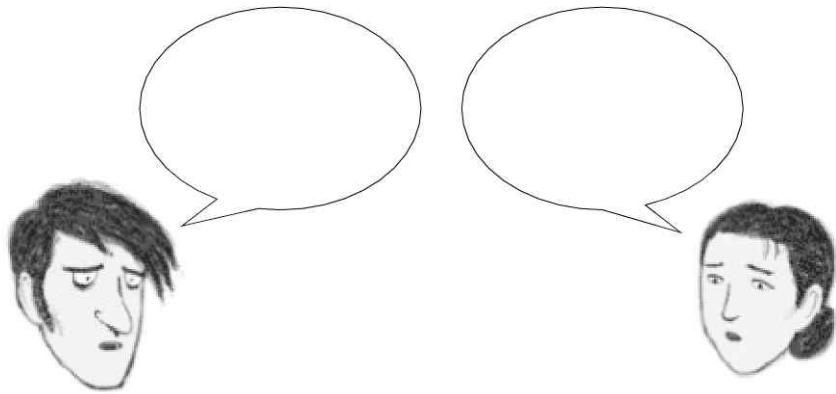
“……자현(自現)*을 하든 징역을 살라구? 사형이라든 차라리 좋지만, 징역을 살다니…… 인전 하다하다 못해서 징역까지 살아? 그 몹쓸 경난을 다아 꺾구 두 남은 고생이 있어서 징역까지 살아?…… 못 하겠다! 난 기왕 죽자구 하던 노릇이니 죽구 말겠다! 죽구 말지 징역이라니!…… 내가 무얼 잘못했길래? 응? 내가 무얼 잘못했어? 장형보 그까짓 파리 목숨 하나만두 못한 생명. 파리 목숨 이라든 남한테 해나 없지. 천하에 몹쓸 악당. 그놈을 죽였다고 그제, 그제 죄란 말이나? 어찌니 그제 죄냐? 미친개는 때려죽이면 잘했다고 추앙하지? 미친개 보담두 더한 걸 죽였는데 어찌서 죄란 말이나? …… 난 억울해서 징역 못 살겠다!…… 왜, 왜 내가 징역을 사니? 인전 두 다리 짝구서 편안히 죽을 것을, 왜 일부러 고생을 사서 하니? 응? 응?”

• **자현** 예전에, 자기 스스로 범죄 사실을 관아에 고백하던 일.

● **도움말** 초봉의 말을
통해 장형보를 죽이게 된
동기를 짐작해 본다.

(1) '초봉'이 '장형보'를 죽인 이유를 말해 보자.

(2) '라스콜니코프'와 '소냐'의 입장에서 각각 초봉에게 할 수 있는 조언을 추측해서 말해 보자.



이 작품은

사회의 도덕률을 뛰어넘는 강한 인간의 존재 가치를 믿고 전당포 여주인을 살해한 주인공과 그러한 살인자까지도 사랑을 통해 정신적 구원에 이르게 하는 여주인공을 중심축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다. 순수한 영혼을 지닌 인간들이 궁핍한 삶 속에서 자기희생을 감내할 수밖에 없고, 탐욕스러운 인간들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대상이 되어 가는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 주인공의 분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사회의 윤리 의식에 비추어 그의 극단적 행동이 수용되기는 어렵다. 비윤리적 현실과 그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또 다른 비윤리의 중첩 속에서 무엇을 죄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죄를 어떻게 벌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있는 작품이다.

작가에 대하여

도스토옙스키(Dostoevsky, Fyodor Mikhailovich, 1821~1881)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소설가. 제정 러시아 시기 봉건주의적 구질서가 붕괴되는 과도기 러시아의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며 사회적·사상적 문제를 반영하였고, 인간 존재의 근본적 문제를 파헤치는 한편 인간의 모순된 내면 의식을 예리하게 해부하여 독창적인 문학 세계를 형성하였다. 주요 작품으로 '가난한 사람들', '백치', '악령',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19세기 러시아 문학

19세기는 러시아 문학의 황금기로, 초기에는 유럽에서 도입된 낭만주의 문학이 번성하였다. 이후 1830~1840년대에는 푸시킨, 고골, 벨린스키 등을 중심으로 사실주의에 기초한 국민 문학이 탄생하였고, 1860년대 들어 투르게네프, 곤차로프,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등 러시아 사실주의의 거장들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러시아 농민의 비참한 운명과 전체 정치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하여 현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였고, 시대정신과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보여 주었다.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그리고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백치' 등 세계적인 명작이 이 시기에 창작되었다.

● 문제적 주인공

근대 이후의 세계는 더 이상 낭만적이고 행복한 사회가 아니므로, 이러한 세계가 반영된 소설 속에서 주인공은 세계와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러한 근대 소설 속의 주인공을 문제적 주인공이라고 한다. 이러한 주인공은 대체로 광인, 범죄자이거나 사회의 보편적 윤리나 가치와 충돌하는 이질적이고 소외된 인물로 나타난다. 문제적 주인공의 대표적 인물로는 '돈키호테'의 주인공 돈키호테, '죄와 벌'의 라스콜니코프, '이방인'의 뫼르소 등을 들 수 있으며, 우리 소설에서는 '광장'의 이명준, '나무들 비탈에 서다'의 동호 같은 인물이 여기에 해당한다.

단원 평가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나는 이제 너에게도 슬픔을 주겠다.
사랑보다 소중한 슬픔을 주겠다.
겨울밤 거리에서 굴 몇 개 놓고
살아온 추위와 떨고 있는 할머니에게
굴값을 깎으면서 기뻐하던 너를 위하여
나는 슬픔의 평등한 얼굴을 보여 주겠다.
내가 어둠 속에서 너를 부를 때
단 한 번도 평등하게 웃어 주질 않은
가마니에 덮인 동사자가 다시 일어 죽을 때
가마니 한 장조차 덮어 주지 않은

무관심한 너의 사랑을 위해
흘릴 줄 모르는 너의 눈물을 위해
나는 이제 너에게도 기다림을 주겠다.
이 세상에 내리던 함박눈을 멈추겠다.
보리밭에 내리던 봄눈들을 데리고
추위 떠는 사람들의 슬픔에게 다녀와서
눈 그친 눈길을 너와 함께 걷겠다.
슬픔의 힘에 대한 이야기길 하며
기다림의 슬픔까지 걸어가겠다.

- 정호승, '슬픔이 기쁨에게'

작품의 종합적 감상

1 이 작품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슬픔이 긍정적 가치를 지닐 수 있다는 새로운 인식에 도달하고 있다.
- ② 선명한 색채 대비를 통해 묘사 대상의 형상적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상황에 대한 묘사를 통해 부정적 현실에 대한 정서적 공감을 유발하고 있다.
- ④ '너'의 행동은 '나'가 지향하는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하고 있다.
- ⑤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겠다'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느낄 수 있다.

작품의 주제와 가치 파악

2 이 작품의 주제와 문학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 (1) 이 작품의 주제를 한 문장으로 적어 보자.
- (2) 주제와 관련하여, 이 작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인식적 가치와 윤리적 가치에 대해 설명해 보자.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피아노에 앉은
여자의 두 손에서는
끊임없이
열 마리씩
스무 마리씩
신선한 물고기가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쏟아진다.

나는 바다로 가서
가장 신나게 시퍼런
파도의 칼날 하나를
집어 들었다.

- 전봉건, '피아노'

시상의 흐름과 가치 파악

3 이 작품의 문학적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자.

(1) 이 작품의 시상의 흐름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때, 빈칸에 들어갈 시어를 찾아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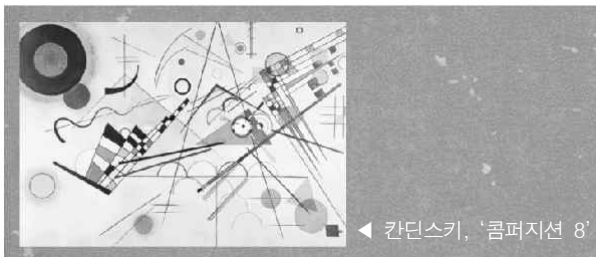
() → 물고기 → 바다 → () → 칼날

(2) 이 작품에서 '물고기'가 의미하는 바를 생각해 보자.

(3) 이 작품에 나타난 심미적 가치에 대해 설명하고, 이 작품에서 윤리적 가치나 인식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지 말해 보자.

공통적 미의식 파악

4 '피아노'와 다음 그림에 나타난 미의식을 대비해 보자.



◀ 칸딘스키, '컴퍼지션 8'

(1) 이 그림이 실재하는 사물을 그리는 구상화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2) '피아노'와 이 그림에 나타난 미의식의 공통점을 찾아보자.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행랑채가 퇴락하여 지탱할 수 없게끔 된 것이 세 칸이었다. 나는 마지못하여 이를 모두 수리하였다. 그런데 그중의 두 칸은 앞서 장마에 비가 썩 지가 오래되었으나, 나는 그것을 알면서도 이럴까 저럴까 망설이다가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한 칸은 비를 한 번 맞고 썩었던 것이라 서둘러 기와를 갈았던 것이다. 이번에 수리하려고 본즉 비가 썩 지 오래된 것은 그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던 까닭으로 수리비가 엄청나게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던 한 칸의 채목들은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던 까닭으로 그 비용이 많지 않았다.

나는 이에 느낀 것이 있었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잘못을 알고서도 바로 고치지 않으면 곧 그 자신이 나쁘게 되는 것이 마치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것과 같으며, 잘못을 알고 고치기를 꺼리지 않으면 해(害)를 받지 않고 다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으니, 저 집의 채목처럼 말끔하게 다시 쓸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치도 이와 같다. 백성을 좀먹는 무리들을 내버려 두었다가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고 나라가 위태롭게 된다. 그런 연후에 급히 바로잡으려 하면 이미 썩어 버린 채목처럼 때는 늦은 것이다. 어찌 삼가지 않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理屋說)’

작품의 구조 분석

5 이 작품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때, 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각각 찾아보자.

경험

성찰

작품의 가치 내면화

6 이 작품을 읽고 새롭게 알게 된 것이나 깨달은 바를 이야기해 보자.

내용 정리

1 인식적 가치의 내면화

- 문학은 인간과 세계와 삶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으며, 그러한 인식을 구체적이고 총체적인 모습으로 보여 준다.
- 문학 작품을 통해 인식의 폭을 넓히고, 그것을 자기 삶의 방식으로 가져옴으로써 인식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2 미적 가치의 내면화

- 문학은 예술의 한 양식으로서 본질적으로 미를 추구하며, 언어를 매개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예술과 차이를 보인다.
- 작품의 미적 가치를 발견하여 예술적 감흥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심미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미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3 윤리적 가치의 내면화

- 문학은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을 현실과 같이 구체적인 형태로 보여 줌으로써 우리의 윤리 의식을 일깨운다.
- 작품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윤리와 사회 유지를 위한 윤리를 탐색하고 윤리 의식을 고양함으로써 윤리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다.

자기 점검

점검 항목	○	◎	⊙
문학 작품에서 인식적·미적·윤리적 가치를 탐색할 수 있는가?			
작품에서 탐색한 가치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			
비판적으로 이해한 가치가 자신의 삶에 대해 가지는 의미를 판단할 수 있는가?			



3

문학 작품의 재구성 및 생산

● 다음 그림들을 감상하면서 작품의 생산과 재구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 다빈치, '모나리자'



▲ 뒤샹, 'L.H.O.O.Q. 수염 난 모나리자'

- ① 두 그림을 비교할 때, 뒤샹의 그림을 예술적 창조라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자.
- ② 뒤샹이 위와 같은 그림을 그린 이유를 추리해 보고, 그 의의에 대해 토의해 보자.

무엇을 배우나

우리는 미술 시간에 명화(名畵)를 감상하기도 하지만 그것을 참고하여 직접 그림을 그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모방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차츰차츰 자신의 그림을 그려 내게 된다. 우리의 문학 활동 역시 훌륭한 작품을 감상하는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감정이나 사상을 하나의 작품으로 표현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서 문학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우리는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한편 그것을 비판적·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도 하고, 자신이 상상하고 체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다양한 시각과 방법으로 작품을 생산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우리는 문학 작품의 생산 능력을 기르고, 더 나아가 한층 성숙한 문학 향유 능력을 갖출 수 있다.

이 단원은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과 ‘작품의 생산’의 두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에서는 기존 작품의 내용, 표현, 형식, 장르, 맥락, 매체 등을 다양하게 바꾸어 보고, ‘작품의 생산’에서는 시와 소설의 기본적인 창작 과정을 이해하고 그것을 적용하여 작품을 창작해 본다. 그리고 이렇게 재구성하거나 생산한 결과물에 대해 평가하는 과정까지 학습을 전개한다.

이 단원에서는

- 재구성이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수용한다.
- 내용, 표현, 형식, 장르,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한다.
- 생산의 전·중·후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한다.
- 재구성이나 생산한 작품을 발표하고 상호 평가한다.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우리는 문학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얻기도 하고, 문학 작품을 자신의 삶과 연결해 보면서 다양한 가치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때 작품의 의미나 가치는 작가가 만든 것이지만, 독자가 작품의 의미나 가치를 작가의 구상대로만 수용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독자는 자신의 감성과 이성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비판하면서 작품을 자기화한다.

이처럼 문학 작품의 수용은 독자가 작품의 의미와 가치를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비판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작품을 읽는 과정에서 인물과 상황, 또는 표현 등을 다양하게 바꾸어 보면서 ‘이랬으면 어떨까?’ 하는 상상을 한다. 작품에 대한 창조적인 상상은 문학적 수용의 한 과정이면서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는 문학적 표현 욕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된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스럽게 문학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으로 연결된다.

작품의 감상 단계에서 상상을 통해 이루어지는 창조적 재구성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또는 맥락이나 매체 등을 바꾸어 보는 실제적인 재구성 활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재구성 활동은 독자가 문학 작품을 수용하는 적극적 과정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문학 창작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초 단계의 하나이다.

하나의 작품이 각 구성 요소 간의 유기적인 결합에 의해 완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구성은 단지 원작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형을 통해 또 다른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를 만들어 내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작의 내용이나 표현을 바꾸는 활동은 하나의 완성된 작품을 전제로 서로의 영향 관계를 고려하여 수행해야 한다. 형식이나 장르를 바꾸는 활동, 또는 작품의 맥락이나 매체를 바꾸는 활동 역시 내용이나 표현을 바꾸는 활동을 수반하게 된다.

원작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비판적 검토는 작품의 재구성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선행 조건이다. 원작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재구성 활동을 한다면, 원작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물론 그 원작을 바탕으로 재구성을 한다는 취지 자체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이 작품은 산골 간이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형상화한 시를 재구성해 쓴 소설이다.

- 인물 묘사와 배경 설정의 특징을 중심으로 읽어 보자.
- 한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광재구의 시, '사평역에서'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별로 복잡한 내용이라 할 것도 없는 장부를 마저 꼼꼼히 확인해 보고 나서야 늙은 역장은 돈보 기안경을 벗어 책상 위에 놓고 일어선다.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출입문 위쪽에 붙은 낡은 벽시계가 여덟 시 십오 분을 가리키고 있다. 하긴 뭐 벌써라는 말을 쓰는 것도 새삼스럽다고 그는 고쳐 생각한다. 이렇게 작은 산골 간이역에서 제시간에 정확히 도착하는 완행열차를 보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님을 익히 알고 있는 탓이다. 더구나 오늘은 눈까지 내리고 있지 않은가.

역장은 손바닥을 비비며 창가로 다가가더니 유리창 너머로 무심히 시선을 던진다. 건널목 옆 외눈박이 수은등이 경충하게 서서 홀로 눈을 맞으며 희뿌연 얼굴로 땅바닥을 내려다보고 있다. 송이눈이다. 갓난아이의 주먹만 한 눈송이들은 어둠 저편에 까맣게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수은등의 불빛 속에 뛰어들어 오면서 뚱그렇게 놀란 표정을 채 지우지 못한 채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있다. 굉장한 눈이다. 바람도 그리 없는데 눈발이 비스듬히 비껴 날리고 있다. 늙은 역장은 조금은 근심스런 기색으로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어 본다. 하지만 콧김이 먼저 재빠르게 유리창에 달라붙어 뿌연 물방울을 만들었기 때문에 소매로 훔쳐 내야 했다. 철길은 아직까지는 이상이 없었다.

그는 두 줄기 레일이 두툼한 눈을 뒤집어쓴 채 멀리 뻗어 나간 쪽을 바라본다. 낮엔 철길이 저만치 산모퉁이를 돌아가는 모습까지 뚜렷이 보였다. 봄날 몸을 푼 강물이 흐르듯 반원을 그리며 유유히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철길의 끝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도 모든 걸 다 마치고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어느 노년의 모습처럼 그것은 껍이나 안온하고 평화로운 느낌을 주곤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철길은 훨씬 앞당겨져서 끝나 있다. 수은등 불빛이 약해지는 부분에서부터 차츰 희미해져 가다가 이윽고 흐물흐물 녹아 버렸는가 싶게 철길은 더 이상 볼 수

가 없다. 그 저편은 철쭉 같은 어둠이다. 어둠에 삼키워져 버린 철길의 끝이 오늘 밤은 까닭 없이 늙은 역장의 가슴 한구석을 찢렁하게 만든다. 그는 공연히 어깨를 떨어 보며 오른편 유리창 쪽으로 몸을 돌린다. 그쪽은 대합실과 접해 있는 이를테면 매표구라고 불리는 곳이다.

역장은 먼지 낀 유리를 통해 대합실 안을 대충 휘둘러본다. 대합실이라고 해야 고작 국민학교 교실 하나 정도의 크기이다. 일제 때 처음 지어졌다는 그 작은 역사 건물은 두 칸으로 나누어져서 각각 사무실과 대합실로 쓰이고 있는 터였다. 대개의 간이역이 그렇듯이 대합실 내부엔 눈에 떨 만한 시설물이라곤 거의 없다. 유난히 높은 천장과 하얗게 회칠¹한 사방 벽 때문에 열평도 채 못 되는 공간이 텅텅이 넓어 보여서 더욱 을씨년스런 느낌을 준다. 천장까지 올라가 매미마냥 납작하니 붙어 있는 형광등의 불빛이 실내 풍경을 어슴푸레하게 드러내 주고 있다.

지금 대합실에 남아 있는 사람은 모두 다섯이다. 한가운데에 툽밥² 난로가 놓여져 있고 그 주위로 세 사람이 달라붙어 있다. 난로는 양철통 두 개를 맞붙여서 세워 놓은 듯한 꼬락서니로, 그나마 녹이 잔뜩 슬어 있어서 그간 겨울을 몇 차례나 맞고 보냈는지 어림잡기조차 힘들다. 난로의 허리께에 툽날 모양으로 촘촘히 뚫린 구멍 새로는 툽밥이 타들어 가면서 내는 빨간 불빛이 내비치고 있다. 하지만 형편없이 낡아 빠진 그 난로 하나로 겨울밤의 찬 공기를 덥히기에는 어렵도 없을 듯싶다.

난롯가에 모여 있는 셋 중 한 사람만 유일하게 등받이 없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러고 있는 것도 힘겨운지 등 뒤에 서 있는 사람의 팔에 반쯤 기대 자세로 힘없이 안겨 있다. 그는 아까부터 줄곧 꼴룩거리고 있는 중늙은이로, 오래 앓아 오던 병이 요즘 들어 부쩍 심해져서 가까운 도회지의 병원을 찾아가려는 길이라는 것을 역장도 알고 있다. 등을 떠받치고 있는 건장한 팔뚝의 임자는 바로 노인의 아들이다. 대합실에 있는 다섯 사람 가운데에서 그들 두 부자만이 역장에겐 낯익은 인물들이다.

그 곁에서 난로를 등진 채 불을 쪼고 있는 중년의 사내는 처음 보는 얼굴이다. 마흔은 넘었을까 싶은 사내는 싸구려 털실 모자에 때 묻은 구식 오버를 걸쳐 입었는데 첫눈에도 무척 음울해 보이는 표정을 지니고 있다. 길게 자란 턱수염이며, 가무잡잡한 얼굴 그리고 유난히 번뜩이는 눈빛이 왠지 섬뜩하다. 오랜 세월을 햇볕 한 오라기 들지 않는 토굴 속에 갇혀 보낸 사람처럼 사내의 눈은 기묘한 광채마저 띠고 있다.

그 셋 말고도 저만치 벽을 따라 길게 붙어 있는 나무 의자엔 잠바 차림의 청년 하나가 웅크리고 앉아 있다. 그리고 청년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곳에는 미친 여자가 의자 위에 벌렁 누워 있다. 닥치는 대로 옷을 껴입은 여자는 속을 가득 채운 걸레 보통이마냥 몸집이 통통하다.

청년은 추운지 호주머니에 두 손을 찢러 넣은 채 어깻죽지를 잔뜩 웅크리고 있으면서도 무슨 까닭인지 난로 곁으로 갈 생각은 하지 않는 눈치다. 뭔가 골똘히 생각하는 표정으로 청년은 들여다볼 만한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시멘트 바닥을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다.

툽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창 너머 그들을 하나하나 둘러보다가 문득 난로 쪽을 슬쩍 쳐다보며 늙은 역장은 중얼거린다. 불을 지핀 게 두어 시간 전이니 지금쯤은 툽밥이 거의 동이 났을 것이다.

툽밥은 역사 바깥의 임시 창고에 저장해 놓고 있었다. 월동용 툽밥이 필요량의 절반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다는 사실을 역장은 아까서야 알았다. 미리미리 충분한 툽밥을 확보해 두는 것은 김 씨가 맡은 일이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한 자신에게도 책임은 있다고 역장은 생각한다. 역원이라고 해야 역장인 자신까지 합해 기껏 세 명뿐이니 서로 책임을 확실히 구분 지을 수 있는 일 따위란 애당초 있을 턱이 없었다. 하필 이날따라 사무원인 장 씨는 자리를 비우고 없는 참이었다. 아내의 해산일이라고 어제 아침 고향인 K시로 달려갔으므로 그가 돌아올 때까지는 역장은 김 씨와 둘이서 교대로 야근을 해야 할 처지였다.

하지만 툽밥은 우선 당분간 창고에 남아 있는 것으로 이럭저럭 건디어 낼 수 있으리라. 대합실 난로는 하루 두 차례씩만 피우면 되니까.

역장은 웅크렸던 어깨를 한번 힘차게 펴 보기도 하고 두 팔을 앞뒤로 흔들어 보기도 한다. 역시 축긴 마찬가지다. 그새 손발이 시려 오기 시작했으므로 역장은 코를 훌쩍이며 엉금엉금 책상 앞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는 사무실용으로 쓰고 있는 석유난로를 마주하고 앉아 손발을 펼쳐 널었다.

“아야, 말이다. 이러다가 기차가 영 안 올라는갑다.”

“아빠, 아부님도 참. 좀 기다려 보십시오. 설마 온다는 기차가 안 오기사 할랍디여.”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얼굴도 돌리지 않고 건성 대답한다. 그는 삼십 대 중반의 농부다. 다시 노인이 쿨룩거리기 시작한다. 그때마다 빈약하기 그지없는 가슴팍이 흰히 드러나도록 흔들리고 있다. 아들은 힐끗 노인을 내려다보았으나 이내 고개를 돌리고 난로만 들여다본다. 노인에게는 미안한 일이긴 하나 아들은 모든 게 죄다 짜증스럽다. 벌써 몇 달째 끌어 온 노인의 병도 그렇고, 하필이면 이런 날, 그것도 밤중에 눈까지 펄펄 쏟아져 내리는데 기차를 타야 한다는 일도 그렇다. 그 모두가 노인의 괴팍한 성깔 탓이라는 생각이 들자 그는 버럭 소리라도 질러 주고 싶은 심정이다.

아들이 전에도 여러 번 읍내 병원에 가 보자고 했지만,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우며 죽더라도 그냥 집에서 죽겠노라던 노인이 난데없게도 이날 점심나절에는 스스로 먼저 병원엘 가자면서 나선 것이었다. 소피에 혈이 반이 넘게 섞여 나온다는 거였다. 부랴부랴 차비를 꾸리고 나니, 이번엔 하루 두 차례씩 왕래하는 버스는 멀미 때문에 절대로 타지 않겠다며 노인은 한사코 역으로 가자고 우겼다. 이놈아, 병원에 닿기도 전에 내 죽는 꼴을 볼라고 그라냐. 봐라. 싫으면 나 혼자라도 갈란다. 어찌나 엄살을 떠는 통에 할 수 없이 노인을 등에 업고 나오긴 했는데, 그나마 일이 안 되려니까 기차마저 감감무소식이였다.

“빌어먹을 놈의 기차가…….”

농부는 문득 치밀어 오르는 욕지거리를 황황히 깨물며 지레 놀라 노인의 눈치를 살핀다. 다행히 눈곱 낀 노인의 눈은 아까처럼 질끈 닫혀 있다. 아들은 고통으로 질게 고랑을 파고 있는 노인의 추한 얼굴을 내려다보고는 약간 죄스러운 맘이 된다.

이거, 내가 무슨 짓이다냐. 죄받는다, 죄받아…….

노인이 또 쿵쿵쿵쿵 기침을 토해 낸다. 가슴 밑바닥을 쇠갈퀴로 긁어내는 듯한 고통스런 기침 소리.

그들 부자 곁에 서서 등을 돌린 난로의 불기를 켜고 있는 중년 사내는 자지러지는 기침 소리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시늉을 한다. 기침 소리를 들으면 사내에겐 불현듯 떠오르는 얼굴이 하나 있다. 감방장인 늙은 허 씨다. 고질인 해소병으로 만날 골골거리던 허 씨는 그것이 감방에 들어와 얻은 병이라고 했다. 난리 후에 사상범으로 잡혀 무기형을 받은 허 씨는 스물일곱 살부터 시작한 교도소 생활이 벌써 이십오 년에 이르고 있었지만, 언제나 갓 들어온 신참마냥 말도 없고 어수룩해 보이는 사람이었다.

사내 운이 좋은 걸세. 쿵쿵쿵쿵. 나가면 혹 우리 집에 한번 들러 봐 줄라나. 이거 원, 소식 끊긴 지가 하도 오래돼 놔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사내가 출감하던 날, 허 씨는 고참 무기수답지 않게 눈물까지 글썽이며 사내의 손을 오래오래 잡고 있었다.

사내는 저만치 유리창 밖으로 들이치는 눈발 속에서 희끗희끗한 허 씨의 머리카락이며 움푹 패어 들어간 눈자위를 기억해 내고 있다.

아마 지금쯤 그곳은 잠자리에 들 시간일 것이다. 젓가락을 쏴아 놓은 듯한 을씨년스런 창살 너머로 이 밤 거기에도 눈이 오고 있을까. 섬뜩한 탐조등의 불빛이 끊임없이 어둠을 면도질해 대고 있을 교도소의 밤이 너리에 떠오른다. 사내의 눈빛은 불현듯 그윽하게 가라앉고 있다. 그곳엔 사내가 잃어버린 열두 해 동안의 세월이 남아 있었다. 이렇듯 멀리 떨어져서도 그 모든 것들을 눈앞에 훤히 그려 낼 수 있을 만큼 어느덧 사내는 이미 그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다.

출감한 지 며칠이 지났건만 사내는 감방 밖에서 보낸 그간의 시간이 오히려 꿈처럼 현실감이 없다. 푸른 옷과 잿빛의 벽, 구린내 같은 밥 냄새, 땀 냄새, 복도를 걷는 간수의 구둣발 소리, 찢어령대는 쇠소리……. 그런 모든 익숙한 색깔과 촉감, 냄새, 소리, 그리고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일과 같은 것들이 별안간 그에게서 떨어져 나가 버리고 대신에 전혀 생소한 또 다른 사물들의 질서가 사내에게 일방적으로 떠맡겨진 거였다. 그 새로운 모든 것들은 다만 사내를 당혹감에 빠뜨리고 거북하게 만들 뿐이었다. 그 때문에 사내는 출감 후부터 자꾸만 무엇인가 대단히 커다란 것을 빼앗겼다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감방 안에서 사내는 손바닥 안에 움켜쥔 모래알이 빠져나가듯 하릴없이 축소되어 가고 있는 자기 몫의 삶의 부피를 안타깝게 저울질해 보곤 했었다. 하지만 기이한 일이다. 낯선 시골 역에 홀로 앉아 있는 이 순간 정작 자기가 빼앗긴 것은 흘러보내는지 모르게 보낸 지난 십이 년의 세월이 아니라, 오히려 그 푸른 옷과 잿빛 담벼락과 퀴퀴한 냄새들이 배어 있는 사각형의 좁은 공간일지도 모른다는 가당찮은 느낌이 문득문득 들곤 하는 거였다.

쿵쿵쿵쿵. 아, 저 기침 소리. 사내는 흠칫 몸을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찾는다. 그러나 그것은 감방장 허 씨가 아니다. 낮모르는 사람들뿐. 사내는 낮게 한숨을 토해 내며 고개를 흔들며 버리고 만다.

전체 줄거리_ 30대 중반의 농부와 그의 병든 아버지, 교도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되는 중년 사내, 대합실 의자에 웅크린 미친 여자, 시국 사건으로 대학에서 제적당한 청년이 시골 간이역 대합실 안 난로 주위에 모여 있다. 잠시 후 몸집이 큰 중년 여자와 바바리를 입은 처녀, 보파리를 인 아낙네 둘이 역으로 들어온다. 중학교 졸업 후 상경하여 술집에서 일하는 처녀는 고향에 내려왔다가 다시 서울에 가는 길이고, 중년 사내는 감옥에 같이 있었던 무기수 사상범 허 씨의 고향 노모를 찾아왔다가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길이다. 대학생 청년은 고향의 부모에게 제적당했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이다. 두 차례 특급 열차가 통과하여 지나가고, 두 시간 후 야간 완행열차가 도착하고 그들은 떠나지만, 대합실에는 미친 여자가 계속 잠든 채 있다.

● 어휘 풀이

1. **회칠** 석회를 바르는 일.
2. **뜸밥** 뜰으로 쪄거나 자를 때에 나무 따위에서 쏠려 나오는 가루.

● 읽기 중 활동

- ① 지금까지 묘사된 내용에서 느껴지는 '사평역'의 분위기를 말해 보자.
- ② 역 안에 있는 다섯 인물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자.
- ③ 아들의 말과 심리를 바탕으로 그의 인물됨을 추측해 보자.
- ④ 사내가 빼앗겼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그와 같이 생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 ⑤ 지금까지의 내용 전개를 고려할 때, 뒤에 이어질 내용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1 이 작품의 인물을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1) 다음 표현이 누구의 생각을 드러낸 것인지 찾아보고,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인물의 심리를 추리해 보자.

표현	인물	심리
벌써 삼십 분이나 지났군.	역장	기차가 연착하는 것에 대한 걱정
툭밥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거, 내가 무슨 짓이다냐. 죄 받는다, 죄받아…….		
아, 저 기침 소리.		

- (2) 이 작품에서는 초점이 맞춰지는 인물이 계속 바뀌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이 작품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2 이 작품의 배경을 중심으로 아래 활동을 해 보자.

● **도움말** 난로의 기능과 공간의 성격을 함께 고려해 본다.

- (1) 대합실에 놓여 있는 ‘툭밥 난로’의 상징적 의미를 역장 사무실에 있는 ‘석유난로’와 대비하여 설명해 보자.

- (2) 이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을 파악하고, 이와 같이 배경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해 보자.

- 시간적 배경:
- 공간적 배경:

맥락 속으로

3 이 작품은 다음 시에서 영감을 받아 쓴 소설이라고 한다. 시를 읽고 아래 활동을 해 보자.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흰 보라 수수꽃 눈 시린 유리창마다
 툇툇 난로가 지퍼지고 있었다
 그뭉처럼 몇은 줄고
 몇은 감기에 쿨럭이고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한 줌의 툇툇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산다는 것이 때론 술에 취한 듯
 한 두름의 굴비 한 광주리의 사과를

만지작거리며 귀향하는 기분으로
 침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들 알고 있었다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쓴 약 같은 입술 담배 연기 속에서
 싸뜩싸뜩 눈꽃은 쌓이고
 그레 지금은 모두들
 눈꽃의 화음에 귀를 적신다
 자정 넘으면
 낮설음도 뼈아픔도 다 설원인데
 단풍잎 같은 몇 잎의 차창을 달고
 밤 열차는 또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리웠던 순간들을 호명하며 나는
 한 줌의 눈물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

● **도움말** 소설 속에서 '송이눈'이나 '기침 소리'가 나오는 대목을 모두 찾아본다.

(1) 다음 시구가 소설에서 어떻게 변형되고 구체화되었는지 찾아보자.

- 대합실 밖에는 밤새 송이눈이 쌓이고:
- 오래 앓은 기침 소리와:

(2) 시에는 없던 '역장'이라는 인물이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말해 보자.

● **도움말** 사평역이라는 공간의 성격을 고려하여, 그러한 공간 속에 어울릴 만한 사연을 구상해 본다.

(3) 지금까지 이 소설이 전개된 내용을 고려하여, 이 소설의 뒤에 이어질 '잠바 차림의 청년'이나 '미친 여자'와 관련된 사연을 구상해 보자.

작품 너머로

4 다음은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시의 일부이다. 이 시를 재구성하는 활동을 해 보자.

4·19 혁명
1960년 4월에 학생을 비롯한
국민들이 이승만 자유당 정부의
독재와 부정부패, 부정 선거에
항의하여 벌인 민주 항쟁.

4·19가 나던 해 세밑
우리는 오후 다섯 시에 만나
반갑게 악수를 나누고
불도 없이 차가운 방에 앉아
하얀 입김 뿜으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정치와는 전혀 관계없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리라 믿었던 것이다
결론 없는 모임을 끝낸 밤
혜화동 로터리에서 대포를 마시며
사랑과 아르바이트와 병역 문제 때문에
우리는 때 묻지 않은 고민을 했고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는 노래를
누구도 흉내 낼 수 없는 노래를
저마다 목청껏 불렀다
돈을 받지 않고 부르는 노래는
겨울밤 하늘로 올라가
별똥별이 되어 떨어졌다
그로부터 18년 오랜만에
우리는 모두 무엇인가 되어
혁명이 두려운 기성세대가 되어
넥타이를 매고 다시 모였다
회비를 만 원씩 걷고
처자식들의 안부를 나누고
월급이 얼마인가 서로 물었다

● **도움말** 4·19 혁명 당시 젊은이로서 보여 준 모습과 대조되는 현재의 모습이 잘 드러나도록 한다.

(1)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이 시의 뒷부분을 이어 써 보자.

[조건]

- 어조나 표현의 일관성을 고려할 것.
- 세월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잘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을 설정할 것.

(2) 다음 조건을 고려하여, 이 시를 영화로 만들기 위한 계획서를 다음 표에 따라 구성해 보자.

[조건]

- 시의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현재 자신의 맥락으로 바꾸어 새롭게 구성할 것.
- 영화를 통해서 보여 주고자 하는 바를 ‘기획 의도’에 구체적으로 드러낼 것.
- 인물의 성격을 고려하여 이름을 정하고, 그들의 구체적인 직업과 성격을 설정할 것.
- 18년 전과 후의 상황을 어떤 매개를 사용하여 연결할 수 있을지를 감안하여 줄거리를 구성할 것.

기획 의도	
등장인물	
줄거리	

이 작품은

곽재구의 '사평역에서'라는 시를 읽은 작가가 이를 소설로 변용한 것으로, 인물들 간의 갈등과 그로 인한 사건보다는 산골 간이역 대합실에서 완행열차를 기다리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내면 심리가 서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대합실에 모인 그들은 모두 1970~1980년대 산업화와 민주화의 도정에서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출감한 중년 사내, 술집 여자, 돈을 벌기 위해 음식점을 경영하는 과부, 시국 사건으로 제적된 청년, 잠자는 미친 여자 등은 저마다 삶의 상처를 지닌 인물들로, 기약도 없이 늦어지는 막차를 기다리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상념에 젖어 있다.

작가에 대하여

임철우(林哲佑, 1954~)

소설가. 분단의 문제와 이데올로기의 폭력성, 5·18 민주화 운동 등 사회적 문제에 대해 문학적 관심을 가져 온 작가이다. 주제는 무겁지만 서정적인 문체로 이야기를 엮는 특징이 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배경으로 한 소설로 '개도독', '동행', '붉은 방', '봄날' 등이 있고, 한국전쟁과 분단의 문제에 관심을 둔 '그 섬에 가고 싶다', '등대 아래서 휘파람', '붉은 산 흰 새' 등이 있다.



알짜 지식

● 전형적(典型的) 인물

전형적 인물이란 그 인물이 속해 있는 사회적 범주의 보편성을 실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으로 구별되는 특정한 성이나 세대, 나이, 신분, 계층, 직업 등에 속한다. 이러한 사회적 범주에 따른 구분에서 특정한 범주가 지닌 대표적인 속성을 구현하는 인물이 바로 전형적 인물이다. 전형적 인물은 당대의 사회적 환경이 요청하거나 빚어낸 사고방식이나 행동 방식에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전형적 인물이 좁은 의미로 이해될 때에는, 주로 리얼리즘 계열 소설에서 사회구조의 모순과 대결하거나 그 모순을 삶을 통해 드러내는 인물을 가리킨다.

● 패러디

유명한 작가나 작품을 의도적으로 모방하는 기법을 말한다. 문학에서만만이 아니라 음악, 미술, 영화, 광고, 드라마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에서 두루 활용된다. 문학에서는 주로 문체나 운율을 모방하는 경우가 많지만, 소재나 발상이 모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장르에 대한 패러디, 한 시대나 조류에 대한 패러디, 특정 예술가에 대한 패러디, 개별 작품이나 작품의 일부분에 대한 패러디, 예술가의 전체 작품의 특징적 양식에 대한 패러디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개별 작품에 대한 패러디에 비해 장르 패러디는 사회적·문화적 의미가 훨씬 더 크다. 시를 소설이나 다른 장르로 패러디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2) 작품의 생산

우리는 문학 창작을 이제까지 없던 독창적인 작품을 만들어 내고, 전문적인 작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현재 작가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처음부터 이러한 능력을 타고난 것은 아니다. 시나 소설의 갈래별 특징을 이해하고, 자기 나름의 문체를 개발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결과 대중에게 내놓을 만한 작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문학 작품을 창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작품의 내용을 생성해야 한다. 작품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에는 폭넓은 체험과 세심한 관찰, 그리고 현상을 뒤집어 보는 생각 등이 필요하다. 좁은 울타리 속에서는 많은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생각을 끌어낼 수 없으므로 세상을 폭넓게 체험하고, 동일한 현상을 보더라도 피상적인 이해에 그치지 않으려면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그리고 선입견이나 편견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현상을 한번 뒤집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품의 내용이 결정되면 그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표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개성을 살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시를 쓸 때에는 언어의 음악성이 잘 드러나도록 하며, 비유나 상징 등의 표현 기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한다. 소설을 쓸 때에는 인물의 성격 창조와 갈등 전개에 주목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구성과 서술자를 구상한다. 희곡을 쓸 때에는 무대 공연을 염두에 두고 대사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과 갈등 상황을 어떻게 보여 줄 것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그리고 수필을 쓸 때에는 생활 속에서 체험하고 성찰한 바를 개성적으로 전달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작품을 생산할 때에는 무엇보다 작품의 창작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내용 전개나 서술 방식, 표현 전략 등에 대한 계획이 충실하지 않으면, 창작 과정에서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결국 작품의 세부 요소들이 하나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작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수립한 계획은 지속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완성된 작품은 최종적으로 퇴고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작품은 1930년대 서울을 배경으로 소설가인 주인공이 자신의 하루를 그려 낸 소설이다.

- 서사 구조와 서술 방식에 주목하여 읽어 보자.
- 이 소설을 참고하여 자신의 하루를 소재로 하는 문학 작품을 생산해 보자.

조그만

한 개의 기쁨을 찾아, 구보는 남대문을 안에서 밖으로 나가 보기로 한다. 그러나 그곳에는 불어 드는 바람도 없이, 양옆에 웅숭그리고¹ 앉아 있는 서너 명의 지게꾼들의 그 모양이 맥없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약동하는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도회의 소설가는 모름지기 이 도회의 항구(港口)와 친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론 그러한 직업의식은 어떻든 좋았다. 다만 구보는 고독을 삼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옆에 끼여 앉을 수도 없게서리 사람들은 그곳에 뻘뻘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온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의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네들의 동료가 아닌 사람에게 그네들은 변소에 다녀올 동안의 그네들 짐을 부탁하는 일조차 없었다. 남을 결코 믿지 않는 그네들의 눈은 보기에 딱하고 또 가엾었다.

구보는 한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 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뉘 집에 드난² 을 살다가 이제 늙고 또 쇠잔한 몸을 이끌며,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 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행한 일에도 퍼질 틈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孝養)³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노파 옆에 앉은 중년의 시골 신사는 그의 시골서 조그만 백화점을 경영하고 있을 게다. 그의 점포에는 마땅히 주단포복도 있고, 일용 잡화도 있고, 또 흔히 쓰이는 약품도 갖추어 있을 게다. 그는 이제 그의 옆에 놓인 물품을 들고 자랑스러이 차에 오를 게다. 구보는 그 시골 신사가 노파와 사이에 되도록 간격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를 업신여겼다. 만약 그에게 얇은 지혜와 또 약간의 용기를 주면 그는 삼등 승차권을 주머니 속에 간수하고 일어등 대합실에 오만하게 자리 잡고 앉을 게다.

문득 구보는 그의 얼굴에 부종(浮腫)⁴을 발견하고 그의 앞을 떠났다. 신장염. 그뿐 아니라, 구보는 자기 자신의 만성 위 확장(胃擴張)을 새삼스러이 생각해 내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구보가 매점 옆에까지 갔었을 때, 그는 그곳에서도 역시 병자를 보지 않으면 안 되었다. 40

여 세의 노동자. 전경부(前頸部)⁵의 광범한 팽릉(澎隆).⁶ 돌출한 안구. 또 손의 경미한 진동. 분명한 바세도씨병.⁷ 그것은 누구에게든 결코 깨끗한 느낌을 주지는 못한다. 그의 좌우에는 좌석이 비어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앉으려 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있던 아이 엷은 젊은 아낙네가 그의 바스켓 속에서 꺼내다 잘못하여 시멘트 바닥에 떨어뜨린 한 개의 복숭아가 굴러 병자의 발 앞에까지 왔을 때, 여인은 그것을 쫓아와 집기를 단념하기조차 하였다.

구보는 이 조그만 사건에 문득, 흥미를 느끼고, 그리고 그의 ‘대학 노트’를 펴들었다. 그러나 그가 문 옆에 기대어 섰는 캡 쓰고 린네르⁸ 쓰메에리⁹ 양복 입은 사내의, 그 온갖 사람에게 의혹을 갖는 두 눈을 발견하였을 때, 구보는 또다시 우울 속에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안 된다.

개찰구 앞에

두 명의 사내가 서 있었다. 낡은 파나마¹⁰에 모시 두루마기 노랑 구두를 신고, 그리고 손에 조그만 보따리 하나도 들지 않은 그들을, 구보는, 확신을 가져 무직자라고 단정한다. 그리고 이 시대의 무직자들은, 거의 다 금광 브로커에 틀림없었다. 구보는 새삼스러이 대합실 안팎을 둘러본다. 그러한 인물들은, 이곳에도 저곳에도 눈에 띄었다.

황금광 시대(黃金狂時代) —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는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다. 황금을 찾아, 황금을 찾아, 그것도 역시 숨김없는 인생의, 분명히, 일면이다. 그것은 적어도, 한 손에 단장(短杖)과 또 한 손에 공책을 들고, 목적 없이 거리로 나온 자기보다는 좀 더 진실한 인생이었을지도 모른다. 시내에 산재한 무수한 광무소(鑛務所).¹¹ 인지대 백 원. 열람비 오 원. 수수료 십 원. 지도대(地圖代) 십팔 전…… 출원 등록된 광구, 조선 전토(全土)의 칠 할. 시시각각으로 사람들은 졸부(猝富)가 되고, 또 몰락하여 갔다. 황금광 시대. 그들 중에는 평론가와 시인, 이러한 문인들조차 끼여 있었다. 구보는 일찍이 창작을 위하여 그의 벗의 광산에 가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사람들의 사행심(射倖心), 황금의 매력, 그러한 것들을 구보는 보고, 느끼고, 하고 싶었다. 그러나 고도의 금광열은, 오히려, 총독부 청사, 동측 최고층, 광무과(鑛務課) 열람실에서 볼 수 있었다…….

문득, 한 사내가 둥글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卑俗)한 얼굴에 웃음을 띠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 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영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 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

구보는 친하지 않은 사람에게 ‘자네’ 소리를 들으면 언제나 불쾌하였다. ‘해라’는, 해라는 오히려 나왔다. 그 사내는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 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내와 자리를 같이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

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내는 앞장을 섰다. 자아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이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는 한번 흘끗 보기에도, 한 사내의 애인 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다.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광으로 나서는 때다.

의자에 가 가장 자신 있어 앉아, 그는 주문 들으러 온 소녀에게, 나는 가루빼스,¹² 그리고 구보를 향하여, 자네두 그걸루 하지. 그러나 구보는 거의 황급하게 고개를 흔들고, 나는 홍차나 커피로 하지.

음료 칼피스를, 구보는, 좋아하지 않는다. 그것은 외설(猥褻)한 색채를 갖는다. 또, 그 맛은 결코 그의 미각에 맞지 않았다. 구보는 차를 마시며, 문득, 킥다점(喫茶店)¹³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여 본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네들의 그때, 그때의 기분조차 표현하고 있을 게다.

구보는 맞은편에 앉은 사내의, 그 교양 없는 이야기에 건성 맞장구를 치며, 언제든 그러한 것을 연구하여 보리라 생각한다.

전체 줄거리_ 동경 유학까지 다녀온 구보는 직업도 없고, 결혼도 하지 않은 스물여섯 살의 소설가이다. 어머니의 걱정을 뒤로한 채 집을 나온 구보는 서울 시내를 배회하면서 거리의 풍경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때마다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그것들과 연결된 과거의 경험들을 회상한다. 다방에서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다 고독을 느끼며 벼를 찾아가기도 하고, 도시의 풍속도를 살피기 위해 사람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기도 한다. 밤이 되자 벼와 함께 시름을 덜기 위해 술집으로 간다. 거기에서 구보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술집 여급과 유희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새벽 두 시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자 어머니의 걱정을 덜어 드리기 위해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벼와 헤어진다.

● 어휘 풀이

1. **웅승그리고** 솟거나 두터워 몸을 궁상맞게 몹시 웅승그리고.
2. **드난** 임시로 남의 집 행랑에 붙어 지내며 그 집의 일을 도와줌. 또는 그런 사람.
3. **효양** 아버이를 효성으로 봉양함.
4. **부종** 몸이 붓는 증상. 심장병이나 신장병 또는 몸의 어느 한 부분의 혈액 순환 장애로 생김.
5. **전경부** 목의 앞쪽 부분.
6. **팽퉁** 크게 부어오름.
7. **바세도씨병** 바제도병(Basedow病). 눈알이 튀어나오며 갑상샘종을 수반하는 병.
8. **린넨** 리넨(linen). 아마(亞麻)의 실로 짠 얇은 직물을 통틀어 이르는 말.
9. **쓰메에리** 츠메리(つめえり). 깃을 세워 목에 둘러 바싹 여미게 지은 양복.
10. **파나마** 파나마 모자. 파나마풀의 잎을 잘게 찢개어서 만든 여름 모자.
11. **광무소** 광업에 관한 모든 제출 서류를 광업령(鑛業令)에 의거하여 대신 써 주던 영업소.
12. **가루페스** '칼피스'의 일본식 발음. 우유를 가열·살균하고 냉각·발효한 뒤 당액(糖液) 칼슘을 넣어 만든 음료수.
13. **꼭다점** 찻집.

● 읽기 중 활동

- ② 구보에게 '경성역'은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인지 생각해 보자.
- ② 구보가 우울 속에서 대합실을 떠나게 된 이유를 파악해 보자.
- ② 구보가 '자네'보다 '해라'가 오히려 낯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작품 속으로

● **도움말** 구보는 그가 목격하는 도시의 모습 속에서 당시 세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견하고 있다. 이런 점에 주목하여 그의 의식을 파악해 본다.

1 이 작품에서 ‘구보’가 바라본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구보’의 의식을 파악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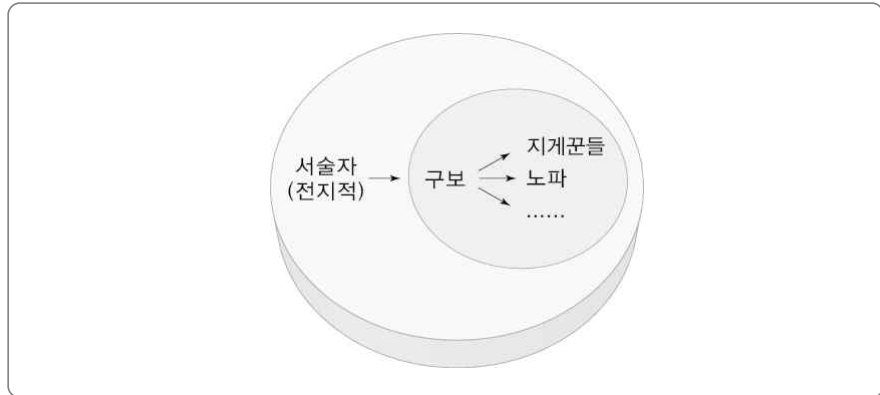
공간	‘구보’가 바라본 대상	대상에 대한 ‘구보’의 의식
남대문	웅숭그리고 앉아 있는 지게꾼들	맥없음.
경성역 대합실	빽빽하게 모여 있는 사람들	온정이 없고 서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없음.
	노파	
	시골 신사	
경성역 매점	병자	
	아이 업은 젊은 아낙네	
	캡 쓰고 린네르 쓰메에리 양복 입은 사내	
경성역 개찰구	두 명의 사내	
	중학 시대의 열등생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	
깍다점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	

● **도움말** 이 소설의 사건 전개가 인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2 일반적으로 소설 속의 사건은 인과적으로 전개되어 나간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이 작품의 사건 전개 방식이 일반적인 소설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보자.

3 다음 그림을 참고하여 이 작품의 서술 시점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해 보자.

● **도움말** 이 소설에서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내면을 모두 전지적으로 서술하고 있는지 생각해 본다.



맥락 속으로

4 다음은 이 작품이 연재되었던 당시의 신문 기사이다. 이 기사를 참고하여 아래 활동을 해 보자.

골드러시…… 황금광 시대는 글자 그대로 거대한 발자취로 진전하고 있다. 지난 20일까지 총독부 광산과 처분계에서 수리한 광업 출원 건수는 실로 5천 25건으로 그중에 금은광(金銀鑛) 관계의 것만 3천2백22건에 달하였다. 광무 과원에 의하면 조선 사람의 출원도 비상이 격증하고 있으나 대개 충실한 자금도 없이 허욕에 들떠서 일시 호기심으로 경륜을 세웠으나 굴착비 문제 등으로 중도에 매도해 버리는 것이 7, 8할 이상에 달한다 한다. 그 반면 일본의 유수한 대재벌의 맹렬한 진출은 위대한 세력을 보이며 비약적 진전을 하고 있음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1) 금광 브로커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구보’가 내신 ‘무거운 한숨’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2) 작가가 이러한 장면을 설정한 이유를 당시의 시대 상황과 연결하여 설명해 보자.

작품 너머로

5 ‘학생 ○○○의 일일’이라는 제목으로 소설을 쓰고자 한다. 다음의 창작 계획서에 따라 소설을 쓰기 위한 계획을 세워 보자.

● **도움말** 창작 계획서에 제시된 설명을 바탕으로 독창적인 창작 계획서를 완성해 본다.

주제	이 소설을 통해 보여 주고 싶은 세상의 모습이나 인간의 삶 등을 중심으로 함.
등장인물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중심인물과 주변 인물들의 성격을 간략히 정리함.
배경	- 작품의 주제나 분위기와 어울리는 시·공간을 배경으로 설정하되 등장인물과의 관련성을 고려함.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구성	- 소설의 일반적인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르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같이 주인공의 동선을 중심으로 장면을 구성할 수도 있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서술방식	인물이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서술자와 서술 방식을 결정함.
줄거리	중심 사건을 요약하여 작성함.

6 위의 창작 계획을 바탕으로 한 편의 소설을 직접 써 보자.

7 창작한 소설을 아래 표에 따라 서로 평가해 보고, 미흡한 부분을 수정해 보자.

평가 항목	평가 점수	우수		↔	미흡	
		5	4	3	2	1
주제가 명확히 드러나 있는가?						
등장인물의 성격이 잘 드러나 있는가?						
배경이 주제나 인물과 어울리게 설정되었는가?						
내용에 어울리는 구성을 취하고 있는가?						
서술자와 서술 방식이 적절한가?						
표현과 문체가 적절한가?						

이 작품은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된 중편 소설로, 문우(文友)였던 이상(李箱)이 하응이란 필명으로 삽화를 그렸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작품은 소설가인 주인공이 하루 동안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며 경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건이나 인물 간의 갈등을 중시하던 기존 소설과 달리 주인공의 시선에 포착된 현실의 모습과 그에 대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이 작품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주인공이 도시를 배회하고 사람들과 만나는 일련의 사건들은 어떤 서사 구조 속에서 인과 관계로 맺어진 것들이 아니라, 다만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연의 연속일 뿐이다. 이와 같은 전개 방식은 이 소설의 본문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조이스의 ‘율리시스’와 연결되는 것으로 당시의 일반적인 독자들이 수용하기 어려운 매우 실험적인 시도였다.

작가에 대하여

박태원(朴泰遠, 1909~1986)

소설가. 호는 구보(仇甫). 1926년 “조선 문단”에 시 ‘누님’이 당선되었고, 1930년 “신생”에 단편 소설 ‘수염’을 발표하였다. 1933년 구인회에 가담한 이후 반계몽·반계급주의 문학의 입장에서 세태 풍속을 묘사한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과 ‘천변 풍경’ 등을 발표하였다. 기존의 소설 형식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실험적 기법의 활용과 문체의 변화 등을 통해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개척하였다.



알짜 지식

● 의식의 흐름

개인의 의식 속에 감각·상념·기억·연상 등이 계속하여 떠오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며, 미국의 심리학자 제임스가 처음 사용하였다. 20세기에 심리 소설이 발전하면서 소설가들은 인물의 이성적인 사고에만 국한하지 않고 그 의식의 흐름 전체를 포착하여 드러내고자 하였다. 의식의 흐름을 충분히 표현하기 위해 일관성 없는 생각의 나열, 비문법적인 구문, 연표 이전 단계에 속하는 사고, 언어의 자유 연상 등을 도입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조이스의 ‘율리시스’, 울프의 ‘달리웨이 부인’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의 ‘날개’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등에서 이러한 의식의 흐름이 잘 나타나 있다.

● 구인회(九人會)

1933년 조직된 문학 단체로, 회원의 숫자를 그 이름으로 삼았다. 1933년 8월에 이종명, 김유영이 발기하고 이효석, 이무영, 유치진, 이태준, 조용만, 김기림, 정지용 등이 함께 참여하여 결성되었다. 그러나 발족한 지 얼마 안 되어 이종명, 김유영, 이효석이 탈퇴하였고, 그 대신 박태원, 이상, 박팔양이 가입하였다. 그 뒤 다시 유치진, 조용만이 탈퇴하고 김유정, 김환태가 보충되어 언제나 그 회원 수는 아홉 명을 유지하였다. 구인회의 회원들은 계급주의 및 공리주의 문학을 배격하고 순수 문학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단원 평가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장생: 비방서는 내가 썼소. 애꿎은 사람 잡아들이지 마쇼.

연산: 뭐야? 장생! 니놈은 광대 놈들 모으러 나간 것이 아니더냐? 정히 니가 한 것이렷다?

장생: 하하. 나, 장생이 아니면 누가 감히 왕을 능멸하겠소이까?

연산: 이놈, 만약 거짓을 고할 시에는 목숨을 보전치 못하리라.

장생: 사실을 고하면 살려 주시려오. 나도 죽기는 싫은데…….

녹수: 저놈이 수작 부리는 거야. 자수할 짓을 왜 해?

장생: 거참 계집이 아니랴까 봐. 말도 많고 참견도 많네.

녹수: (호위대에게) 뭇들 하는 게야? (연산에게) 필체를 대조해 봐야 돼, 필체를.

장생: 내가 썼다는데 필체는 얼어 죽을 필체. 사람 참 귀찮게 하는구먼.

연산: 지필을 가져와라. (지필을 가져오자) 씨라! (장생, 머뭇거리자) 쓰라니까!

장생, 잠시 머뭇거리다 언문 비방서의 내용을 종이 위에 쓴다. 그의 손이 떠다. 그 필체가 같다. 장생, 안도의 한숨을 쉰다.

연산: (비교해 보고) 똑같구먼! (공길 앞에 놓인 파지를 가리키며) 그럼 이것도 니놈이 썼겠지?

공길: 그것은 제가 쓴 글입니다.

장생: 하하하, 이제야 알겠구먼. 오해야, 오해. 내가 저놈과 원래 필체가 같소. 내 언문을 저놈한테 배웠소이다. 보고 따라 쓰고, 쓰고 또 쓰니 어찌 필체가 같지 않을 수 있겠소? 내가 배운 게 따라 하기 아니오? 저 소인배 공길이를 의심했소? 저 머리로 왕 해도 될까 몰라?

연산: 이놈!

공길: 이놈의 잘못입니다. 이놈이 단속하지 못한 죄입니다.

장생: 누가 나를 단속해? 누가 나를 부러?

- 김태웅, '이(爾)'에서

(나) 장생: (연산 앞으로 나서며) 내가 썼소.

연산과 김처선, 의금부 도사 모두 놀라 쳐다본다.

녹수, 의외의 상황에 당황한다.

장생 종이 위에 태연한 척 언문을 적는다. 자세히 보면 손이 미세하게 떨린다.

장생: (종이에 언문을 써 가며) 자 잘 보시오. 저놈이 언문을 나한테 배웠소. 내 쓰는 걸 보고 따라 쓰고, 보고 따라 쓰고 하더니만 필체가 같아졌지.

장생, 얼마만큼 쓰고 종이를 들어 보인다.

같은 필체다.

녹수, 흥 내관을 찌려본다.

흥 내관, 사태 파악이 안 돼 찢절맨다.

공길: (다급하게 연산 앞으로 나서며) 아닙니다. 저놈이 거짓을 고하는 것입니다. 비방서는 제가 쓴 겁니다.

연산, 공길의 말을 믿기 싫은 듯 장생만을 바라본다.

장생: 아니요. 저 소인배가 무슨 배포로 비방서를 썼겠소? 내가 썼소.

- 김태웅 원작·최석 각본, '왕의 남자'에서

원작과 재구성된 작품의 비교

1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에서 '연산'과 갈등 관계에 놓인 인물들은 동일하다.
- ② (가)와 (나)에서 '장생'과 '공길'이 같은 필체를 갖게 된 이유는 서로 다르다.
- ③ (가)에 비해 (나)에서는 '녹수'의 역할이 더 중요하게 부각되어 있다.
- ④ (가)에 비해 (나)에서는 '장생'의 행동에 대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나타나 있다.
- ⑤ (가)에 비해 (나)에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갈래의 특성과 관계가 있다.

재구성할 때의 유의점 파악

2 (가)가 (나)로 각색되는 과정을 근거로 하여, 다른 장르의 작품을 영화로 재구성할 때 유의해야 할 점에 대해 말해 보자.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내가 단추를 눌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라디오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전파가 되었다.

내가 그의 단추를 눌러 준 것처럼
누가 와서 나의
굳어 버린 핏줄기와 황량한 가슴속 버튼을 눌러 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전파가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사랑이 되고 싶다.
끄고 싶을 때 끄고 켜고 싶을 때 켤 수 있는
라디오가 되고 싶다.

- 장정일, '라디오와 같이 사랑을 끄고 켤 수 있다면'

재구성의 의도 추리

- 3 다음에 제시된 김춘수의 '꽃'의 4연과 이 작품의 4연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시인이 이러한 변형을 통해 의도한 바를 추리해 보자.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작품의 재구성

- 4 지금까지 배운 작품 중 하나를 원전으로 삼아 위 작품처럼 창조적으로 재구성해 보자.

내용 정리

1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 문학 작품에 대한 창조적 상상은 우리의 문학적 표현 욕망을 자극하며 자연스럽게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으로 연결된다.
- 문학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은 작품의 내용과 형식, 또는 맥락이나 매체 등을 바꾸는 활동으로 전개된다.
- 문학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은 단순히 원작의 일부를 변형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의 유기적 결합체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 문학 작품을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원작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비판적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2 작품의 생산

- 작품의 내용을 생성하는 데에는 폭넓은 체험과 세심한 관찰, 그리고 현상을 뒤집어 보는 생각 등이 필요하다.
- 작품을 생산할 때에는 갈래의 특성을 고려하고, 자신의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표현해야 한다.
- 문학 작품은 사전의 치밀한 창작 계획과 창작 과정에서의 수정·보완, 그리고 최종적인 퇴고의 과정을 거쳐 완성된다.

자기 점검

점검 항목	○	◎	◎
재구성이나 생산을 염두에 두고 작품을 수용할 수 있는가?			
내용, 표현, 형식, 갈래, 맥락, 매체를 바꾸어 작품을 재구성할 수 있는가?			
생산의 전·중·후 활동을 계획하고 조정하여 작품을 생산할 수 있는가?			



대단원을 마치며

“어떻게 하면 시인이 될 수 있죠?”라는 물음에 대한 답

이브 메리엄(Eve Merriam) / 송무 옮김

나무에서 나뭇잎을 따서
그 모양을 꼼꼼히 살펴보세요
가장자리 선이랑
안쪽의 금이랑

이걸 기억해 두세요, 잎이 가지에 어떻게 매달려 있나
(그리고 가지는 줄기에서 어떻게 휘어져 있나)
4월에 잎은 어떻게 움터 나오나
6월이 되면 어떻게 멋진 차림 갖추나

8월이 다 갈 때쯤이면
손에 쥐고 구겨 보세요
그래서 잎사귀의 여름 끝 슬픔을 냄새 맡아 보세요

목질의 잎자루를 찢어 보고
가을철 가르랑 소리를 들어 보세요
그것이 11월 하늘에 산산이 흩어지는 걸 지켜보세요

그리곤 겨울이 되어
나뭇잎이 하나도 남아 있지 않으면

나뭇잎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시인은 직업일까요? 물론 요즘엔 그런 직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득한 옛날엔 그런 직업이 따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누구나가 시인이었으니까요. 술한 번은 누가 지었던가요? 그 많던 시조나 가사를 지은 사람 등은 그저 뽕뽕이름 했던가요? 그들에게 그것이 생활이었고, 교양이었고, 취미였습니다.

시 쓰기에 대한 시를 보세요. 시를 쓰기 위해 필요한 것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섯 개의 감각 기관만 있으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에 쥐어 보고, 냄새를 맡아 보고, 소리를 들어 보고, 씹어서 맛을 보는 것이지요. 관찰과 느낌, 그 기억을 글로 옮기면 시가 된다 이겁니다. 시 쓰기 참 쉽죠?

그리고 또 하나, 시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것인데 마찬가지로 시라는 걸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